

## 해적 [해] [달]☆[별] 실력가늠자\_흐름의 좌표

1701_[문법] + [제망매가] + [황조가] + [동짓달 기나긴 밤을]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마음의 고향 6] + [김천] + [동백꽃]	006
1702_[문법]+[추강에 밤이 드니]+[넷가에 해오라바]+[가노라 삼각산아]+[승무]+[꽃]+[국순전]+[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020
1703_[문법]+[만홍]+[초토의 시 1]+[국토 서시]+[화왕계]+[어상]+[눈길]	034
1704_[문법]+[설월이 만창한데]+[창 내고자]+[개를 여라문이나]+[선우사-함주시초 4]+[벼]+[용문전]+[서울 1964 겨울]	048
1705_[문법]+[눈 맞아 휘어진 대를]+[덕들에 동난지이 사오]+[두터비 푸리를 물고]+[성북동 비들기]+[풀]+[사씨남정기]+[큰 산]+[만월]	062
1706_[문법]+[오륜가]+[대바람 소리]+[강우]+[황새 결승]+[제3인간형]	078
1707_[문법]+[사우가]+[절정]+[떨어져도 튀는 공처럼]+[하생기우전+만복사저포기]+[카인의 후예]	092
1708_[문법]+[누항사]+[들국]+[수선화, 그 환한 자리]+[홍보가]+[달밤]+[오구-죽음의 형식]	106
1709_[문법]+[서검을 못 일으우고]+[안빈을 염치 말아]+[서방님 병 들여두고]+[결빙의 아버지]+[바다와 나비]+[유광역전]+[오구-죽음의 형식]	120
1710_[문법]+[정과정]+[매화 넷 등걸에]+[국화야 너는 어니]+[한]+[마음의 수수밭]+[낙성비룡]+[관춘수필]	136

밝은 미래☀

노력과 전략



"어서와♥해 달별은처음이지?"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늌자 ✍\_1701호



1701\_[문법] + [제망매가] + [황조가] + [동짓달 지나긴 밤을]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마음의 고향 6] + [김천] + [동백꽃]



☀️) ☆1701호



문법>

01\_음운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 ① 음운은 의미를 변별해 주는 표기의 최소 단위이다. O/X
- ② 자음과 모음은 분절 음운에, 소리의 장단은 비분절 음운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O/X
- ③ 국어의 자음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2가지 성질로 나뉘볼 수 있다. O/X
- ④ 반모음은 발음 과정에서 혀의 위치가 이동하는 것으로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O/X
- ⑤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양쪽 특징을 모두 지닌 개념으로 볼 수 있다. O/X
- ⑥ 음운 현상에서 동화와 교체 중 동화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O/X
- ⑦ 하나의 단어에서는 항상 한 가지의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 O/X
- ⑧ 동일한 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음운 변동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O/X
- ⑨ 연음화는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중 하나로 설명이 가능한 개념이다. O/X
- ⑩ 음운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음운 현상을 탐구할 때는 절대 입으로 소리내지 말고 항상 머리속으로만 계산해 접근해야 한다 이 자속들아. O/X

02\_우리 문법에서의 품사를 생각나는 대로 그렇지만 가능하면 모두, 잘 적어 보세요.

⇒

03\_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자립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 체계

⇒

-의미에 따른 분류 체계

⇒

04\_<보기>는 가상의 어느 일일드라마 대본이다. 괄호 안 지문을 바탕으로 우리 문장의 종류를 탐구하려 할 때, 적절하게 대응해 보세요.

보기

갑\_(오늘 식사의 주메뉴가 무어나는 질문에 답하며)  
“호박고구마”  
을\_(오늘 식사의 주메뉴가 궁금한 상태에서)  
“호박고구마”  
병\_(오늘 식사의 주메뉴는 이것 말고는 없다는 의미에서 강요하는 눈빛으로) “호박고구마”  
정\_(함께 먹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한 덩어리를 내밀며) “호박고구마”  
무\_(앞사람이 자꾸 화를 돌우는 상태에서)  
“호박고구마”

⇒

05\_단어의 짜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어근의 개수에 따른 단어의 분류

⇒

-접사의 유무에 따른 단어의 분류

⇒

-접사의 위치에 따른 단어의 분류

⇒

06\_다음에 제시된 개념과 '대응'되는 개념을 밝히고, 각각의 의미도 함께 밝혀 보세요.

-어미

⇒

-어근

⇒



07\_<보기>의 단어를 잘 보고 아래 설명과 의미가 통하도록 배치해 보세요.

보기

선별選別 / 구별區別 / 구성構成 / 구분區分

- ①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 [     ]
- ②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     ]
- ③ 여러 개 중 일부를 뽑아서 따로 나눔 [     ]
- ④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룸. [     ]



문학 > 고전문문편 >

[가]

- 01 생사로(生死路)는 生死路隱(생사로은)
- 02 예 있으매 두렵고 此矣有阿米次 伊遣(차의유아미차힐이건)
- 03 '나는 간다' 말도 吾隱去內如辭叱都(오은거내여사질도)
- 04 못다 이르고 가느니고. 毛如云遣去內尼叱古(모여운견거내니질고)
- 05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於內秋察早隱風未(어내추찰조은풍미)
- 06 이에 저에 떨어질 앞같이,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차의피의부량락시염여)
- 07 한 가지에 나고 一等隱枝良出古(일등은지랑출고)
- 08 가는 곳 모르온저! 去奴隱處毛冬乎丁(거노은처모동호정)
- 09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는 阿也彌陀刹良逢乎吾(아야미타찰랑봉호으)
- 010 도(道) 닦아 기다리련다! 道修良待是古如(도수랑대시고여)  
- 월명사 지음 양주동 해독, '제망매가'@17E특

[나]

- 01 훨훨 나는 꾀꼬리 翩翩黃鳥(편편황조)
- 02 암수 서로 정답구나 雌雄相依(자웅상의)
- 03 외롭구나 이내 몸은 念我之獨(염아지독)
- 04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誰其與歸(수기여귀)  
- 유리왕, '황조가'@17E특

[다]

- 01 동지(冬至)ㅅ 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 02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러서리 너헛다가
- 03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동지(冬至)ㅅ 들 기나긴 밤을'@17E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가] ⇨
- [나] ⇨
- [다] ⇨

02\_출제자의 [시어뽀]

[가]

- ① '생사로'는 (□죽음의 / □삶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두렵고'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는 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가을'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바람'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앞'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한 가지'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가는 곳 모르온저'의 상황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미타찰'은 (□과거의 / □미래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도 닦'는 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⑪ '꾀꼬리'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정다운' 모습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이내 몸'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누구'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

- ⑮ '동지'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동지'는 (□긴 / □짧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⑰ '춘풍'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⑱ '어른 님'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 [바]르게

- ① 가는 나, 다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② 가, 다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③ 나, 다는 가와 달리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④ 다는 가, 나와 달리 추상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⑤ 가는 나, 다와 달리 화자의 감정을 작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⑥ 가~다 모두 계절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⑦ 가~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⑧ 나는 가, 다와 달리 선경후정의 기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⑨ 가~다 모두 대립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⑩ 가~다 모두 대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⑪ 가는 나, 다와 달리 미래지향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⑫ 나는 가, 다와 달리 대상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O/X
- ⑬ 가~다 모두 시상이 진행되며 화자가 교체되고 있다. O/X
- ⑭ 가~다 모두 정형적 음보를 바탕으로 한 율격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⑮ 가,나는 다와 달리 상승과 하강 등의 방향성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02
- 03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 04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 05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 06
- 07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 08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 09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 10
- 11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 12 한 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 13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 14
- 15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 16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 17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 18
- 19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 20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량이
- 21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 22
- 23 나비 제비야 깎치 마라
- 24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 25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 26
- 27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 28 살찐 젓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 29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 30
- 31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 32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자
- 33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 34
- 35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 36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 37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펄나 보다.
- 38
- 39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17E특

[나]

- 01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02 참새 떼 왈차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 03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 04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05 토란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 06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 07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08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 09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 10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11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 12 서울로 가는 손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 13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14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 15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 16 까닭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 17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 18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 19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 20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 21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초설@17E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워니

[가]

- ① '지금'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남의 땅'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빼앗긴 들'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봄'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햇살'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맞붙은 곳'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논길'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꿈속'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하늘'과 '들'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내 맘'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바람'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종다리'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보리밭'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비'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마른 눈'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도량'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⑰ '노래'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⑱ '나비 제비'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⑲ '아주까리기름을바른 이'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⑳ '호미'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㉑ '흙'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㉒ '밭목이 시도록'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㉓ '땀'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㉔ '아이'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㉕ '내 혼'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㉖ '우스웁다'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㉗ '풋내'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㉘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㉙ '다리를 저'는 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㉚ '지금'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㉛ '고향'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㉜ '이제'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㉝ '대숲 마을'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㉞ '초가지붕'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㉟ '서울'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㊱ '들길'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㊲ '파라라한 웃고름'은 (□따뜻한 / □차가운)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㊳ '꿇은 눈물'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㊴ '신작로 길'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㊵ '수레바퀴 자국'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 [빠]르게 [바]르게

- ① 가는 대체로 유사한 형태의 연 배치로, 나는 유사한 형태의 문장으로 시적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 O/X
- ② 가와 나 모두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③ 나와 달리 가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④ 가와 나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⑤ 나와 달리 가는 화자의 정서 변화가 드러나 있다. O/X
- ⑥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⑦ 가와 나 모두 화자가 겪은 부정적 상황이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O/X
- ⑧ 가와 달리 나는 작품의 표면에 계절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O/X
- ⑨ 가와 나 모두 유사한 통사구조를 지닌 부분이 드러나 있다. O/X
- ⑩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정서가 작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O/X

- ⑪ 나와 달리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⑫ 가와 나 모두 서술어를 생략한 형태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O/X
- ⑬ 가와 나 모두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⑭ 가와 달리 나는 시적 허용을 통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O/X
- ⑮ 가와 나 모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법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⑯ 가와 달리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⑰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⑱ 가와 달리 나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⑲ 가는 나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⑳ 나와 달리 가는 작품의 시작과 끝이 연결되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04\_ 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문학 작품에서 '길'은 단순한 교통 수단의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문학 작품에서의 '길'은 '길'이 지닌 공간성, 표면의 거칠고 부드러움, 길에서 마주치는 풍경의 아름다움과 황폐함, 길이 지닌 방향성, 이상에 다다를 수 있는 수단 등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인생과 심리를 빗대어 드러내는 비유적 의미를 획득하여 작품에 드러나게 된다.

- ① 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길'을 통해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② 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길과 길에서 만난 대상들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가의 길과 연결된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은 가의 길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이상으로 볼 수 있다. O/X
- ④ 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 까닭은 자신이 걷는 길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다. O/X
- ⑤ 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이 걷는 길이 이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O/X
- ⑥ 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는 다른 방향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X
- ⑦ 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X
- ⑧ 나의 '길'은 실제의 '길'이라기 보다는 걷는 사람의 내면에 형상화된 '길'로 볼 수 있다. O/X
- ⑨ 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이 걷던 과거의 '길'과의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O/X
- ⑩ 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받는 '싸락눈'은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문학> 고전소설편>

- 01 김천은 명주의 관리로, 어릴 때의 이름은 해장이다. 고종 말 몽골 군대가 고려를 침략했을 때 김천의 어머니와 아우 덕린이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이때 김천은 열다섯 살이었는데, 밤낮으로 목 놓아 울다가 길에서 죽은 포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삼년상을 치렀다.
- 02 14년이 흘렀다. 원나라에서 백호 벼슬의 습성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흘 동안 시장에서 명주 사람을 수소문 하였다. 마침 강원도 정선 사람 김순이 이유를 묻자 습성이 말했다.
- 03 “동경\*에 사는 김 씨 여인이 ‘저는 본래 명주 사람으로, 해장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편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네. 자네는 해장을 아는가?”
- 04 “내 친구요.”
- 05 김순은 편지를 받아서 김천에게 가져다주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06 나는 목숨을 건져 아무 고을 아무 동네 아무 집에 와서 종노릇을 하고 있단다.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추워도 입지 못하며, 낮에는 밭에서 김을 매고 밤에는 방아를 찧는다.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겪는다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가 안단 말이나?
- 07 김천은 편지를 읽고 통곡했다.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목메어 울며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어머니의 몸 값을 치르러 가고 싶었지만 가난해서 돈이 없었다. 겨우 남의 돈을 빌려서 개경에 갔다. 어머니를 찾아 원나라에 가겠다고 하니 조정에서 허가해 주지 않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 08 충렬왕이 즉위하자 다시 원나라에 가기를 청했으나 조정의 방침은 전과 같았다. 오랫동안 개경에 머물며 무도 해지고 양식도 다 떨어졌다. 울적해하며 풀이 죽어 지내던 중 고향 사람인 승려 효연을 길에서 만났다. 김천이 울며 신세를 하소연하자 효연이 말했다.
- 09 “천호 벼슬을 하고 있는 나의 형 효지가 이번에 동경으로 가니 자네가 따라가는 게 좋겠네.”
- 10 김천은 즉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 11 어떤 이가 김천에게 말했다.
- 12 “자네가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지도 벌써 6년이나 되었는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지 어찌 알겠나? 또 불행히도 도중에 도적이라도 만난다면 목숨과 돈만 잃게 되는 게 아닐까?”
- 13 김천은 말했다.
- 14 “가서 어머니를 못 뵈면 못 뵈었지 어찌 내 목숨을 아끼단 말이고요?”
- 15 마침내 효지를 따라 동경에 들어가서 고려의 역어별장(譯語別將)\* 공명과 함께 북방 지역의 천로라는 이가 관할하는 마을로 가서 어머니의 소재를 수소문하였다. 요좌라는 군졸의 집에 이르자 한 노파가 나와서 인사하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봉두난발(蓬頭亂髮)\*에 얼굴에는 때가 새까맣게 끼어 있었다. 김천은 앞에서 보고도 그 노파가 자기 어머니인 줄 알지 못했다. 공명이 노파에게 말했다.
- 16 “너는 누구냐?”
- 17 “저는 본래 명주의 호장 김자룡의 딸로, 남매지간인 진사 김응문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저는 호장 김중연에게 시집가서 해장과 덕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덕린은 저와 함께 여기 온 지 벌써 19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서쪽 이웃의 천로 백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국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

- 랐습니다.”
- 18 김천은 그 말을 듣자 엎드려 절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천의 어머니는 김천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 19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나는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 20 이때 군졸 요좌가 집에 없어 김천은 어머니의 몸값을 치르지 못하고 혼자 동경으로 돌아와 별장 수룡의 집에 머물렀다. 한 달 뒤 김천이 수룡과 함께 요좌의 집에 다시 가서 몸값을 치르고 어머니를 모셔 가겠다고 했지만 요좌가 들어주지 않았다. 김천은 애걸하여 백금 55냥을 몸값으로 치른 뒤, 타고 온 말에 어머니를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뒤를 따랐다. 덕린이 동경까지 전송하러 와서 울며 말했다.
- 21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지금은 비록 함께 갈 수 없지만 하늘이 복을 내리신다면 분명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 22 덕린의 말에 김천 모자는 울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 23 그때 중한 김방경이 원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경에 이르러 김천 모자를 보고는 칭찬하고 감탄해 마지 않았다. 김방경은 총관부에 말해서 두 사람을 역마에 태워 보내게 했다. 김천 모자가 명주가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김중연이 진부역까지 마중을 나왔다. 마침내 부부가 상봉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김천이 술 한 잔을 올리고 물러나 통곡하자 좌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당시 김자룡은 79세 였는데, 딸을 보고 기쁨이 극에 달한 나머지 졸도하고 말았다.
- 24 6년 뒤 천로의 아들이 덕린을 데리고 오자 김천은 백금 86냥으로 덕린의 몸값을 치렀다. 몇 년 뒤에 김천은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아우 덕린과 함께 일생을 마칠 때까지 효도를 다했다.

-작자미상, '김천'@17E수특

\*동경: 현재 중국의 요령성 요양시.

\*역어별장: 통역과 무역을 담당하는 임시 벼슬.

\*봉두난발: 머리털이 속대강이같이 헝수룩하게 마구 흐트러짐. 또는 그 머리털.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02\_[빠]르게[바]르게

- ① 전기적 특성을 바탕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② 동시에 진행되는 두 사건이 번갈아가며 제시되고 있다. O/X
- ③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④ 유교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⑥ 헤어짐의 과정에서 인물들이 서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과거에 교환한 상징적 징표가 드러나 있다. O/X
- ⑦ 김천은 타지에서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삼년상을 치렀다. O/X
- ⑧ 김천은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O/X
- ⑨ 당시에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O/X
- ⑩ 김천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자마자 어머니가 있는 공간으로 떠났다. O/X



- ⑪ 김천의 아우는 김천과 재회했으나 고국으로 함께 돌아오지는 못했다. O/X
- ⑫ 김천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 수 있었다. O/X
- ⑬ 김자릉은 딸의 귀환을 기다리다 끝내 딸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O/X
- ⑭ 김천과 부모의 상봉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적인 일임을 알 수 있다. O/X
- ⑮ 김천이 겪은 개인적 사건은 역사적 사건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X

03\_ 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주인공의 고행苦行이 주요 서사 모티프인 '김천'은 조선 후기 발간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도 수록되어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비교적 질서가 잘 유지되었던 조선 전기와는 달리 왜란 이후 동요하던 조선의 미풍양속과 충, 효, 열 등의 유교적 질서를 바로잡고 강화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편찬한 책으로,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뿐 아니라 국가와 백성의 관계도 바로잡고자 했던 당시 조정의 목적을 바탕으로 편찬된 일종의 목적 서적이었다.

- ① '김천'의 이야기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되었을 당시 조선의 유교적 질서는 흔들리고 있었을 것이다. O/X
- ② '김천'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지지와 의사를 바탕으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선택되어 실릴 수 있었을 것이다. O/X
- ③ '김천'의 이야기를 접한 독자들은 '효'의 관점에서 내용을 접하게 됐을 것이다. O/X
- ④ '김천'의 이야기를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실은 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효' 뿐 아니라 '충'의 질서도 강화하고 싶었을 것이다. O/X
- ⑤ '김천'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조정은 조선 전기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했을 것이다. O/X



문학> 현대소설편>

[이전까지의 줄거리]

소작농의 아들인 '나'는 마름의 딸인 점순이가 호감을 담아 건넨 감자를 받지 않는다. 점순이의 마음을 계속 몰라주는 '나'에게 점순이는 고의로 자신의 닭과 '나'의 닭 사이에 싸움을 붙이며 '나'의 약을 올린다.

- 01 어쩌다 동리 어른이,
- 02 “너 얼른 시집가야지?”
- 03 하고 웃으면,
- 04 “염려 마세요.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 05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려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꾸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싸리고 달아날지언정.
- 06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 07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누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08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 09 눈물을 흘리고 간 닭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레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방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애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 10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 11 요렇게 암팡스레 패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 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짜개를 주먹으로 쿡쿡 쥐어박는 것이다.
- 12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지계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 13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구 그러니?”
- 14 하고 소리를 뿅 질렀다.

15 <중략>

- 16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씹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 17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펑 쏟아졌다. 나무 지게도 벗어 놓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계막대기를 뺏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18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히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19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엎었다. 닭은 폭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흘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20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21 “그럼 어때?”

22 하고 일어나다가,

23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24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 김유정, 「동백꽃」 -@17E특

01\_정리없이 정답없이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O/X
-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O/X
- ③ 향토적 소재들을 사용하여 특정 공간에 대해 중심 인물이 지닌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O/X
- ④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O/X
- ⑤ 사건이 진행되며 서술자가 교체되어 중심 사건의 의미를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O/X
- ⑥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O/X
- ⑦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형성과 해소 과정이 드러나 있다. O/X
- ⑧ 다른 인물에 대한 중심 인물의 인식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다. O/X
- ⑨ 주인공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주인공은 행동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O/X
- ⑩ 인물과 인물 사이의 상황 뿐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다. O/X



03\_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김유정의 '동백꽃'은 개개인의 다양한 욕망이 교차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욕망의 유형으로는 타인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 타인에게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 타인에게서 소중한 것을 침해 받은 것에 대한 복수의 욕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욕망들은 주인공들 사이를 오가며 서사를 전개하는 밑바탕이 된다. 한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인물은 내적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억지스런 악행이 드러나기도 하고, 주인공의 내면에 축적된 내적 갈등이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 ① '나'는 '점순이'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인물로 볼 수 있다. O/X
- ② '내'가 ㉠의 상황을 염려하는 것은, 사회적 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O/X
- ③ '점순이'는 '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있다. O/X
- ④ '나'는 '점순이'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보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⑤ '점순이'가 우리집 닭을 괴롭히는 것은 '소중한 것을 침해받은 것에 대한 복수의 욕망'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⑥ '점순이'의 악행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⑦ ㉠은 '점순이'의 주도로, ㉡은 '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O/X
- ⑧ '나'는 ㉠과 ㉡의 상황 모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O/X
- ⑨ '나'가 '점순이'의 닭을 때려죽인...것은 축적된 내적 갈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O/X
- ⑩ 작품이 진행되며 욕망이 교차되면서 '나'와 '점순이'의 관계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O/X



# 답\_☀️)☆1701호

## 문법>

- 01\_ X-소리 / O / X / O / O  
X / X / O / X / X
- 02\_ 차례와 상관 없이 명사 / 대명사 / 수사 / 관형사 / 부사 / 동사 / 형용사 / 조사 / 감탄사
- 03\_ [자립-의존 형태소]  
[실질(어휘)-형식(문법) 형태소]
- 04\_ 순서대로 평서 / 의문 / 명령 / 청유 / 감탄
- 05\_ [개수\_어근1개-단일어, 파생어 / 어근2개이상-합성어]  
[유무\_접사없음-단일어 & 합성어, 접사 있음-파생어]  
[위치\_앞-접두파생어, 뒤-접미파생어]
- 06\_ [어미-어간][어미는 용언을 활용할 때 바꾸어 쓰는 부분이고 어간은 바뀌지 않는 부분]  
[어근-접사][어근\_단어의 실질적 의미를 지니며 자립할 수 있는 부분, 접사\_자립성 없이 어근에 붙어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강조하는 부분]
- 07\_ 차례대로 구별 / 구분 / 선별 / 구성

## 문학> 고전문문편>

- 01\_ [가] #이별(사별) #재회 #불도  
[나] #나, 외로움 #피꼬리, 즐거움  
[다] #임 #그리움 #기대
- 02\_ [가]죽 / 안 / 안 / 안 / 안  
안 / 관 / 안 / 미 / 관  
[나]관 / 관 / 안 / 관  
[다]관 / 긴 / 관 / 관
- 03\_ O / X / O / O / X  
X / X / O / O / O  
X(나도포함) / X / X / X / O

## 문학> 현대문문편>

- 01\_ [가]#봄 #기쁨 #답답함 #빼앗긴 들  
[나]#고향 #없어짐
- 02\_ [가]\_안 / 안 / 안 / 관 / 관  
관 / 관 / 관 / 안 / 안  
관 / 관 / 관 / 관 / 안  
관 / 관 / 안&관(기뻐서깍치는거라면 관) / 관 / 관  
관 / 관 / 관 / 안 / 안  
안 / 둘다 / 둘다 / 안 / 안  
[나]\_관 / 안 / 관 / 관 / 안  
안 / 차 / 관 / 안 / 관
- 03\_ O / X / O / O / O  
X / O / X / O / X  
O / X / O / O / X  
O / O / X / O / O
- 04\_ O / O / O / O / X  
O / X / O / O / X

## 문학> 고전소설편>

- 01\_ #김천, 효심
- 02\_ X / X / X / O / O  
X / X-죽은포로가많다고들은것일뿐  
어머니소식아님 / O / O / X  
O / X / X / O / O
- 03\_ O / X / O / O / X

## 문학> 현대소설편>

- 01\_ #소년, 소녀 #폭력 #(일방적)호감 # 사회적위차차이
- 02\_ X / X / X / X / X  
X / X / O / O / O
- 03\_ X / O / X / O / X  
O / O / O / O / X



+@ / +ㅈㅊㄴㅅㅁㅣ

[복]습이라는것이[꼭]발한다

[가]

- 01 생사로(生死路)는 生死路隱(생사로는)
- 02 예 있으매 두렵고 此矣有阿米次 伊遣(차의유아미차힐이견)
- 03 '나는 간다' 말도 吾隱去內如辭叱都(오은거내여사질도)
- 04 못다 이르고 가느니고. 毛如云遣去內尼叱古(모여운건거내니질고)
- 05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於內秋察早隱風未(어내추찰조은풍미)
- 06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같이,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차의피의부랑락시엽여)
- 07 한 가지에 나고 一等隱枝良出古(일등은지랑출고)
- 08 가는 곳 모르온저! 去奴隱處毛冬乎丁(거노은처모동호정)
- 09 아으,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는 阿也彌陀刹良逢乎吾(아야미타찰랑봉호오)
- 010 도(道) 닦아 기다리련다! 道修良待是古如(도수량대시고여)  
- 월명사 지음 양주동 해독, '제망매가'@17E특

[나]

- 01 훨훨 나는 꿩꼬리 翩翩黃鳥(편편황조)
- 02 암수 서로 정답구나 雌雄相依(자웅상의)
- 03 외롭구나 이내 몸은 念我之獨(염아지독)
- 04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誰其與歸(수기여귀)  
- 유리왕, '황조가'@17E특

[다]

- 01 동지(冬至)ㅅ 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 02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 03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뵤구뵤 퍼리라  
- 황진이, '동지(冬至)ㅅ 들 기나긴 밤을'@17E특

[예]습이라는것이[꼭]발한다

원작품

[가]

- 01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촛노미라
- 02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 03 무심(無心)흔 들빛만 싯고 빈 비 저어 오노라  
-월산 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17E특

[나]

- 01 냇?에 히오라바\* 므스 일 셔 잇는다
- 02 무심(無心)흔 저 고기를 여어\* 무슴허려는다
- 03 아마도 훈 물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드리  
-신흙, '냇가에 해오라바~'@17E특  
\*히오라바: 해오라기야.  
\*여어: 엇보아.

[다]

- 01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수(漢江水)ㅣ야
- 02 고국산천(故國山川)을 써느 고자 허랴마는
- 03 시절(時節)이 하 수상(殊常)헉니 울동말동 헉여라  
-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17E특



현대어해설

[가]

- 01 가을 강에 밤이 되니 물결이 차구나
- 02 낚시대를 던져봐도 물고기가 아니 무슨구나
- 03 욕심없이 달빛만 신고 빈 배 저어 오는구나  
-월산 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17E특

[나]

- 01 냇가에 백로는 무슨 일로 서 있는가
- 02 다른 마음 없는 저 물고기를 엿보아 무엇하려느냐
- 03 아마도 같은 물에 있으니 (엿보는 것을) 잊은들 어찌하리  
-신흙, '냇가에 해오라바~'@17E특
- \*히오라바: 해오라기야.
- \*여어: 엿보아.

[다]

- 01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물아
- 02 고국의 산천(故國山川)을 떠나고자 하겠나마는
- 03 시절(時節)이 많이 수상(殊常)하니 울동말동 하구나  
-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17E특

해적 병설

[가]

- 01 가을강에 밤이되니 강물결이 다소차다
- 02 낚시대를 던져봐도 물고기가 안물안물
- 03 욕심없이 달빛신고 빈배저어 돌아오네  
-월산 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17E특

[나]

- 01 시냇가에 백로새야 왜그렇게 서있느냐
- 02 착한고기 저물고기 물어뜯어 무엇하리
- 03 같이사는 처지끼리 물어뜯지 말았으면  
-신흙, '냇가에 해오라바~'@17E특
- \*히오라바: 해오라기야.
- \*여어: 엿보아.

[다]

- 01 떠나간다 북한산아 다시보자 한강물아
- 02 내나라와 내고향을 떠나고자 하겠나만
- 03 나라꼴이 수상하니 돌아올지 모르겠네  
-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17E특





"탄탄하게, 핵심으로"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늌자 ✍\_1702호



1702\_[문법]+[추강에 밤이 드니]+[넋가에 해오라바]+[가노라 삼각산아]+[승무]+[꽃]+[국순전]+[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 ☆ 1702호

문법>

01\_ <보기>를 잘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갑\_먹고  
을\_뵈고  
병\_(인형을hug hug) 안다  
정\_먹을 게 없어서 흥만 먹고 살았다는 우리 백성님들  
무\_백성님들 신경 안 쓰고 흥만 가득했던 탐관오리놈들

- ① 갑, 을, 병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음운 현상이 나타난다. O/X
- ② 을에서는 연속되는 두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음운 현상이 나타난다. O/X
- ③ 정, 무의 '흥만'과 '흥만'은 표기와 발음의 형태가 각각 모두 다르다. O/X
- ④ 정의 '흥만'에서는 두 차례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만, '백성'에서는 특별한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O/X
- ⑤ 무의 '가득했던'에서는 예사 소리와 예사 소리가 만나 거센소리가 되는 음운 변동과 앞말 끝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말 첫 소리로 옮겨 가는 음운 현상이 모두 일어난다. O/X

02\_ <보기>를 잘 보고, 괄호 속 초성을 채워 보세요.

보기

어미는 (ㅇ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동사와 형용사인 (ㅇㅇ)에서 볼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여말어미, (ㅅㅇㅇ)어미로, 쓰임에 따라 앞과 뒤를 연결하는 (ㅇㄱ)어미, 문장을 서술하는 종결어미, 해당 단어의 성질을 바꾸어 주는 전성어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03\_ <보기 1>은 조사를 성질에 따라 분류한 내용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 2>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서 각 격조사가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밝혀 보세요.

보기 1

조사는 쓰임에 따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의 세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때 격조사는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주-, 문장에서 주체 행위의 대상이 목적-, 대상을 부를 때 쓰여 대상을 독립 성분의 역할을 하게 하는 호-, 앞말에 붙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형-, 앞말에 붙어 앞말이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부사-, 특정 서술어 앞에 쓰여 앞말이 문장의 보어임을 알리는 보-, 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기 2

사람들의 사이에 섭이 있다. 나는 그 섭에 가고 싶다. 나는 내려올 때 보았다. 올라갈 때 못 보았던 그 꽃송이들을.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결코 로브스터가 아니다. 당연히 포기할 생각은 없다. 날개 안 돌아라 한 번 더 날아 보자꾸나.

⇒

04\_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밑줄 친 단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기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다의어'라 한다. 이때, 다의어끼리는 의미상의 공통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 단어의 형태는 같지만 의미상의 공통 부분 없이 우연히 표기와 소리만 같은 단어는 '동음이의어'로, '다의어'와는 다르게 구분한다.

- ① 공부를 하도 해서 허리가 굽었다.
- ② 고기를 하도 굽다가 허리가 굽었다.
- ③ 늦잠으로 엄마가 나를 하도 굽길래 집에서 도망나왔다.
- ④ 호박고구마를 잘 구워서 할머니께 드렸다.
- ⑤ 나는 나의 학구열로 문제지를 새까맣게 구울 것이다.



05\_ 다음 각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높임요소(들)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 ① 할아버지께서는 집에 언제 가세요?
- ② 연세가 있으신 외삼촌을 모시고 가야하니깐 조금 걸리겠지?
- ③ 형이랑 같이 있기 싫어요. 어머니께서 혼내 주세요.
- ④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오셔야 해서 좀 바쁘단다.
- ⑤ 응 아빠 동생놈들은 내가 보고 있을게. 아빠는 엄마랑 외삼촌 모시고 오세요.

06\_ [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어휘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한 번씩만 씁니다.

**보기**

교체交替 / 교환交換 / 제기提起 / 제출提出 / 색출索出  
 도출導出 / 유입流入 / 도입導入 / 발견發見 / 발명發明  
 봉착逢着 / 수습收拾

- ① 정부에 문제를 [     ]하다.
- ② 불량 지도자를 우량 지도자로 [     ]하다.
- ③ 마트에서 산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     ]하다.
- ④ 똑똑우체국에 서류를 [     ]하다.
- ⑤ 문제를 풀다가 문제 간의 공통점을 [     ]하다.
- ⑥ 주4일 근무제를 어서 [     ]해야 한다.
- ⑦ 선생님의 눈을 피해 잘때도 눈을 뜬 것처럼 보이는 안경을 [     ]하다.
- ⑧ 한 시간 가까이 매달려 있었음에도 정답이 [     ]되지 않는다.
- ⑨ 백 명 중 단 한 명. 그 문제를 틀린 사람을 [     ]하라.
- ⑩ 무분별한 불량식품의 [     ] 때문에 내 배가 자꾸 아프다.
- ⑪ 꼭 선택지 두 개 중 하나가 남아서 선택의 기로에 [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문두와 제시문과 보기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렴.
- ⑫ 천 개들이 비비탄 통이 뚜껑이 열린 채로 엮어졌다. 아무래도 [     ]이 불가능할 것 같다.



문학> 고전문문편>

[가]

- 01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초노미라
- 02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 03 무심(無心)흔 돌빛만 싯고 뵈 빈 비 저어 오노라  
-월산 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17E특

[나]

- 01 냇?에 히오라바\* 므스 일 셔 잇는다
- 02 무심(無心)흔 저 고기를 여어\* 무슴혀려는다
- 03 아마도 흔 물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드리  
-신흥, '냇가에 해오라바~'@17E특

\*히오라바: 해오라기야.

\*여어: 엇보아.

[다]

- 01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수(漢江水) | 아
- 02 고국산천(故國山川)을 써느 고자 흐라마는
- 03 시절(時節)이 하 수상(殊常)히니 올동말동 흐여라  
-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17E특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다] ⇨

02\_출제자의 [시어뵈니]

[가]

- ① '추강'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고기'가 '아니 무'는 상황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무심'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돌빛'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뵈 빈 비'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⑥ '히오라바'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저 고기'는 (□약한 / □강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고기를 여'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니저신들'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

- ⑩ '삼각산', '한강수'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시절'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올동말동'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다는 모두 감각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O/X
- ② 나는 가, 다와 달리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③ 가, 나는 다와 달리 계절감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④ 나, 다는 가와 달리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⑤ 가는 나, 다와 달리 3음보의 정형적 율격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⑥ 나, 다는 가와 달리 구체적 청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O/X
- ⑦ 가~다는 모두 화자의 부정적 상황이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O/X
- ⑧ 가~다는 모두 시적 화자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⑨ 가,나와 달리 다는 구체적 지명을 바탕으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⑩ 가~다는 모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 02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03
- 04 파르라니 깎은 머리
- 05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 06
- 07 두 볼에 흐르는 빛이
- 08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09
- 10 빈 대(臺)에 황촉(黃燭) 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 11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 12
- 13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 14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 15
- 16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 17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 18
- 19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 20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 21
- 22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 23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 24
- 25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 26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17E수특

\*귀뚜리\_귀뚜라미

[나]

- 01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02 그는 다만
- 03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04
- 05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06 그는 나에게로 와서
- 07 꽃이 되었다.
- 08
- 09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 10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 11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 12
- 13 그에게로 가서 나도
- 14 그의 꽃이 되고 싶다.
- 15
- 16 우리들은 모두
- 17 무엇이 되고 싶다.
- 18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 19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17E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워니]

[가]

- ① '고깔'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나빌레라'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통해 대상의 (□패션 스타일 / □신분) 알 수 있다.
- ④ '두 볼에 흐르는 빛'은 (□기쁨의 / □슬픔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외씨보선'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별빛'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합장'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밤'은 (□경쾌한 / □조용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⑨ '이름'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몸짓'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빛깔과 향기'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무엇'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눈짓'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O / X
- ② 가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 / X
- ③ 가는 나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④ 가와 나 모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⑤ 가와 달리 나는 화자의 감정을 작품의 표면에 드러내고 있다. O / X
- ⑥ 가는 나와 달리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⑦ 가는 나와 달리 수미상관의 형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⑧ 가는 나와 달리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교차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O / X
- ⑨ 가와 나는 모두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⑩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⑪ 나와 달리 가는 계절감을 환기하는 소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⑫ 가와 달리 나는 시상이 진행되며 대상이 확대되어 드러나고 있다. O/X
- ⑬ 가와 달리 나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⑭ 가와 나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O/X
- ⑮ 가와 나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찰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O/X

**04\_제시문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승무僧舞'는 불교적 색채가 강한 민속 춤으로, 번뇌煩惱의 해소와 종교적 깨달음을 목적으로 두는 예술 갈래이다. 이같은 이유로 승무의 분위기는 여타의 춤들과는 달리 엄숙하며, 춤추는 이는 춤이 시연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춤추는 이 내면의 성찰과 기원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춤이 시연되는 장소 또한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보다는 고요하고 어두운 분위기인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화려하지 않은 춤 복장과 한국무용 특유의 '정중동靜中動·고요한 가운데 드러나는 움직임, 동중정動中靜·움직임 가운데 스며든 고요함'을 승무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승무가 시연되는 시, 공간적 배경과 잘 어우러져 특유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① '나빌레라' ♪ 를 통해 승무가 지닌 경쾌함을 엿볼 수 있다. O/X
- ② '두 볼에 흐르는 빛'은 춤추는 이의 번뇌와 그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O/X
- ③ '파르라니 깎은 머리', '번뇌', '합장인 양 하고'에서 승무의 종교적 성격을 볼 수 있다. O/X
- ④ '고와서 서러워'에는 외부에서의 시선과 내면으로의 시선이 모두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O/X
- ⑤ 시상이 전개되며 외부 관객의 시점에서 화자 내부의 시점으로 화자의 시선이 전환되고 있다. O/X
- ⑥ 작품이 진행되며 활기찬 분위기에서 경건한 분위기로 시적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O/X
- ⑦ '하이얀 고깔', '소매', '외씨보선' 등의 복장은 자칫 어두워보일 수 있는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밝은 이미지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O/X
- ⑧ 5, 8연은 정적 측면이 극대화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O/X
- ⑨ 춤이 시연되는 무대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⑩ 춤이 시연되는 시간적 배경은 춤의 성격을 부각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 O/X



문학> 고전소설편>

- 01 국성\*의 자는 중지(中之)\*니, 주천 고을 사람이다. 어려서 서막\*에게 사랑을 받아, 그가 이름과 자를 지어 주었다.
- 02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溫)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농사를 지어서 넉넉하게 먹고살았는데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포로가 되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그 자손들은 간혹 정나라에 흠어져 살기도 했다. 국성의 증조부는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 있지 않다가 조부 모(牟)가 주천으로 이사하여 놀러살면서 드디어 주천 고을 사람이 되었다. 아버지 차(醜)에 이르러 비로소 벼슬을 하였다. 차는 평원 독우(督郵)\*가 되어 사농경(司農卿)\* 국 씨의 딸과 결혼해서 성을 낳았다.
- 03 성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었다. 손님들이 그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도 성을 유심히 보고 귀여워했다. 손님들은 말했다.
- 04 “이 아이의 마음과 도량이 몹시 크고 넓어서 출렁거리고 넘실거리 마치 만경(萬頃)의 물결과도 같소. 더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더 흐려지지 않소. 그러니 그대와 이야기하는 니보다는 차라리 성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낫겠소.”
- 05 성은 자라서 중산(中山)의 유명\*, 심양(瀋陽)의 도잠\*과 친구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말했다.
- 06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이 싹튼다.”
- 07 이들은 성과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일들을 잊고 마음으로 취하고야 헤어지는 것이었다.
- 08 국가에서 성에게 조구연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또 청주 종사로 불러, 공경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했다. 이에 임금은 조서를 내리고 공거(公車)를 보내어 불러서 보고 눈짓하며 말했다.
- 09 “저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
- 10 이보다 앞서 태사(太史)\*가 임금께 아뢰었다.
- 11 “지금 주기성이 크게 빛을 냅니다.”
- 12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성이 도착하니 임금은 태사의 말을 생각하고 더욱 성을 기특하게 여겼다. 임금은 즉시 성에게 주객량중(主客郎中)\* 벼슬을 주고, 얼마 안 되어 국자제주(國子祭酒)로 옮겨 예의사를 겸하게 했다.
- 13 이로부터 모든 조회의 잔치나 종묘의 제사·천식·진작의 예가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임금은 국성의 그릇이 믿음직하다 해서 승진시켜 재상으로 있게 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출입할 때에도 교자를 탄 채로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 일컬었다. 혹 임금의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 빗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은 풀어져 웃곤 했다.
- 14 성이 사랑을 받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 15
- 16 [중략 부분 줄거리] 성의 세 아들은 아버지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믿고 방자하게 군다. 이에 모영은 임금에게 글을 올려 세 아들의 탄핵을 요구하고, 세 아들은 음독을 하여 죽는다. 성은 짓값으로 서인으로 폐해진다.
- 17
- 18 성이 벼슬을 그만두자 제(齊)\* 고을과 격(鬲)\* 마을 사이에는 도둑들이 떼 지어 일어났다. 이에 임금은 이 고을의 도둑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책임자가 쉽게 물색되지 않았다. 하

는 수 없이 다시 성을 기용해서 원수로 삼아 토벌하도록 했다. 성은 부하 군사를 몹시 엄하게 통솔하면서도 모든 고생을 군사들과 같이했다. 수성(愁城)에 물을 대어 한 번 싸움에 이를 함락하고 나서 거기 장락판을 쌓고 회군하였다. 임금은 그 공로로 성을 상동후에 봉했다.

- 19 그 후 2년이 지났다. 성은 소를 올려 물러나기를 청했다.
- 20 “신은 본래 가난한 집 자식이옵니다. 어려서는 가난하고 천한 몸이라 이곳저곳으로 팔려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폐하를 뵈게 되자, 폐하께서는 마음을 터놓으시고 신을 받아들이셔서 빈천한 몸을 건져 주시고 강호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일을 크게 하시는 데 더함이 없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도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제 몸을 삼가지 못한 탓으로 시골로 물러나 편안히 있었사운데, 비록 얽은 이슬은 거의 다 말랐사오나 그래도 요행히 남은 이슬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밝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찌꺼기와 티를 열어젖힐 수가 있었나이다. 또한 물이 그릇에 차면 엎어진다는 것은 모든 물건의 올바른 이치옵니다. 이제 신은 몸이 마르고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어 신으로 하여금 물러가 여생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 21 그러나 임금은 이를 승낙하지 않고 중사(中使)를 보내어 송계, 창포 등의 약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병을 돌봐 주게 했다. 성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양했다. 임금은 부득이 허락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천수를 다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 22 그의 아우는 현이다. 현은 즉 탁주다. 그는 벼슬이 2,000석(石)에 올랐다. 아들이 넷인데 익, 두, 양, 남이다. 익은 색주, 두는 중앙주, 양은 막걸리, 남은 과주이다. 이들은 도화즙을 마셔 신선이 되는 법을 배웠다. 또 성의 조카들에 주, 만, 염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적(籍)을 평씨(萍氏)에게 소속시켰다.

- 23
- 24 사신(史臣)은 말한다.
- 25 국씨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晩節)이 넉넉한 것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하였다. 『주역』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작자 미상, '국순전'@17E수특

- \*국성: 맑은 술을 의인화한 표현.
- \*중지: 곧드레만드레. 술에 취해 뺨은 모양.
- \*서막: 중국 위나라의 지독한 애주가.
- \*독우: 벼슬 이름.
- \*사농경: 농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벼슬.
- \*유영: 중국 서진의 사상가.
- \*도잠: 중국 동진의 시인.
- \*태사: 천문과 역사를 맡은 직책.
- \*주객량중: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하는 벼슬.
- \*제: 배꼽을 뜻함.





\*격: 가슴을 뜻함.

01\_정리없이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의인화된 인물의 삶이 일대기 형식으로 드러나 있다. O/X
- ② 중심 인물이 등장하게된 유래를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O/X
- ③ 인물 간의 반목을 통해 중심 인물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드러나 있다. O/X
- ④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⑤ 서술자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작품의 표면에 내세워 중심 인물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⑥ 성은 어릴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심성을 인정받았다. O/X
- ⑦ 성은 어려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벼슬길에 올랐고, 나이 들어서도 의지에 따라 벼슬길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 O/X
- ⑧ 성은 아들과 함께 자신의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굴다 다른 이에게 탄핵을 당하게 되었다. O/X
- ⑨ 성의 아들들은 임금의 명령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O/X
- ⑩ 임금은 국성과의 친교에만 관심을 두다 정치를 놓쳐 마을에도 독이 들끓게 되었다. O/X
- ⑪ 성은 나라 안 뿐 아니라 나라 밖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O/X
- ⑫ 성은 단 한 번의 전투로 도적들을 토벌할 수 있었다. O/X
- ⑬ 성은 정치적 싸움에 염증을 느껴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 O/X
- ⑭ 성은 자신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은퇴 직후 죽게 되었다. O/X
- ⑮ 성이 죽자 임금은 상을 내려 성의 공을 기념했다. O/X



## 문학&gt; 현대소설편&gt;

## 01 구보는

02 갑자기 걸음을 걸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 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너거리에 아무런 사무(事務)도 갖지 않는다.

03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쏘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04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05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의 코 위에 걸려 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盲點)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총독부 병원 시대(總督府病院時代)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재래(眼科再來)'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06 R, 4 L, 3

07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화했을 때의,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 강도(強度)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목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08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하여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09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10 젊은 내외가, 너덧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끗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11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壽男)이나 복동(福童)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12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 한 손의 공책과 —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13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14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머영하니 그곳에서 있었다.

15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맞본다.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16

## 17 전차 안에서

18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車掌臺) 가까운 한구석에 가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19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20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郊外)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21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22 표, 짝음쇼 —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宗廟)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23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24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이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25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이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26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떠한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27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마약 차에 오른 듯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뒤를 캐어물을 게다. 그가 만일, 오직 그뿐이라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拙)하

28 다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암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29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怯)하여, 얼토당토않은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7E수특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 인물들의 심리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O/X
- ② 작품 창작 당시의 생활상이 상세히 묘사되어 드러나 있다. O/X
- ③ 두 개의 중심 사건이 번갈아가며 전개되고 있다. O/X
- ④ 인물의 내적 갈등이 인물 간의 외부 갈등으로 확대되어 드러나 있다. O/X
- ⑤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상세히 드러나고 있다. O/X
- ⑥ 의도적으로 행을 분리하여 독자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서술 방식이 드러나 있다. O/X
- ⑦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O/X
- ⑧ 주인공은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목적지로 이동중인 상태이다. O/X
- ⑨ 주인공은 자신의 처지에 흡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O/X
- ⑩ 구보는 자신의 시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으로 친구를 찾아가려 한다. O/X



답\_☀️)☆1702호

문법>

- 01\_ O-된소리되기(교체) / X / X-발음의 형태는 같음 / X-백성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남 / X-가득했던에서는 거센소리 되기(축약)와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남
- 02\_ 순서대로 어간, 용언, 선어말, 연결
- 03\_ 차례로 관형격 - 주격 - 부사격 - 목적격 - 서술격 - 보격 - 호격
- 04\_ 1-1과 나머지는 동음이의 관계, 2-5는 다의 관계
- 05\_ ①\_ -께서, 세(시어), -요  
②\_ 연세, 있으신, 모시고  
③\_ -요, -세, -요  
④\_ 께서, 모시고, 오셔야  
⑤\_ 모시고, 오세(시어), -요
- 06\_ 제기 / 교체 / 교환 / 제출 / 발견 도입 / 발명 / 도출 / 색출 / 유입 봉착 / 수습

문학> 고전문문편>

- 01\_ [가]\_ #가을밤 #낙시 #무심\*  
[나]\_ #잘잠지내들  
[다]\_ #조국 #그리움
- 02\_ [가]\_ 관 / 관 / 관 / 관 / 관  
[나]\_ 안 / 약 / 안 / 관  
[다]\_ 관 / 안 / 안
- 03\_ X / O / X / O / X  
O / X / X / O / X

문학> 현대문문편>

- 01\_ [가]\_ #춤 #불교 #번뇌 #관찰  
[나]\_ #의미 #꽃 #이름
- 02\_ [가]\_ 관 / 관 / 신 / 슬 / 관  
관 / 관 / 조  
[나]\_ 관 / 안 / 관 / 관 / 관  
관
- 03\_ X / O / O / O / X  
X / O / O / O / O  
O / O / O / X / X
- 04\_ X / O / O / O / X  
X / X / X / O / O

문학> 고전소설편>

- 01\_ #술 #일생
- 02\_ O / O / X / X / O  
O / X / X / X / X  
X / O / X / X / X

문학> 현대소설편>

- 01\_ #방향 #생각 #관찰 #행복
- 02\_ X / O / X / X / O  
O / X / X / X / X



+@ / +ㅈㅌㄴㅅㅍ

**단[어]의[의]미**

교차交替\_사람이나 사물을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대  
신함

교환交換\_서로 바꿈

제기提起\_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음

제출提出\_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냄

색출索出\_살살이 뒤져서 찾아냄

도출導出\_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유입流入\_01.액체나 기체, 열 따위가 어떤 곳으로 흘러들  
02.돈, 물품 따위의 재화가 들어옴  
03.문화, 지식, 사상 따위가 들어옴

도입導入\_기술, 방법, 물자 따위를 끌어 들임

발견發見\_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

발명發明\_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냄

봉착逢着\_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딪침

수습收拾\_어수선한 사태를 거두어 바로잡음

**[예]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만흥漫興@윤선도@17E수특**

**해적 병설**

- 01 산과물과 바위아래 초가집을 지었더니
- 02 내똥모른 농팽이들 꺾꺾꺾 날비웃네
- 03 어리석은 시골노인 나한테는 이게최고
- 04
- 05 보리밥에 쫄면물을 딱적당히 먹은후에
- 06 시냇물길 바위끝에 걸터앉아 실컷노네
- 07 속세따위 일들이야 부러울리 있겠는가
- 08
- 09 술잔들고 혼자앉아 건너산을 바라보니
- 10 좋은사람 온다해도 이것보다 좋겠느냐
- 11 말도없고 안웃어도 산이그저 나는좋네
- 12
- 13 높은벼슬 많은권력 나보다더 즐거우랴
- 14 속세피해 숨어살던 소부허유 뚝뚝하네
- 15 숲과생물 즐거움을 비교할데 전혀없네
- 16
- 17 귀차니즘 내성격을 저하늘도 아셨는지
- 18 복잡복잡 속세일을 한가지도 안맡겨서
- 19 싸움없는 강과산을 지키라고 하셨다네
- 20
- 21 이자연이 좋다한들 내능력에 얻었겠니
- 22 즐거움을 내려주신 임금님의 덕분이네
- 23 값고값고 또값아도 다값을길 전혀없네



+@ / +ㅈㅌㄴㅅㅍ |

현대어 해설

- 01 아름다운 강산의 큰 바위 아래 아담한 초가집을 짓고자하니
- 02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기도 한다마는
- 03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바로 내 분수인가 하노  
라. [01수]
- 04
- 05 보리밥과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 06 바위 끝의 물가에 앉아 실컷 노니노라.
- 07 그 밖의 자잘한 일이야 부러워 할 리 있으랴 [02수]
- 08
- 09 술잔을 채워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 10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한들 반가운 것이 이보다 더하랴.
- 11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지만 마냥 좋아하노라. [03수]
- 12
- 13 누가 말하길 전원생활이 정승노릇 하는 것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천  
자인들 이만하랴
- 14 이제 헤아려보니 소부와 허유가 참으로 영리하더라.
- 15 아마도 자연 속 한가로운 흥취는 견줄 것이 없으랴. [04수]
- 16
- 17 내 본성이 게으름을 하늘이 아셨던지
- 18 인간세상 수많은 일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맡기지 않고
- 19 다만 서로 차지하려 다투지 않는 강산을 지켜라 하시었구나. [05수]
- 20
- 21 강산이 좋다 하나 보잘 것 없는 나의 분수로 누워있겠는가?
- 22 임금의 은혜를 이제야 더욱 알겠노라.
- 23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값을 길이 없구나. [06수]

원작품

- 01 산수간 바회 아래 뉘집▪ 을 짓노라 하니
- 02 그 모른 놈들흔 웃는다 한다마는
- 03 어리고 향암▪ 의 뜻의논 내 분▪ 인가 호노라. [01수]
- 04
- 05 보리밥 풋나물을 알마초 먹은 후에
- 06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 07 그나믄 너나믄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랴. [02수]
- 08
- 09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뉘흘 바라보니
- 10 그리든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하랴
- 11 말삼도 우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03수]
- 12
- 13 누고셔 삼공三公▪ 도곤▪ 낫다하더니 만승萬乘▪ 이 이만하랴
- 14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巢父許由▪ | 낙똥더라▪
- 15 아마도 임천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04수]
- 16
- 17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루실샤
- 18 인간만사人間萬事를 훈일도 아니 맞더
- 19 다만당 다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히라 호시도다. [05수]
- 20
- 21 강산江山이 도타 훈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 22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 23 아무리 값고자 호야도 히을 일이 업세라. [06수]

시어뵈니

- 뉘집\_풀로 엮어 만든 집. 초가집
- 향암\_어리석은 사람
- 분\_능력
- 슬카지\_실컷
- 삼공\_높은 벼슬
- 도곤\_ '~보다'를 의미하는 비교 표현
- 만승\_큰 권세
- 소부허유\_자연 속에서 은거하던 중국의 명사名士들
- 낙똥더라\_약았더라, 여기서는 '훌륭하더라'의 의미



# "저울에서 봄@안녕 하신가영"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늌자 ✍\_1703호



무심한계절을지나따뜻한봄이오면.나를걱정한다던너의그마음을알까.얼어붙은날들을지나.따스한내가되었으면하는.외로운계절하나  
1703\_[문법]+[만흥]+[초토의 시 1]+[국토 서시]+[화왕계]+[어상]+[눈길]





01\_ 다음 <보기>의 음운 현상을 아래의 항목에 맞춰 보세요.

**보기**

비음화 | 비음이 아니었던 음운이 앞위의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유음화 | 유음이 아니었던 음운이 앞위의 유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받침규칙 | 음절 말음에 위치한 ㄱ ㄴ ㄷ ㄹ ㅁ ㅇ 이외의 음운이 ㄱ ㄴ ㄷ ㄹ ㅁ ㅇ의 7개의 대표음으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구개음화 | 구개음이 아니었던 음운이 전후의 구개음(대체로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으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된소리되기 | 된소리가 아니었던 음소가 앞뒤 음운의 영향으로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거센소리 되기 | 거센소리가 아니던 두 자음이 만나 발음되는 과정에서 거센소리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이중모음 되기 |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 발음되는 과정에서 이중모음으로 바뀌어 소리나게 됨

자음군 단순화 | 음절 말음에 위치한 겹자음이 겹자음 중 하나로만 소리나게 됨

연음화 | 받침이 있는 음운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앞말 받침의 일부 혹은 전부가 뒷말의 첫소리로 옮겨서 소리나게 됨

ㅅ첨가 |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ㅅ이 덧붙

ㄴ첨가 |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ㄴ이 덧붙

교체 |

첨가 |

축약 |

탈락 |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 아닌 경우 |

02\_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아래의 항목을 형태소 단위로 나누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형태소\_의미를 지닌 최소의 단위

ㄱ자립 형태소 | 형태소 중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형태소 <->

ㄴ의존 형태소 | 형태소 중 자립하여 쓰일 수 없는 형태소

ㄷ실질 형태소 | 형태소 중 구체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 <->

ㄹ문법(형식) 형태소 | 형태소 중 문법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

ㄱ\_구름이 높고 낮음

ㄴ\_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던 어떤 날

- ① ㄱ의 의존 형태소는 '-이', '-고' 2개이다. O/X
- ② ㄱ은 3개의 실질 형태소와 3개의 형식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O/X
- ③ ㄴ은 모두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다. O/X
- ④ ㄱ과 ㄴ의 자립 형태소를 모두 더하면 6개이다. O/X
- ⑤ ㄱ과 ㄴ에서 자립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형태소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6개이다. O/X

03\_ <보기>의 설명을 잘 보고 다음에서 ㉠과 ㉡과 ㉢이 모두 들어 있는 문장을 골라 보세요.

**보기**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성분들의 집합으로, 특성에 따라 ㉠성상 관형사와 ㉡지시 관형사, 그리고 ㉢수 관형사로 분류할 수 있다. 성상 관형사는 피수식 부분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 주고, 지시 관형사는 피수식어의 방향이나 대상을 지시하며, 수 관형사는 피수식어에 수량이나 순서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 ㉠ 여러 사람들이 이 요리를 먹으려고 사흘 전부터 기다려 왔다.
- ㉡ 오랜 친구끼리는 아무 말도 필요가 없다.
- ㉢ 세 번이나 번호를 입력한 끝에 겨우 그 집의 문을 열 수 있었다.
- ㉣ 그냥 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 돼서 기분이 좋다.
- ㉤ 난 사장이고 넌 사원이야 쟤 인턴이고 걔 회장이야



04\_ 다음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어딘가 이상한 문장들입니다. 이상한 부분을 지적한 뒤 적절히 고쳐보세요.

갑\_이것은 르누아르의 그림이다.

⇒

을\_그와 그녀의 문제풀이 방식은 서로 틀리다.

⇒

병\_휴가 동안에 그는 오직 밥과 음악만 먹고 살았다.

⇒

정\_그는 나의 손에 '데자와'와 '솔의 눈' 두 캔을 쥐어 주었다.

⇒

무\_세라야, 선생님께서 빨리 오시래.

⇒

05\_ <보기>의 품사들을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분류해 보세요.

보기

부사 / 형용사 / 명사 / 수사 / 관형사  
조사 / 대명사 / 동사 / 감탄사

체언 ⇒

용언 ⇒

수식언 ⇒

독립언 ⇒

관계언 ⇒

06\_ 아래의 괄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어휘를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한 번씩만 씁니다.

보기

배제排除 / 제고提高 / 제공提供 / 제안提案 / 지양止揚  
지향志向 / 유보留保 / 평이平易 / 화신化身 / 간주看做  
비등比等 / 상이相異

- ① 당신이 [       ]해 주신 의견 잘 받았습니다. 반영은 안 될 것 같지만.
- ② 선원들의 사기를 [       ]하기 위해 선장은 항해를 5분 일찍 끝낼 수도 있다.
- ③ 사진과 실물이 너무도 [       ]해서 내 마음에 제법 큰 상처를 입었다.
- ④ 채점 후 아쉽지 않은 성적, 그것이 우리의 [       ]점이다.
- ⑤ 식탁 위 켄터키튀김닭 박스를 기쁨에 차 열었을 때, 수북하게 쌓여 있던 것은 뼈들 뿐이었다. 가족들이 날 [       ]하고 그들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 ⑥ 결석하면 당연히 과제도 안 한 것으로 [       ]하겠다.
- ⑦ 문제가 적당히 어려워야지 너무 [       ]하기만 하면 학생들은 또다른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
- ⑧ 아파서 이틀을 못 먹었더니 배고픔의 [       ]이 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⑨ 해적 선장이 [       ]하는 문제들은 그럭저럭 불만하다.
- ⑩ 문제도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선택지로만 들이대는 모자란 행동은 21세기에는 좀 [       ]돼야 한다.
- ⑪ 어려운 문제는 정답 내는 걸 좀 [       ]해가면서 문제를 풀란 말이야. 무식하게 붙어 싸우는 사람이 손해라고!
- ⑫ 그 집의 주력 메뉴인 아갈밥의 특징은 밥과 아르헨티나산 갈비의 양이 거의 [       ]할 정도로 육류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문학> 고전문문편>

- 01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뽕집을 짓노라 흐니
- 02 그 모른 놈들은 웃는다 훈다마는
- 03 어리고 하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흐노라 <제1수>
- 04
- 05 보리밥 풋는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 06 바빻 곳 몹?의 슬?지 노니노라
- 07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 08
- 09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흘 바라보니
- 10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흐라
- 11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몰내 도하흐노라 <제3수>
- 12
- 13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라
- 14 이제도 헤여든 소부 허유(巢父許由) | 낙뎡더라
- 15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 16
- 17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릅실샤
- 18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훈 일도 아니 맛더
- 19 다만당 두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히라 흐시도다 <제5수>
- 20
- 21 강산(江山)이 도타 훈 둘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 22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 23 아므리 갑고자 흐야도 히올 일이 업세라 <제6수>

윤선도, '만흥'@17E수특

\*하암: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알마초: 알맞게.

\*만승: 천자의 지위.

01\_정리없이 정답없이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읽니]

- ① '뽕집'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놈들'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어리고'는 (□겸양의 / □젊음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하암'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분'은 (□분노를 드러내기 위한 /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알마초'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슬?지 노니'는 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녀나쁜 일'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뉘'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그리던 님'(□물리적 / □심리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말슴'과 '우움'의 주체는 (□뉘 / □님)으로 볼 수 있다.\*
- ⑫ '삼공'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소부 허유'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인간 만스'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강산(江山)을 덕히'는 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님군'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대비되는 이미지를 통해 시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O/X
- ② 의인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④ 상황을 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⑤ 대상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O/X
- ⑥ 다양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⑦ 상징적 이미지의 시어들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O/X
- ⑧ 비교의 방법을 통해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⑨ 각 수의 행들을 3음보로 구성하여 율격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⑩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⑪ 대상의 부재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O/X
- ⑫ 고사의 인물을 차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⑬ 충, 효를 기반으로 한 유교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⑭ 화자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O/X
- ⑮ 운명론에 바탕을 둔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판잣집 유리딱지에
- 02 아이들 얼굴이
- 03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 04
- 05 내리쬐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 06 나도 돌아선다.
- 07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 08
- 09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 10 잣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 11 개나리가 망울졌다.
- 12
- 13 저기 언덕을 내리달리는
- 14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 15 죄 하나도 없다.
- 16
- 17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 18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구상, '초토'의 시 1'@17E수특

\*초토\_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

[나]

- 01 발바닥이 다 닳아 새살이 돋도록 우리는
- 02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 03
- 04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 05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 06
- 07 야윈 팔다리일망정 한껏 휘저어
- 08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 09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 10
- 11 버려진 땅에 돌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 12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 13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 14 저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 15
- 16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 지필 일이다.
- 17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낼 일이다.
- 18
- 19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 20 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낼 일이다.

-조태일, '국토 서시'@17E수특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뤄니]

[가]

- ① '판잣집 유리딱지'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아이들 얼굴'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해바라기'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햇살'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나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울타리'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개나리'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소녀의 미소'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앞니가 빠진' 모습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죄 하나도 없'는 모습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술 취한 듯'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웃으며 앞장을 서'는 '그림자'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⑬ '발바닥이 다 닳'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우리의 땅을 밟'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하늘 밑을 서성이'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야윈 팔다리'는 (□노력의 / □부끄러움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⑰ '버려진 땅'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⑱ '흔'과 '숨결'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⑲ '삶을 불지피'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⑳ 여러가지들을 '보태'는 일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와 나 모두 비유를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O/X
- ② 가와 달리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과 통일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가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다. O/X
- ④ 가와 나 모두 대립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나는 가와 달리 화자의 희생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O/X



- ⑥ 가와 나 모두 속죄양 모티프가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O/X
- ⑦ 가와 나 모두 열거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⑧ 가와 달리 나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바탕으로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⑨ 나와 달리 가는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⑩ 가는 나와 달리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으로 시상을 다채롭게 전달하고 있다.\*  
O/X

04\_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의 땅, 즉 국토는 국민들에게 민족의 '얼'이 서려있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곳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국토가 시련과 고난을 맞이했을 때, 민중들은 국토의 시련과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국토의 정상화를 소망하게 된다.

제시문 [가]에서는 1950년대의,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국토의 모습이 '초토'로, [나]에서는 1970년대의 어수선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국토의 모습이 '버려진 땅'으로 드러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다양한 시선과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현재 상황을 민족의 '얼'이 겪는 고통스런 상황으로 여길 것이다.  
O/X
- ②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국토의 정상화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O/X
- ③ 가의 화자는 '소녀'에게서 '초토'의 정상화 가능성을 찾고 있다.  
O/X
- ④ 나의 화자는 '버려진 땅'의 정상화를 위해 민중이 스스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국토를 바라보며 정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O/X



문학> 고전산문 복합편>

[가]

01 신이 이야기 하나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화왕이 처음으로 오자, 이를 꽃동산에 심고 장막을 둘러 보호하였더니, 봄철을 당하여 어여쁘게 피어 백화를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 먼 곳에서 곱고 어여쁜 꽃들이 분주히 와서 화왕을 뵈려고 애를 쓰던 차에, 홀연히 한 가인이 붉은 얼굴과 옥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맴시 있는 옷을 입고 가우똥거리며 와서 암전히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첩은 눈같이 흰 모래발을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닷물을 대하고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시원타 하고 제대로 지내는데, 이름은 장미라 합니다. 왕의 착하신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장막 속에서 하룻밤을 모시려고 하오니, 왕께서는 저를 허락하시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02 또한 한 장부가 있어, 벼에 가죽띠를 띠고 흰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늙고 병든 것처럼 걸으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나와 말하기를 “나는 경성 밖 큰길가에 살고 있는데,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야경을 내려다 보고, 위로는 높디높은 산색을 의지하고 있으며, 이름은 백두옹\*이라 합니다. 생각하옵건대, 주위에 거느리고 있는 자들이 제공하는 물품이 비록 풍족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여도, 비단으로 쓴 상자에 쌓아 둔 것들 중에는 반드시 기운을 보충할 좋은 약과 독을 없앨 아픈 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명주실과 삼[麻]실과 같이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풀과 누런 띠처럼 거친 것을 버릴 수 없고, 무릇 모든 군자들은 궁할 때를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데, 왕께서도 또한 뜻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03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두 사람이 왔는데, 그중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화왕이 가로되 “장부의 말에도 또한 도리가 있지만, 미인은 얻기가 어려우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였습니다. 장부가 나와 말하기를 “나는 왕이 총명하여 사리를 아시는 줄로 알고 왔더니, 지금 보니 그게 아닙니다. 무릇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침하는 자를 친근히 하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음이 드뭅니다. 이런 까닭에 맹가(孟軻)\*가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풍당(馮唐)\*은 중랑서장(中郎署長) 벼슬을 하면서 백발이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이와 같았으니 제가 이를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자 화왕이 “내가 잘못하였구나! 내가 잘못하였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설총, '화왕계(花王戒) '@17E수특

\*백두옹: 할미꽃의 별칭

\*맹가: 맹자.

\*풍당: 한나라 때 사람으로 중랑서장의 벼슬에 올랐으며, 직언을 잘하기로 유명하였다.

[나]

01 국화에게 서리를 이겨내는 높은 절개가 있기 때문에 진(瞗)나라 도잠(陶潛)이 이 꽃을 사랑한 것이다. 도잠이야말로 은일인\*(隱逸人)이다. 이 꽃을 가리켜, 주무숙(周茂叔)이 은일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은일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지, 국화 자신은 실로 은일하지 않다.

02 왕궁, 귀인, 부호로부터 여염의 천한 선비에 이르기까지 뜨락이나 동산에 심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고금의 시인 문사들이 가사나 서설을 지어 훌륭히 찬양했으며, 또 화가들은 아름답

게 그 모습을 그렸다. 심지어 유몽(劉蒙), 범지능(范至能), 사정지(史正志), 왕관(王觀) 등은 그 종류를 빠짐없이 모아 국보(菊譜)를 만들었으니, 과연 국화를 보고 바위와 숲이 어울린 험한 빈터에 깊숙이 숨어 삶으로써 사람들이 그 이름을 모르는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혁혁한 그 명성은 모란보다 더 높다.

03 그러니 참으로 꽃 중에서 은일은 ‘어상(禦霜)\*’이라 하겠다. 이 꽃은 담홍색으로 송이가 많으며 잎은 국화와 같은데 줄기가 약간 가늘다. 늦가을에야 비로소 피며, 서리가 내릴수록 그 빛깔이 더욱 선명하니, 아마 도잠이 이 꽃을 보았다면 그 사랑이 국화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된 연유로 지금토록 아름다운 빛깔과 높은 은일의 덕을 홀로 간직하고 세상에 그 이름을 숨기고만 있을까.

04 나 역시 이제야 이 꽃을 보았으니 이와 같은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필시 깊숙한 산언덕 꼭대와 넝쿨이 엉킨 사이에 절개를 가진 꽃들이 어상처럼 숨어 살고 있을 것이다. 참답게 산야에 숨어 사는 선비들은 이런 꽃들을 알겠지만 설령 알고 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꽃들이 도잠처럼 글을 지어 이름을 널리 드러내 주기를 바라라.

-신경준, '어상'@17E수특

\*은일인\_속세와 떨어져 숨어지내는 사람

\*어상\_꽃의 이름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빠]르게[바]르게

- ① 가와 나 모두 대조의 기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O/X
- ② 가와 나 모두 대화의 방법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O/X
- ③ 가와 나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O/X
- ④ 가와 나 모두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 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O/X
- ⑥ 가의 '장미'와 '백두옹'은 서로 반목하고 있다. O/X
- ⑦ 가의 '장미'는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존재에, '백두옹'은 투박하지만 입바른 말을 하는 존재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O/X
- ⑧ 가의 '화왕'은 '장미'와 '백두옹' 모두를 중용해야 함을 깨닫고 있다. O/X
- ⑨ 나의 글쓴이는 '은일함'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O/X
- ⑩ 나의 글쓴이는 '국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드러내고 있다. O/X



문학> 현대소설편>

- 01 [앞부분 줄거리] 어머니는 마을의 개량 사업을 통해 지붕을 고치고 싶어 하지만 아들인 '나'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의 바람을 외면한다. '나'의 외면이 못마땅한 아내는 어머니가 지붕을 개량하고 싶은 속내를 묻게 되고 둘의 대화는 눈길에 얽힌 과거의 사연으로 이어진다. 어머니는 집안이 망하여 팔린 집에서 아들이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한 후 다음 날 새벽에 눈길을 걸으며 아들을 배웅하였다고 말한다.
- 02
- 03 “간절하다뿐이었겠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 굽이 돌아온 그 땀살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낮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지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땀살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 04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 05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디더 눈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빌고 왔제…….”
- 06 노인의 이야기가 거진 끝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 07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렇저렇 시름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까지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길로는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잣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 08 “어머님도 이젠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 09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채근하고 나섰다. 그 목소리가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 10 나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도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 11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 12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 보세요.”
- 13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꼭꼭 눌러 참으며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 밖에 없었다.
- 14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 15 “가만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디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뭣하러 그러냐.”
- 16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애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 17 “그런디 이것만은 네가 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잣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 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데,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창인디 그렇게 시린 눈을 해 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이청준, '눈길'@17E수특

01\_정리없이 정답없이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바깥에 위치한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O/X
- ② 과거의 사건이 현재 중심 인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O/X
- ③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작중 상황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O/X
- ④ 대화가 진행되며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드러나고 있다. O/X
- ⑤ 대화가 진행되며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O/X
- ⑥ 방언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O/X
- ⑦ 과거와 현재가 반복 교차되며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O/X
- ⑧ 친모를 '노인'이라 부르는 점에서 친모에 대한 '나'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O/X
- ⑨ '아내'는 '나'와 '노인' 사이를 이어가며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X
- ⑩ 과거에 대해 '노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된 '나'는 그에 따른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O/X



03\_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집家'은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의, 식, 주의 근본이 되는 장소로, 문학 작품에서의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로도 의미를 드러낸다. 관리가 잘 되고 튼튼한 집이 거주하는 이들의 만족스런 심리 상황을 의미한다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거나 집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은 거주자들의 불안정, 불만족한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로 기능한다.

이청준의 '눈길'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는 '집'이라는 공간적 소재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소재를 중심으로 중심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을 통해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① 현재 노인이 '지붕을 고치고 싶어하는 것'은 현재 노인의 심리에 불편함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② 과거 팔린 '집'에서 아들이 하룻밤을 잘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랐던 '노인'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O/X
- ③ '나'의 부끄러움은 과거 '집'이 없던 시절의 '내' 모습을 아내가 알게 되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④ 서사가 진행되며 과거 '노인'이 경험한, '집'이 없어 고생을 했던 상황이 상세히 드러나고 있다.      O/X
- ⑤ '나'의 '아내'는 과거의 '집'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물이지만, 현재 중심 인물들이 겪는 '집' 상황과는 관계가 깊은 인물로 드러나고 있다.      O/X
- ⑥ 과거 '노인'이 느꼈던 '부끄러움'은 자식에게 제대로 된 의식주의 기반을 제공하지 못한 데에서 온 불만족스러운 심리 반응으로 볼 수 있다.      O/X
- ⑦ 과거와 현재 모두 중심 인물들은 '집'의 부재를 경험하며 심리적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⑧ '집'이야기를 접한 '아내'는 '나'와 '노인' 모두에게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⑨ '집'을 둘러싼 이야기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노인'과 달리, '나'는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O/X
- ⑩ 과거 '노인'이 경험한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창인' 집들은 '노인'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환기했을 것이다.      O/X





문학> 수.희.시편>

- 01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원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 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 02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하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 03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 04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이곡, '차마설'@17E특

- \*노둔(老鈍)하고: 늙어서 재빠르지 못하며 둔하고.
- \*준마(駿馬): 빠르게 잘 달리는 말.
- \*비복: 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다양한 종류의 대조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② 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강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③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드러내 서술자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④ 일상적 체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O/X
- ⑤ 열거의 방법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⑥ 작품의 초반에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 후반에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O/X
- ⑦ 서술자는 여러 계층을 예로 들며 사람들이 계급, 계층 없는 평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O/X

03\_제시문과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전략>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地上)의 적(籍)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물론 일상에 소요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主客)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所有史)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소유욕(所有慾)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고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不辭)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착해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 못 하고 말았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중략>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교훈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법정, '무소유' 中

- ① <제시문>과 <보기> 모두 소유에 대한 서술자의 고찰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② <제시문>과 달리 <보기>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③ <제시문>은 <보기>와 달리 글을 쓰게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O/X
- ④ <제시문>과 <보기> 모두 종교와 관련지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제시문>과 <보기> 모두 바른 소유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O/X



답\_☀️)☆1703호

문법>

- 01\_ 교체\_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음절 끝소리 규칙  
첨가\_스첨가 / ㄴ첨가  
축약\_거센소리 되기, 이중모음 되기  
탈락\_자음군 단순화  
아닌 경우\_연음화
- 02\_ X/O/X/O/O
- 03\_ 1
- 04\_ 감-르누아르를 그린 것인지, 르누아르가 그린 것인지, 르누아르의 소유인지 밝혀서 /  
을\_문맥 상 틀린게 아니라 다른 것임  
병-음악은 먹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임->밤을 먹고 음악만 들으며 살았다  
정-각 한 칸 씩인지 두 칸씩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움 /  
무-경어의 대상이 어색함->선생님께 서 빨리 오라고 하셔로 고쳐야 함
- 05\_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 용언-동사, 형용사 / 수-관형사, 부사 / 독립-감탄사 / 관계-조사
- 06\_ 제안 / 제고 / 상이 / 지향  
배제 / 간주 / 평이 / 화신  
제공 / 지양 / 유보 / 비등

문학> 고전문문편>

- 01\_ #자연종아 #속세싫어 #임금좋아
- 02\_ 관 / 안 / 겹 / 관 / 겹  
관 / 관 / 안 / 관 / 심  
되 / 안 / 관 / 안 / 관  
관
- 03\_ O/O/X/O/X  
O/X/O/X/X  
X/O/X/O/O

문학> 현대문문편>

- 01\_ [가] #폐허 #아이들 #울상 #흥겨움  
#그림자  
[나] #우리땅 #나라사랑
- 02\_ [가]\_안 / 관 / 관 / 안 / 안  
안 / 관 / 관 / 관 / 관  
관 / 관  
[나]\_관 / 관 / 관 / 노 / 안  
관 / 관 / 관
- 03\_ X/O/X/O/O  
X/X/X/X/O
- 04\_ O/X/O/O/X

문학> 고전산문 복합편>

- 01\_ [가]\_#장미불호 #백두옹호 #바람직한왕의자세  
[나]\_어상♡>국화♡
- 02\_ O/X/O/X/O  
X/O/X/O/O

문학> 현대소설편>

- 01\_ #미안함 #사랑 #집 #빽신부인 #찌질한나
- 02\_ X/O/O/X/O  
O/X/O/O/X
- 03\_ O/O/X/X/O  
O/X/X/O/O

문학> 수.희.시편>

- 01\_ #소유와 마음가짐 #소유의 본질
- 02\_ O/O/O/O/O  
O/X
- 03\_ O/O/O/X/X



+@ / +ㅈㅊㄴㅅㅁ

**단[어]의[의]미**

배제排除\_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제고提高\_쳐들어 높임

제공提供\_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

제안提案\_안이나 의견으로 내놓음. 또는 그 안이나 의견

지양止揚\_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다

지향志向\_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유보留保\_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미루어 둠

평이平易\_까다롭지 않고 쉽다

화신化身\_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구체화 또는 유형화된 것

간주看做\_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다고 여김

비등比等\_비교하여 볼 때 서로 비슷하다

상이相異\_서로 다르다

**[예]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해적 병설**

[가] 설월이 만창한데@17E수특

- 01 눈과달이 창에가득 바람소리 불지마라
- 02 우리임의 신발소리 아닌것을 잘알지만
- 03 그리웁고 아쉬울때 임아닌가 생각난다

[나]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17E수특

- 01 창널란다 창널란다 이내가슴 창널란다
- 02 고무래창 가는살창 들장지문 열장지문
- 03 암돌쩌귀 수톨쩌귀 배목걸쇠 들여다가
- 04 이따만한 장도리로 똑똑딱딱 광광박아
- 05 갑갑스런 이내가슴 창널란다 창좀내자
- 06 살다가막 답답할때 열어근심 덜고싶다

[다] 개를 여러문이나@17E수특

- 01 애완견을 열마리를 넘게넘게 기르지만
- 02 이개처럼 알미운개 이세상개 또있을개
- 03 미운사람 찾아오면 꼬리살랑 점프하트
- 04 뛰었다가 내렸다가 반갑게도 맞이하고
- 05 사랑하는 임이오면 뒷발버둥 왔다갔다
- 06 캉캉쿵쿵 짖어내어 임이돌아 가게하네
- 07 손밥남아 들더라도 네줄밥이 있겠느냐



+@ / +ㅈㅊㄴㅅㅁ

현대어 해설

[가]

- 01 눈오는 가운데 뜬 달이 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바람아 불지 마라
- 02 신발 끄는 소리가 아닌 줄을 내가 분명하게 알지만
- 03 임이 그림고 아쉬울 때면 행여 임인가 하노라

[나]

- 01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구나.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 02 고무래 들창문, 가는 살의 장지문, 들창문, 여는 창문, 암돌쩌귀 수돌쩌귀, 배목걸쇠,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서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 03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면 열고 닫아 답답함을 풀고자 하노라.

[다]

- 01 개를 열 마리 넘게 기르지만 이 개처럼 알미운 놈이 있을까.
- 02 미운 님이 오면 꼬리를 뒤흔치면서 뛰어 올랐다 내리 뛰었다 하면서 반겨 맞이하고, 사랑하는 님이 오면 뒷발을 버둥거리면서 물러섰다가 나아갔다가 캉캉 짚어 돌아가게 한다.
- 03 신밥이 그릇그릇 아무리 많이 남을지라도 너 먹일 줄 있으랴?

원작품

[가]

- 01 설월(雪月)이 만창(滿窓)한데 바람아 부지 마라
- 02 예리성(曳履聲)\*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건마는
- 03 그림고 아쉬운 때면 행여 긴가 하노라  
-작자 미상, '설월이 만창한데'  
\*예리성: 신발을 끄는 소리.

[나]

- 01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02 고무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쩌귀 수돌쩌귀 비목걸 새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서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03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흥노라  
-작자 미상,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다]

- 01 개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요 개긋치 알미오라
- 02 위운 님 오며눈 꼬리를 뒤흔치며 뛰락 느리 뛰락 반겨서 내듯 고 고운 님 오며눈 뒷발을 버둥버둥 므 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셔 도라가게 훈다
- 03 신밥이 그릇 그릇 난들 너 먹길 줄이 이시랴  
-작자 미상, '개를 여라믄이나'



# "SunnyDay@피비스"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늌자 ✍\_1704호



MyLove기다려줄래널찾을때까지내운명을믿을게.조금씩천천히네게다가날볼수있도록웃을게.그대하늘가득히내햇살이비취줄때면.그설레이는미소속에말해줘.그땀향한마음과두근대는가슴으로나.그대와함께꿈을꾸는거야  
1704\_[문법]+[설월이 만창한데]+[창 내고자]+[개를 여러문이나]+[선우사-함주시초 4]+[벼]+[용문전]+[서울 1964 겨울]





05\_ <보기>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世.성 宗宗 御.영 製.정 訓.훈민정.정음음  
 나.랏 : 말싼·미中동國·귀에달·아文문字·짱·와·로 서르스뭇디아·  
 니홀·씨·이런전·츠·로어·린百·빅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  
 무·츄 : 내제·쁘·들시·러퍼·디 : 몬홍·노·미하·니·라·내·이·롤爲·왕·  
 흥·야 : 어엿·비너·겨·새·로스·믈여·똥字·짱·롤밍·기노·니 : 사름 :  
 마다 : 히·예 : 수·비니·겨·날·로·뿌·메便便안한·크·히·고·저홍·쓰르·  
 미니·라

-훈민정음 中, 세조(世祖) 5년(1459)

[현대어 풀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를 통해 서로 소통하지 못하므로 이  
 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전달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의 뜻을 마땅히 실어 퍼지 못할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  
 여 불쌍하게 여겨 새로 스물 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들로 하여  
 금 쉽게 익혀 매일 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 ①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 볼 때 ':말싼·미'는 이어적기 표기 방식  
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②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 볼 때 '中동國·귀에'의 '-에'는 장소를  
가리키는 격조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③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 볼 때 '어·린'의 의미가 현대 국어와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O/X
- ④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 볼 때 '·노·미하·니·라'의 '-하나라'는  
동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⑤ [현대어 풀이]와 비교해 볼 때 '쁘·르·미니·라'에서 지금은 쓰지  
않는 자음과 모음을 발견할 수 있다. O/X

06\_ <보기>의 어휘들을 잘 보고 아래의 괄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어휘는 한 번 씩만 사용합니다.

보기

감수甘受 / 감안勘案 / 간극間隙 / 분할分割  
 치료治療 / 치유治癒 / 반출搬出 / 논의論議  
 합의合意 / 함의含意 / 경시輕視 / 초토焦土

- ① 병원에서 내 마음을 [ ]해 줄 수는 없다.
- ② 너 없는 내 마음은 아마도 스스로 [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 ③ 학생 식당에 숨어들어가 다음달 치식단을 몰래 [ ]한 그 친  
구는 한 달 간 학생들에게 명예 회장으로 섬김을 받았다.
- ④ 메뉴에 대한 [ ]가 늦어져 도통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 ⑤ 친구를 기다리다 흘러가 버린 5분쯤 [ ]할 수 있다.
- ⑥ 늦어버린 친구를 어떻게 응징할지 [ ]해야 한다.
- ⑦ 학교 성적이 인생을 [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 ⑧ 약속시간을 [ ]하는 그 친구를 응징하기 위해 뽕망치를 준  
비했다.
- ⑨ 친구가 늦게 올 것을 [ ]하여 약속 시간을 정했다.
- ⑩ 그들은 케이크를 똑같은 크기로 [ ]하는 방법으로 한 시간  
동안을 다뤘다.
- ⑪ 원하는 점수와 현재 내 점수와 의 [ ]을 채우기 위해 나는 오  
늘 하루도 잘 살았다.
- ⑫ 점수를 매기는 족족 자꾸 틀리기만 해서 [ ]의 상황이 됐던  
시험지는 알고보니 채점을 잘못된 시험지여서 좀 슬플 뻔 했다.





문학> 고전문문편>

[가]

- 01 설월(雪月)이 만창(滿窓)한데 바람아 부지 마라
- 02 예리성(曳履聲)\*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건마는
- 03 그림고 아쉬운 때면 행여 권가 하노라  
-작자 미상, '설월이 만창한데'@17E수특  
\*예리성: 신발을 끄는 소리.

[나]

- 01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02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로로 똥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 03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작자 미상,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17E수특

[다]

- 01 개를 여러마이나 기르되 요 개갯치 알미오라
- 02 뒤편 님 오며는 소리를 화해 치며 뉘락 누리 뉘락 반겨서 내듯 고 고온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서 도라가게 훈다
- 03 쇠뿔이 그릇 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작자 미상, '개를 여러마이나'@17E수특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가] ⇨
- [나] ⇨
- [다] ⇨

02\_출제자의 [시어뉘니]

[가]

- ① '바람'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예리성'은 화자에게 (□그리움의 / □기쁨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때'는 (□과거의 / □현재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기르'는 (□화자의 / □대상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⑤ '창'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하 답답홀 제'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여다져 볼'수 있는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

- ⑧ '요 개'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뒤편 님'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소리를 화해 치며 뉘락 누리 뉘락 반겨서 내듯'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 (□부합하는 / □동떨어진)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고온 님'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뒷발을 버둥버둥'거리는 것은 (□반가움의 / □경계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쇠뿔'은 상대에 대한 (□호의의 / □악의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② 가~다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가~다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④ 가,나와 달리 다는 대구를 이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가와 달리 나, 다는 부분적으로 정형적 율격이 파괴되어 드러난다. O/X
- ⑥ 가~다 모두 그리움의 감정을 작품 창작의 계기로 삼고 있다. O/X
- ⑦ 가, 나는 다와 달리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⑧ 가~다 모두 시간의 흐름이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O/X
- ⑨ 다는 가, 나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⑩ 나는 가, 다와 달리 유사한 이미지의 시어를 늘어놓아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⑪ 가~다 모두 계절적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O/X
- ⑫ 가는 나, 다와 달리 대상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O/X
- ⑬ 나는 가, 다와 달리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추상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⑭ 가, 다는 나와 달리 의인법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⑮ 나, 다와 달리 가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낯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 02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 03
- 04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 05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 06 우리들은 서로 미덥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 07
- 08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 09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이슬 먹고 나 이 들은 탓이다
- 10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 11
- 12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여졌다
- 13 착하다착해서 세관은\* 가시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 14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 15
- 16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 17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 18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 19
- 20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 21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 22 세상 같은 건 밖에 나도 좋을 것 같다

-백석, '선우사 -함주시초 4'@17E수특

\*세관은: 성질이나 기세가 역센.

[나]

- 01 벼는 서로 어우러져
- 02 기대고 산다.
- 03 햇살 따가워질수록
- 04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 05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06
- 07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 08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 09
- 10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 11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출출 때,
- 12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 13
- 14 벼는 가을 하늘에도
- 15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 16 바람 한 점에도
- 17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 18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 19
- 20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 21 이 넓디넓은 사랑,
- 22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 23 이 피 묻은 그리움,
- 24 이 넉넉한 힘……

-이성부, '벼'@17E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뭉치]

[가]

- ① '쓸쓸한 저녁'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쓸쓸한 저녁'은 (□세속적 / □탈속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우리'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잔뼈가 굵은 탓'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희여졌'음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파리한' 것은(□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가난, 외로움, 누구'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세상'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⑨ '벼'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햇살'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이웃들'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몸을 묶'는 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죄'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불타는 마음'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소리 없이 떠나가'는 모습은 (□도피의 / □희생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가슴이 더운'것은(□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⑰ '다시 일어서'는 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⑱ '피 묻은 그리움'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⑲ '힘'은 (□소수에게 집중된 / □다수의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가와 나 모두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며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②가와 달리 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③가와 나 모두 여운이 남는 형태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O/X
- ④가와 나 모두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달하고 있다. O/X
- ⑤가는 나와 달리 희생적 이미지를 지닌 대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O/X
- ⑥가와 나 모두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⑦가와 나 모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시선이 드러나 있다. O/X
- ⑧가는 나와 달리 시상이 진행되며 과거에서 현재로 시점이 이동하고 있다. O/X
- ⑨가와나 모두 시적 대상들끼리의 연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O/X
- ⑩가는 나와 달리 수미상관의 형태로 주제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문학 &gt; 고전소설편 &gt;

- 01 [앞부분 줄거리] 호국에서 태어난 용문은 어린 시절 연화 선생에게 병법과 무예를 배운다. 어느 날 용문은 하늘로부터 석함을 받는데, 그 석함 뚜껑에 새겨진 ‘명나라 대사마 대장군 용문은 친히 열어 보라.’라는 글귀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 후 용문은 명나라를 공격하려는 호왕에게 발탁되고, 명나라와의 전쟁에 출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하지만 용문은 명나라의 노왕인 소대성과의 치열한 전투 후 호왕과 비교되지 않는 소대성의 인물 됴됨이에 경탄한다. 명나라 편에 선 연화 선생은 설영두를 통해 용문에게 서찰을 보낸다. 설영두는 용문을 만나 명나라로 넘어오라고 회유한다.
- 02
- 03 각설. 설영두가 본진으로 돌아와 선생에게 용문의 답장과 주고받은 말을 낱낱이 고하니, 선생이 크게 기뻐해 그 답장을 뜯어보았다.
- 04 “호국 대사마 대장군 용문은 선생께 한 통의 서찰을 올리나이다. 선생의 슬하를 떠난 지 이미 10년이어서 생각지도 못한 선생의 친필을 받아 보오니 ‘안녕하시다’ 하여 기쁜 마음 헤아릴 수가 없사옵습니다. 곧장 나아가 그간 찾아뵙지 못한 죄에 대해 질책을 받고자 하오나, 서찰 가운데 극히 놀라운 말이 있고 호국 장졸의 이목이 있어 마음대로 가지 못하오니, 무정타 마시고 용문이 나아가 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 05 설영두가 다시 아뢰었다.
- 06 “방금 ‘호국 도성이 비었다’ 하오니 바빠 이름난 장수를 보내어 저들이 미처 대비하기 전에 습격하소서.”
- 07 선생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정예병 삼 만을 뽑고서 심회양을 불러 말했다.
- 08 “그대는 이리이리하라!”
- 09 심회양이 선생의 명을 듣고 군병 삼 만을 지휘해 호국에 쳐들어 가는데 북소리와 함성이 하늘과 땅을 울리니 도성을 지키던 장수와 군졸 가운데 누가 감히 대적하리오. 북소리 한 번 만에 도성을 빼앗고 승전한 소식을 서신으로 보내니, 여러 장수와 군졸의 기뻐하는 소리가 진동했다. 심회양이 성안의 백성을 모두 안정시키고 위로한 뒤에 여러 장수들에게 “잘 지키라.” 하고 군사를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왔다.
- 10 각설. 호국의 군사가 허둥지둥 ‘명나라 장수가 노둔정에 매복했다가 도성을 쳐서 빼앗고 백성을 진무한 사연’을 고하니, 호왕이 이 말을 듣고서 몹시 놀라며 크게 화를 내고 재빨리 군사를 총지휘하며 용문을 찾았지만, 산으로 들어간 용문이 어찌 진중에 있으랴. 호왕은 할 수 없이 몸소 징을 쳐
- 11 “적병을 막으라.”
- 12 하고 북을 울리며 들어갔다.
- 13 이때 용문이 산으로 들어가 달이 뜨기를 기다려 호국을 버리고 말 한 필에 검 하나만을 비껴들고 밤을 틈타 명나라로 갔다. 이리구러 명나라의 지경에 다다랐는데, 산천이 수려하고 인물들이 모두 비범했으니 진실로 대명이었다.
- 14 호왕은 용문이 명나라로 간 것을 알고 더욱 분함을 이기지 못해 점점 싸움을 독려하는데, 서선왕 중달을 선봉으로 삼고 서적왕 호척을 좌장군으로 삼아 정예병 삼 만을 거느리고 바로 그날 행군해 다시 명나라로 향했다.
- 15 이즈음 용문은 명나라에 들어가 노왕 소대성과 설영두에게 자신이 찾아왔음을 먼저 알렸다. 노왕과 설영두가 이 소식을 듣고

- 몹시 반가워서 복장을 갖추어 100리 밖까지 나가 영접했다.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곧장 성으로 되돌아와서 선생을 뵈었다. 3일을 머문 후에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취하도록 권하며 즐거워 하더니, 선생이 용문에게 말했다.
- 16 “이윤은 발 갈기에 힘쓰다가 은나라 왕인 탕왕을 섬겨 나라를 세우는 대업을 이루었나니, 군자가 마땅히 어두운 데를 버리고 밝은 데로 돌아가 성군을 섬겨 사직을 받들 것이거늘, 그대는 궁벽한 시골의 농부 되기를 어찌 자청하느냐? 이 늙은이가 8년 동안 가르친 것을 속절없이 버리려 하니, 이는 그대 마음대로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바 아니로다.”
- 17 말을 마친 연화 선생이 장수들의 지휘소로 들어가자, 노왕이 친히 술을 부어 용문에게 권하며 말했다.
- 18 “장군의 생김새를 보니 반드시 대장의 기상이라서, 일찍 공을 세워 이름을 역사에 전하고자 대명의 충신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제 북호를 도와 천지를 요란하게 한다면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 농부 되어 더러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장군 같은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지략을 지닌 이가 초목과 함께 늙는다면 뉘라서 그대를 알아주겠소? 하물며 연화 선생이 비록 세상에 나왔으나 근본은 옥경의 선관이요, 그대와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의리를 중하게 여기시니, 장군은 다시 생각하십시오.”
- 19 용문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즉시 선생 앞에 나아가 투구를 벗고 장막 아래 꿇어 말했다.
- 20 “제가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해 선생의 교훈을 거슬렀사오니, 선생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명나라를 섬기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물불이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좃을 것이오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사오니 역사에 더러운 이름이 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또한 자기 나라 임금을 멸한다면 옛날 위나라 장수 여포의 행실과 다를 바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선생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분부해 주시옵소서.”
- 21 선생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분부했다.
- 22 “이 늙은이가 너를 가르쳤거늘 어찌 그만한 일을 모르겠느냐? 한나라의 장량과 한신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 23 하시니, 용문이 문득 석함의 신기한 글을 생각하고 선생에게 말했다.
- 24 “선생의 말씀대로 명나라를 돕겠나이다.”
- 25 “이제야 네가 흐려진 정신이 맑아지니 이 늙은이의 마음이 즐겁도다. 네가 뛰어난 재주와 원대한 지략을 가지고 있으나 하늘의 뜻에 항거하고서 어찌 이름을 세상에 알리리오. 네 부모가 북쪽에 있으나 호왕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명나라가 천명을 받아 조만간 북호를 멸망시키면 그대의 이름이 온 세상에 떨치리라.”
- 26 <중략>
- 27 이때 호진의 장수들과 군졸들이 모두 용문이 명나라로 간 것을 두고 몹시 분노해 호왕에게 아뢰었다.
- 28 “용문의 아비인 용훈이 청수강 가에 사오니 급히 잡아다가 군대 안에 두고 제 아비에게 편지를 쓰도록 재촉해 명나라 용문에게 전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 29 호왕이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즉시 장수를 불러 군사 30명을 주어 용문의 아비를 잡아다가 지휘대 아래 꿇어앉히고, 호



- 왕이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 30 “네 자식이 역적이 되어 호국을 배반하고 명나라로 갔으니, 네 자식의 대로부터 구족을 다 멸하는 것이 옳으나, 편지를 해 용문을 돌아오게 하라!”
- 31 용훈이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다.
- 32 “법지불행(法之不行)은 자상범지(自上犯之)라 했으니,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로 소이다. 선왕부터 법을 모르고 하늘의 뜻을 거슬렀으니, ‘누구를 그르다 하며 누구를 옳다’ 하리오. 용은 용을 좇고 영웅은 성군을 따르나니, 전하께서 이것을 그르다 하니 영천수가 멀지 않으면 귀를 씻고자 하나이다.”
- 33 호왕이 이 말을 듣고서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작자 미상, '용문전'@17E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장면이 바뀔 때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드러나 있다. O/X
- ②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O/X
- ③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중심 인물의 미래가 예언되고 있다. O/X
- ④ 중심 인물의 비현실적 전투 능력이 과장된 표현과 함께 드러나 있다. O/X
- ⑤ 전기적 특징과 군담 소설의 특징이 함께 드러나 있다. O/X
- ⑥ 독백을 통해 중심 인물의 내적 갈등 상황이 드러나 있다. O/X
- ⑦ 용문은 스승이 보낸 첫 서찰을 받자마자 서둘러 명나라로 떠나게 된다. O/X
- ⑧ 용문은 양국의 두 임금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다. O/X
- ⑨ 용문과 노왕은 용문이 연화 선생의 편지를 받아 방문한 명나라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O/X
- ⑩ 연화 선생은 용문의 재주와 지략을 하늘의 뜻조차 바꿀만큼 대단한 것으로 여긴다 O/X
- ⑪ 용문은 명국에 호국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 호국을 배반한다. O/X
- ⑫ 연화 선생은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O/X
- ⑬ 연화 선생의 대사를 통해 연화 선생이 운명론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⑭ 용문은 자신이 호국을 떠나는 이유가 임금에게 있음을 호국 왕에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O/X
- ⑮ 연화 선생은 용문이 보인 절개에 자신의 뜻을 접고 용문과 호국을 돕게 된다. O/X



## 문학&gt; 현대소설편&gt;

- 01 <이전 줄거리>
- 02 1964년 서울 겨울, '나'는 선술집에서 '안'이라는 대학원생을 우연히 만난다. 나는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낙방하고 제대한다. 구청 병사계에 근무하는 25세의 청년이고 동갑인 안은 부유해보인다. 둘은 시시껄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된다. 자리를 떠나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여관에 들기로 합의하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가난해 보이는 서른 대여섯살의 한 사내가 함께 데려가 줄 것을 간청한다.
- 03
- 04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 05 “몹시 출근요.”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 06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안]'이 말했다.
- 07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말했다.
- 08 “그게 좋겠지요?”
- 09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지요.”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 10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 11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 12 “난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 13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 14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 15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 16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 17 “[화투]”라고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 18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 19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가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 20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 21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 22 “예?” 나는 잠이 깨곳이 깨어 버렸다.
- 23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 24 “역시…….” 나는 말했다.
- 25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 26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린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27 “[자살]”이지요?”

- 28 “물론 그것이겠죠.”
- 29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 30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갔다.
- 31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 32 “난 짐작도 못 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 33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 34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 35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 36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 37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 38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39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 했다가요. 씨팔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 40 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 41 “김 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 42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 43 “나두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가웃했다.
- 44 “두려워집니다.”
- 45 “뭐가요?” 내가 물었다.
- 46 “그 뭐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 47 “우리가 너무 늙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 48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 49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 50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 51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안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17E수특

\* 자리가끼: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초점화된 인물이 바뀌며 서술자가 교체되고 있다. O/X
- ② 인물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공간이 이동함에 따라 인물들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O/X
- ④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O/X
- ⑤ 서술자에 의해 인물들의 내적 심리가 묘사되고 있다. O/X



- ⑥ 성격이 다른 인물들을 배치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X
- ⑦ 작품 속 사건시와 서술시가 다르게 설정되어 나타나 있다. O / X
- ⑧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중심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O / X
- ⑨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X
- ⑩ 비속어를 사용하는 인물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3\_ <보기>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176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는 이전까지 전통적 인간관계로 당연하게 여겨지던 '집단적 인간관계'를 '개인적 인간관계'로 재편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집단적 인간관계'가 '나'보다 '우리'를 강조하며 서로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지향했다면, '개인적 인간관계'는 '우리'보다 '나'를 강조하며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둘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람들은 각자 타인에게 무관심하게 되었고, 개인 혹은 서로에게 이로운 관계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를 회피하거나 피상적 관계를 형성하며 진정한 인간관계에 거리를 두게 되었다.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은 산업화 시대를 살며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 ① '우리'라는 호칭이 주는 본디 의미와는 달리, 작품 속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 / X
- ② '아저씨'는 '나', '안'과 집단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를 소망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O / X
- ③ '아저씨'와 달리 '안'과 '나'는 모두 각자의 방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다. O / X
- ④ '나란히 붙은 방 세 개'는 붙어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다는 특징을 통해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 / X
- ⑤ '화투'는 인물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소재로 볼 수 있다. O / X
- ⑥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은 '우리'에 합류하고 싶은 인물들의 바람이 반영된 행위로 볼 수 있다. O / X
- ⑦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잔' 것은 '아저씨'를 위해 '나'를 양보하고 '우리'를 지향한 데에서 온 만족감에서였을 것이다. O / X
- ⑧ '아저씨'의 '자살'은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O / X
- ⑨ '개미 한 마리'는 '나'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소재로 볼 수 있다. O / X
- ⑩ '약'은 '아저씨'가 진정한 인간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며 복용한 소재로 볼 수 있다. O / X
- ⑪ '겨우 스물다섯 살'은 '나'와 '안'의 반성적 시각이 담겨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 / X
- ⑫ '양상한 나뭇가지'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결여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O / X



답\_☀️)☆1704호

문법>

- 01\_ O / X / X / O / O  
X / O / O / O / O
- 02\_ ①\_인칭(1) / 재귀 ②\_인칭(1) / 재귀 ③\_인칭(2) / 재귀 ④\_미지칭 / 부정칭 / 인칭(2) ⑤\_인칭(1) / 부정칭
- 03\_ 주성분\_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보조 성분\_관형어 부사어  
독립 성분\_독립어
- 04\_ 1자리\_㉠㉡ / 2자리\_㉢㉣ / 3자리\_㉤㉥
- 05\_ O / X / O / X / O
- 06\_ 치료 / 치유 / 반출 / 합의(논의)  
감수 / 논의(합의) / 합의 / 경시  
감안 / 분할 / 간극 / 초토

문학> 고전문문편>

- 01\_ [가]\_#그리움 #외로움 #겨울밤  
[나]\_#답답함 #창 #해소  
[다]\_#알미운 개 #그리운 임
- 02\_ [가]\_안 / 그 / 현 / 대  
[나]\_괘 / 안 / 괘  
[다]\_안 / 안 / 동 / 괘 / 경 / 호
- 03\_ X / O / X / O / O  
X / X / X / X / O  
X / X / O / O / O

문학> 현대문문편>

- 01\_ [가]\_#친구들과 나  
[나]\_#버들의 끈끈함과 희생, 사랑
- 02\_ [가]\_괘 / 탈 / 괘 / 괘 / 괘  
괘 / 안 / 안  
[나]\_괘 / 안 / 괘 / 괘 / 안  
안 / 희 / 괘 / 괘 / 괘  
다
- 03\_ O / O / X / O / X  
O / O / X / O / X

문학> 고전소설편>

- 01\_ #용문의 선택 #부덕한 임금을 떠남
- 02\_ O / O / O / X / O  
X / X / O / X / X  
X / O / O / X / X

문학> 현대소설편>

- 01\_ #산업화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쁜놈들
- 02\_ X / O / X / O / X  
O / X / X / O / O
- 03\_ O / O / X / O / X  
X / X / O / O / X  
O / O





+@ / +ㅈㅊㄴㄹㅂㅣ

**단[어]의[의]미**

- 감수甘受\_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임.
- 감안勘案\_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함.
- 간극間隙\_두 가지 사건, 두 가지 현상 사이의 틈.
- 분할分割\_나누어 쪼갬.
- 치료治療\_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 치유治癒\_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
- 반출搬出\_운반하여 냄.
- 논의論議\_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 합의合意\_서로 의견이 일치함. 또는 그 의견.
- 함의含意\_말이나 글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 있음. 또는 그 뜻.
- 경시輕視\_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김.
- 초토焦土\_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해적 병설

**[가]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원천석@17E수특**

- 01 눈썹맞아 휘어진겨 대나무를 누가굽대?
- 02 굽힐멘탈 이었으면 찬눈속에 푸르겠니
- 03 이추위에 높은절개 대나무너 뿐이로다

**[나] 맥들에 동난지이 사오 @작자 미상@17E수특**

- 04 하이데얼 디스이즈 동난젓갈 세일포유
- 05 물건파는 저장수야 뭐라는겨 뭐파는겨
- 06 걸딱지는 단단하고 속살맛은 사르르르
- 07 큐트두눈 위로솟아 실쭉샬쭉 하늘보고
- 08 리틀풋은 여덟개요 휴즈풋은 두개이요
- 09 푸른창자 아사사삭 동난젓갈 세일포유
- 10 저장수야 그거그냥 게젓갈이 아니더냐
- 11 거북하게 어려운말 쓰지말고 그냥팔아

**[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작자 미상@17E수특**

- 12 센척난척 떡두꺼비 약골파리 입에물고
- 13 두엄위에 달려앉아 거드름을 피워낸다
- 14 날씨좋아 입맛좋아 건너산을 바라보니
- 15 오마이갓 송골매가 하늘위에 떠있구나
- 16 심장하트 졸깃졸깃 도망가다 자빠졌네
- 17 에헬에헬 두꺼비의 한마디를 들어보라
- 18 마침다행 운동신경 잼싼나라 망정이지
- 19 다른동물 이었으면 피멍들뻥 했네그러



+@ / +ㅈㅊㄴㅅㅁ

현대어 해설

[가]

- 01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던가?
- 02 굽을굽힐 절개이면 눈 속에서도 푸를 것인가?
- 03 아마도 겨울의 추위를 이기는 외로운 절개는 오직 너뿐인가 하노라.

[나]

- 04 사람들이여, 동난젓 사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 무엇이랴 외치느냐, 사자.
- 05 밖은 단단하고 안은 물렁하며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하고 앞뒤로 가는 작은 발 여덟 개, 큰 발 두 개, 푸른 장이 아스스속 하는 동난젓 사오.
- 06 장수야, 너무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게젓이라 하려무나.

[다]

- 01 두꺼비가 파리 한 마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올라 앉아서,
- 02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무서운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꿈쩍하여 풀떡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로 나자빠졌구나.
- 03 아이쿠야! 마침 몸이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들 뵈하였구나.

원작품

[가]

- 01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툼고
- 02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나
- 03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ㅎ노라  
-원천석,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나]

- 01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수야 네 황후\* 그 무서시랴 웬는다 사자
- 02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으스스속 하는 동난지이 사오
- 03 장수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ㅎ렴은  
-작자 미상,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동난지이: 게젓.  
\*황후: 물건.  
\*청장: 진하지 않은 간장.

[다]

- 01 두터비 ㅍ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드라 안자
- 02 것년 산(山)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썬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떡 뛰여 내돏다가 두험 아래 잣바지거고
- 03 모쳐라\* 날랜 냐식만정 에혈\*질 번 ㅎ괘라  
-작자미상, '두터비 ㅍ리를 물고'  
\*백송골: 송골매.  
\*모쳐라: 마침.  
\*에혈: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 "일어나@김광석"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늌자 ✍\_1705호



검은밤의가운데서있어. 한치앞도보이지않아. 어디로가야하나어디에있을까. 둘러봐도소용없었지. 일어나일어나다시한번해보는거야. 일어나일어나봄의새싹들처럼  
1705\_[문법]+[눈 맞아 휘어진 대를]+[덱들에 동난지이 사오]+[두터비 푸리를 물고]+[성북동 비둘기]+[풀]+[사씨남정기]+[큰 산]+[만월]



☀️) ☆1705호



문법>

01\_ 다음을 잘 보고 적절한 답을 골라 보세요.

- ① ‘살림살이’에서는 발음 과정에서 음운이 변동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O/X
- ② ‘하룻강아지’에서는 교체만을 확인할 수 있다.\* O/X
- ③ ‘좋은’에서는 연음화가 일어난다. O/X
- ④ ‘탄력’에서는 동화가 일어난다. O/X
- ⑤ ‘얇는’에서는 탈락 두 번과 교체 두 번이 일어난다. O/X
- ⑥ ‘물약’에서는 앞말의 끝 소리가 뒷 말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O/X
- ⑦ ‘눈사람’에서는 첨가가 일어난다. O/X
- ⑧ ‘비음’은 ‘ㄴ’, ‘ㄹ’, ‘ㅇ’의 세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O/X
- ⑨ ‘유음’은 ‘ㄹ’과 ‘울림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O/X
- ⑩ 종성의 쌍받침은 발음 과정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O/X

02\_ <보기>의 설명과 예문을 잘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단어는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한다. 즉, 단어는 ‘어근’과 ‘조사’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예문]  
 ㄱ\_ 자두가 예쁘게 익어 있었다.  
 ㄴ\_ 나는 너는 우리는 친구이다.

- ① ㄱ은 모두 5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다. O/X
- ② ㄴ은 모두 7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다. O/X
- ③ ㄱ은 4개의 실질 형태소와 2개의 자립형태소로 구성된 문장이다. O/X
- ④ ㄴ은 단어와 형태소의 수가 일치하는 문장이다.\* O/X
- ⑤ ㄱ의 ‘있었다’의 형태소 개수와 ㄴ의 ‘친구이다’에서의 단어의 개수를 합하면 5개이다. O/X

03\_ 다음 문장을 잘 보고 적절한 답을 골라 보세요.

- ① 나는 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요.\* (피동□ / 사동□)
- ② 그는 나에게 아스트랄한 그림을 보여 주었다. (피동□ / 사동□)
- ③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가 웃고 있어요. (피동□ / 사동□)
- ④ 희수가 아이를 엄마에게 안겼다. (피동□ / 사동□)
- ⑤ 새파란 눈으로 덮인 저 들판을 보세요. (피동□ / 사동□)
- ⑥ 도넛 도난 사건은 이제 영원히 미궁 속에 덮였어요. (피동□ / 사동□)
- ⑦ 손에 짐이 들려 있어서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다. (피동□ / 사동□)
- ⑧ 어머니는 고향에 온 아들에게 음식을 잔뜩 들려 보냈다. (피동□ / 사동□)
- ⑨ 3세미만 아동들에게 요즘 무슨 책이 많이 읽히는지 아세요? (피동□ / 사동□)
- ⑩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책을 많이 읽히려 노력합니다.\* (피동□ / 사동□)

04\_ 다음은 중의문입니다. 중의성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바르게 고쳐 보세요.

- ① 김 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환영 나온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
- ② 세가는 이 선배와 지도 강사를 만나 진로 문제를 상담했다. ⇨
- ③ 세나는 친구를 통해 김 원장의 책을 전달받았다. ⇨
- ④ 세다와 세라가 내년엔 결혼한다. ⇨
- ⑤ 나는 어제 세마만 만나지 않았다. ⇨



05\_ <보기 1>의 ㉠~㉣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15세기 국어의 특징

- ㉠ 주격 조사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 ‘ㅣ’, ‘ㅇ’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 ㉡ 종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
- ㉢ ‘ㅅ’, ‘ㅃ’, ‘ㅆ’ 등의 글자가 존재하였다.
- ㉣ 초성에 오는 ‘ㅃ’은 ‘ㅆ’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다.
- ㉤ 연철 표기(이어 적기)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보기2

四祖 | 便安히 묻 겨샤 현 고돌 울마시뇨 몇 間 ㄷ 지비 사르시리 잇고

九重에 드르샤 태평을 누리실 제 이 ㅃ들 닛디 마르쇼셔  
- 『용비어천가』, 세종 29년(1447) -

[현대어 풀이]

사조(四祖)가 편안(便安)히 묻 계시어 몇 곳을 읊으셨느냐? 몇 칸 [間]의 집에 사시겠습니까?

구중(九重)에 드시어 태평(太平)을 누리실 적에 이 뜻을 잊지 마소서.

- ① 현대어 풀이와 ㉠을 통해 볼 때, ‘四祖 |’의 ‘ㅣ’는 주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O/X
- ② 현대어 풀이와 ㉡을 통해 볼 때, 15세기 ‘몇’의 종성은 현대 국어와 다르게 발음되었을 것이다. O/X
- ③ 현대어 풀이와 ㉢을 통해 볼 때, ‘누리실’의 초성에는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글자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④ 현대어 풀이와 ㉣로 보아 ‘ㅃ들’을 발음할 때 첫음절의 초성은 두 개의 자음으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O/X
- ⑤ ‘고돌’에 ㉤이 적용되었다고 할 때, 이를 끊어 적으면 ‘곧을’로 적을 수 있을 것이다. O/X

06\_ <보기>의 어휘들을 잘 보고 아래의 괄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어휘는 한 번 씩만 사용합니다.

보기

요람搖籃 / 노고勞苦 / 보존保存 / 보전保全  
논박論駁 / 논조論調 / 기별奇別 / 수반隨伴  
재고再考 / 고찰考察 / 필적匹敵 / 교섭交涉

- ① 더운날 고생하는 여러분의 [ ]을/를 기리기 위해 시원한 아리수를 준비했습니다.
- ② 문화 유산을 미래에 온전히 [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 ③ 번개에는 천둥이 [ ]되는 경우가 많다.
- ④ 문제를 풀 땀 시간을 남겨서 헛갈렸던 문제를 [ ]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⑤ 이곳이 바로 이곳이 여러분을 키워내는 ( )이/가 될 것이다.
- ⑥ 한 시간여가 넘는 토론 끝에 점심 메뉴의 [ ]에 이를 수 있었다.
- ⑦ 이렇게 더운 날이면 자연을 [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되새겨 보게 된다.
- ⑧ 에어컨 온도를 두고 그들은 오랜 시간 열을 뽐으며 [ ]했다.
- ⑨ 신대륙을 찾아 떠나간 친구에게서 [ ]이 없어 걱정이 된다.
- ⑩ 문제를 풀 땀 천천히 [ ]하는 습관도 좋지만 때로는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
- ⑪ 그 시험은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에 [ ]할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나는 91점.
- ⑫ 그의 논술문은 늘 빼직한 [ ]로/으로 글을 전개해 읽는 사람의 뒷목을 데운다.



문학> 고전문문편>

[가]

- 01 눈 마자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톤고
- 02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나
- 03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원천석, '눈 마자 휘어진 대를'@17E수특

[나]

- 01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그 무서시라 웨는 다 사자
- 02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으스스흐는 동난지이 사오
- 03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흐렴은  
-작자 미상,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17E수특  
\*동난지이: 게로 담근 젓갈.  
\*황후: 물건.  
\*청장: 진하지 않은 간장.

[다]

- 01 두터비 프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 02 것년 산(山)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씨 잇거늘 가슴이 금 즉하여 풀덕 쉼여 내듯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 03 모쳐라\* 늘낸 널식만정 에혈\*질 번혀과라  
-작자미상, '두터비 프리를 물고'@17E수특  
\*백송골: 송골매.  
\*모쳐라: 마침.  
\*에혈: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가] ⇨
- [나] ⇨
- [다] ⇨

02\_출제자의 [시어뉘니]

[가]

- ① '눈'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대'가 '굽'은 상황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절'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푸른'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세한고절'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⑥ '동난지이'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장스'는 (□현명한 / □현학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게젓'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

- ⑨ '두터비'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프리'는 (□강한 / □약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백송골'은 (□강한 / □약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잣바진'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② 나와 달리 가, 다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시적 대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가와 달리 나, 다는 열거를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④ 가와 달리 나, 다는 대상에 대한 풍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나, 다는 가와 달리 작품이 진행되며 화자가 교체되고 있다.\* O/X
- ⑥ 가~다 모두 자연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O/X
- ⑦ 가, 다는 나와 달리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부름이 드러나 있다. O/X
- ⑧ 가는 나,다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⑨ 나, 다는 가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⑩ 가~다 모두 부정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직접적인 비판이 드러나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 02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 03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 04 가슴에 금이 갔다
- 05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 06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 07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 08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 09
- 10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 11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 12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 13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 14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 15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 16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 17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 18
- 19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 20 사람 가까이
- 21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 22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 23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 24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 25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 26 낡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17E수특

[나]

- 01 풀이 눕는다
- 02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03 풀은 눕고
- 04 드디어 울었다
- 05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06 다시 누웠다
- 07
- 08 풀이 눕는다
- 09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10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11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12
- 13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 14 발목까지
- 15 발밑까지 눕는다
- 16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 17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 18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 19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 20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풀'@17E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뤄니]

[가]

- ① '새로 생긴' '번지'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산울림'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가슴'의 '금'은(□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새파란 아침 하늘'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메시지'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널찍한 마당'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채석장 포성'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굴뚝 연기'는 (□관찰은 / □안 관찰은 / □돌 다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예전'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예전' '사람'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① 1연의 '풀'은 (□능동적 / □수동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동풍'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날이 흐린'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2연의 '풀'은 (□능동적 / □수동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바람'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발목까지 눕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 나 모두 비유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② 가, 나 모두 대비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④가와 달리 나는 대상의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이 지닌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O / X
- ⑤가와 나 모두 유사한 형태의 시구를 반복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X





- ⑥ 가와 달리 나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바탕으로 시상을 마무리짓고 있다. O/X
- ⑦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달하고 있다. O/X
- ⑧ 가와 나 모두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⑨ 가와 달리 나는 작품의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 있다. O/X
- ⑩ 가와 달리 나는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가 번갈아가며 드러나고 있다. O/X



문학> 고전소설편>

- 01 두 부인이 이 말을 듣고는 손으로 무릎을 치며 말했다.
- 02 “몇 년 전 우화암에 있는 여승 묘혜가 나에게 말하기를 신성현의 사 소저는 용모가 아름다울뿐더러 덕성까지 갖추어 참다운 요조숙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좋은 신붓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라버니께 미처 전하지 못했습니다.”
- 03 유 소사가 말했다.
- 04 “누이와 매파의 말을 들으니 그 처자가 뛰어난 듯하다. 그러나 혼인이란 큰일을 경솔하게 결정할 수 없으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는데…….”
- 05 두 부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 06 “좋은 방법이 있나이다. 내 집에 당나라 사람이 그린 귀한 관음 화상이 있는데 마침 우화암으로 보내려고 하는 터입니다. 묘혜에게 이 화상을 주어 사 씨 집으로 가서 관음찬(觀音讚)\*을 받아 오게 하면 사 소저의 재주를 알 것입니다. 그러면 묘혜가 소저의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이니 좋지 않겠습니까?”
- 07 유 소사가 웃으며 말했다.
- 08 “참으로 묘한 생각이로다.”
- 09
- 10 [중략 부분 줄거리] 묘혜는 유 소사의 청을 받아들여 사 급사의 집으로 가서 사 소저를 만난 후 부탁하여 관음찬을 받아 유 소사의 집으로 돌아온다.
- 11
- 12 유 소사가 물었다.
- 13 “자세히 알아보았는가?”
- 14 묘혜가 말했다.
- 15 “그 소저는 족자 속의 사람과 같더이다.”
- 16 그러고는 급사 부인과 소저와 함께 대화한 내용을 낱낱이 말했다. 유 소사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족자를 걷고 글을 보았다. 글 뜻이 맑고 아름다우며 필법이 훌륭하여 흠잡을 곳이 조금도 없었다. 또 소저의 성품이 온화하고 유순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7 “관음보살은 성스러운 여인이라. 생각하건대 주나라 때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과 같고 문왕의 아내인 태사\*와도 같도다. 자고로 부부의 화목과 자손의 번창은 부인의 일인데도 공허한 산속에 외롭게 있음이 어찌 본심이리오. 순임금의 신하였던 후직은 농사를 일으며 세상을 도왔고, 백이와 숙제는 충절을 지켜 굶주려 죽었으니, 도의 근본은 같지만 다만 서로의 처지가 다르이다. 내 화상을 바라보니 흰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으니 그 사람됨을 대강 알지라. 슬프다! 관음보살은 어찌하여 여기에 계신고? 긴 대나무 수풀에 하늘이 찬데 바다 물결이 만 리로다. 어진 덕이 세상에 비치니 세상 만물 누가 아니 공경하리오. 꽃다운 이름이 오랜 세월 남으리로다. 내 그 덕을 찬양함에 눈물이 흘러 바다가 되는구나.”
- 18 유 소사가 이 글을 보고는 매우 놀라며 말했다.
- 19 “기특하고 기특하다. 예로부터 관음찬을 지은 자가 많았지만 일찍이 이렇게 잘 지은 경우는 없었도다. 열세 살 어린 여자의 식견이 이 정도일 줄 어찌 알았으리오. 이 여자가 진정 내 아들의 신붓감이니 어찌 혼인시키지 않으리오.”
- 20 이윽고 한림을 불러 글을 보여 주며 말했다.
- 21 “네 능히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 22 한림이 글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탄복하였다.

- 23 묘혜가 하직하며 말했다.
- 24 “소승이 귀댁의 혼사를 직접 봐야 마땅하지만 어지러운 속세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탓에 남악에 계시는 스승께서 빨리 돌아오라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내일 남악으로 떠나고자 하옵나니 청컨대 관음화상을 암자에 모시고자 하나이다.”
- 25 두 부인이 말했다.
- 26 “사정이 그러니 섭섭하지만 어찌겠소. 이 화상은 애초에 스님께 시주하였으니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오.”
- 27 유 소사가 비단을 주며 은혜에 답하니 묘혜가 사례하고 떠났다.
- 28 유 소사와 두 부인이 상의하며 말했다.
- 29 “매파를 사 씨 집으로 보내 청혼하리라.”
- 30 즉시 매파 주 씨를 보내니, 주 씨가 사 씨 집에 가서 급사 부인에게 인사하고 말했다.
- 31 “유 소사에게 아들이 있는데 풍채가 세상에 제일인 까닭에 많은 매파가 모여들었지만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사옵습니다. 그러는 중 귀댁 소저의 용모가 아름답고 덕이 밝음을 아시고는 혼인을 청하십니다. 소저께서 유 씨 집안과 혼인을 하시면 높은 벼슬아치의 부인이 됨과 동시에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32 급사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주저하다가 딸의 방으로 가서 소식을 알렸다.
- 33 “네 비록 규종 여자지만 총명하니 의견을 듣고자 하노라.”
- 34 소저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 35 “제가 들은 바로는 유 소사는 현명한 재상이라 하니 그 집안과 혼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그런데 매파의 말을 들으니 부귀와 용모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밝은 덕을 소중하게 간직한 우리 조상을 욕보이는 말이니 혼인이 마땅치 않은 듯하나이다.”
- 36 부인 또한 소저의 말을 바르게 여겨 주 씨에게 말했다.
- 37 “유 소사께서 딸의 재주와 용모를 잘못 들으시고 구혼하시는 것이라. 아이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성장하여 배운 것이 없으니 귀한 집안과 혼인함이 마땅하지 않은지라. 돌아가 이대로 고하라.”
- 38 주 씨가 여러 번 간청했지만 부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돌아와서 그대로 고했다. 유 소사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 씨가 사 씨 집에서 나는 대화 내용을 자세히 묻고는 말했다.
- 39 “내가 변변치 못했도다.”
- 40 즉시 주 씨를 물리치고 신성현의 지현\*을 찾아가서 말했다.
- 41 “사 씨 집과 혼인하고자 매파를 보냈더니 회답이 여차여차한 것을 보니 매파가 실수를 한 탓이라. 이제 선생이 나를 위하여 사 씨 집을 방문해 주면 고맙겠소.”
- 42 지현이 말했다.
- 43 “어찌 선생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리오. 사 씨 집에 가서 어떻게 말을 전하리까?”
- 44 유 소사가 말했다.
- 45 “먼저 사 급사의 맑은 덕을 칭송하고 다음으로 소저의 덕성을 칭송하면 반드시 혼인을 허락하리다.”

-김만중, '사씨남정기'@17E수특

\*관음찬: 관음보살의 공덕을 찬양하여 부르는 노래나 글귀.

\*태임: 문왕의 어머니로 성품이 뛰어나고 덕이 높았으며 특히 자식 교육에 남달랐다고 함.

\*태사: 문왕의 아내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는 데 정성이 높아



어머니로서 칭송이 높았음.

\*지현: 현의 으뜸 벼슬아치.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O/X
- ② 작품의 군데군데 서술자가 개입하여 서사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O/X
- ③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④ 선과 악의 대결을 통해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O/X
- ⑤ 인물의 내부에서의 갈등과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구조가 모두 드러나 있다. O/X
- ⑥ '두 부인'은 '유 소사'의 첫 번째 부인으로, '유 소사'와 함께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인물이다. O/X
- ⑦ '두 부인'은 '유 소사'와의 대화 이전에 '사 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O/X
- ⑧ '묘혜'는 '유 한림'에게 '사 씨'가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글솜씨를 지녔음을 전달하고 있다. O/X
- ⑨ '사 씨'와 '유 씨' 가문은 과거에 서로 갈등이 있었다. O/X
- ⑩ '유 한림'은 '사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사 씨'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다. O/X
- ⑪ '유 소사'는 자신의 혼례 상대인 '사 소저'가 지은 관음찬을 보고 탄복하였다. O/X
- ⑫ '묘혜'는 '유 소사'의 선물을 거절하고 목적지로 떠난다. O/X
- ⑬ '유 소사'와 '사 씨' 모두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이 존재한다.\* O/X
- ⑭ '유 소사'와 '사 씨'는 모두 상대방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O/X
- ⑮ '사 씨'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 물질적 측면보다 정신적 측면을 더 높은 기준으로 두고 있다. O/X
- ⑯ '주 씨'는 '유 소사'와 '사 씨'의 집을 여러 번 오가며 '유 소사'의 뜻을 전했지만 결국 목적인 바를 달성하지 못 했다. O/X
- ⑰ '유 소사'는 '주 씨'에게서 자세한 소식을 듣고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⑱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명목 아래 결혼 당사자들의 선택권이 반영되지 못 했던 당시의 사회상이 드러나 있다. O/X



문학> 현대소설편>

01 [앞부분 줄거리] '나'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 샐러리맨 부부가 비교적 많이 사는 마을]'에 사는데, 이 마을에는 가끔 곳을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내와 '나'는 이를 불길하게 여길 만큼 소심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애써 외면한다.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아내와 '나'는 담 위에 놓인 흰 고무신짝을 발견한다. 고무신 짝을 불길하게 여긴 아내는 '나' 몰래 그것을 다른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고, '나'는 '큰 산'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유년의 비 오는 어느 저녁, 버려진 '지까다비\*' 짝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열흘 후 담 밑에서 다시 그 고무신 짝이 발견된다.

02

03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염병 돌듯이.”

04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혈떡거리듯이 지껄었다.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 내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을씨년스러운 느낌 섞어 쳐다보았다.

05 “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06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07 “그때 그 '[고무신짝]'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08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09 “무엇이?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었다는 말인가?”

10 “그렇지요.”

11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되며 말하였다.

12 “왜?”

13 “왜라뇨,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14 “던지긴 어느 집으로 던졌어?”

15 “몰라요.”

16 “…….”

17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신 짝이 떨어진 것을 본 그 어느 집의 부부들도 찌어한 느낌에 휘어 감기며 간밤 내 근처에서 들리던 굵가는 팽과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 집에건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 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옮겨 보내고, 제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 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하는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이네 집에서 영이네 집으로, 영이네 집에서 웅이네 집으로, 웅이네 집에서 건이네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이 없이]' 그 고무신 짝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18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아내는 당장은 웃을 경향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까지 극성맞게 들어온 이놈의 고무신 짝을 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이미 없었다.]'

19 “대체 저놈의 것을 어쩌지?”

20 나는 이미 액투성이 때가 엉기엉기 묻은 듯한 그 고무신 짝을 만지기도 싫어서, 엇비슷이 건너다보며 투덜거렸다.

21 “어찌긴 어째요. 놔두세요, 내가 처리할게.”

22 아내는 독 오른 표정이 되며, 악착같이 해보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23 “처리하다니, 어떻게?”

24 “아주 멀리 보내지요. 이따가 밤에.”

25 “산에라도 가져다가 버릴 요량인가?”

26 “뭣하러 산에 가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질 수는 없는 것 아녜요.” 하고 아내는 발끈하며 다시 말하였다.

27 “밤에 저놈의 걸 들고 버스 타고 멀리 가져갈 테예요. 하다못해 '[동빙고동]'에라도.”

28 “어러러.”

29 나는 입을 벌리며, 악착같이 해볼 기세인 시뻘게진 아내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30 동시에 초등학교 4학년 적의 그 '지까다비' 짝과 그때 그 '큰 산'이 구름에 껍북 가려졌던 교묘한 산천을 떠올렸다.

31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32 내가 나지막하게 혼잣소리로 중얼거리자, 아내도 나를 귀신 내리고 있는 박수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33 “…….”

34 [A]『그 ‘큰 산’은 청빛이었다. 서쪽 하늘에 늘 덩더뭉이 웅장하게 퍼져 있었다. 아침저녁으로 혹은 네 철을 따라 표정은 늘 달랐지만, 근원은 뿌리 깊이 일관해 있었다. 해 뜨기 전 새벽에는 청청한 빛으로 싱싱하고, 첫 햇볕이 쬐면 산머리에서부터 백금색으로 빛나고, 햇볕 속의 한낮에는 머물러 물러앉은 청빛이었다. 해 질 녘 저녁에는 골짜기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이 거뭇게 윤곽을 드러내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 간다. 봄에는 봉우리부터 여드러워지고, 겨울이면 흰색으로 험준해진다. 가을에는 침착하게 물러앉고, 여름이면 더 높아 보인다. 그 ‘큰 산’ 쪽으로 셋바람이 불면 비가 왔고, ‘큰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맞바람이 불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다. 그 ‘큰 산’은 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형태 없는 넉넉함으로 자리해 있었다. 그 ‘큰 산’이 그곳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뿌리 깊게 웅거해 있다는 것이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35 깊숙하게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36 아, 그 ‘큰 산’, ‘큰 산’.

37 그날 밤 아내는 악착같이 해볼 기세로, 시뻘게진 얼굴로 그 고무신 짝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 싸 가지고 어디론가 나갔다가, 아홉시가 지나서야 '[비시시 웃으며]' 들어섰다. 과연 나갈 때의 몽뚱그려진 표정은 가셔지고,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 놓은 듯이 분위기가 한결 개운해져 있었다.

38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물었고 아내도 구태여 아무 소리도 안 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로는 '[서로 존중]'해 줄 줄을 알고 있었다.

-이호철, '큰 산'@17E수특

\* 지까다비: 일본식 작업용 신발.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02\_ [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작품 인물의 심리를 주관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O/X
- ② 서술자는 객관적인 자세로 작품 속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O/X
- ③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작품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O/X
- ④ 과거 상황에 대한 중심 인물의 회고가 드러나 있다. O/X
- ⑤ 이야기가 진행되며 중심 인물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O/X
- ⑥ 작품이 진행되며 인물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O/X
- ⑦ 비유적 표현으로 상황에 대한 인물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⑧ 상징적 소재의 향방이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다. O/X
- ⑨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O/X
- ⑩ 인물들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독백이 번갈아 제시되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⑥ '나'가 '큰 산'을 갈망하는 것은 '흰 고무신'을 마음껏 버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O/X
- ⑦ '동빙고동'은 아내에게 '큰 산'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O/X
- ⑧ '아내'가 '비시시 웃으며' 들어선 까닭은 '큰 산'과 같은 곳에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O/X
- ⑨ [A]에 묘사된 '큰 산'의 모습은 '큰 산'이 지닌 절대적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O/X
- ⑩ '큰 산이 안보여서 이'렇다는 '나'의 대사는 '큰 산'이, '모두'가 겪는 '흰 고무신'사건과 같은 문제를 영구히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드러낸다. O/X
- ⑪ '서로 존중'하는 모습은, 사람들이 '큰 산'과 같은 존재 없이도 사람들 사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X

03\_ <보기>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미국의 사회학자 W.F.오그본이 주장한 문화지체(Cultural Lag) 이론은 물질 문화의 변화와 발달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오그본은 문화를 두 종류의 하위 갈래로 구분하며 기술을 포함한 물질 문화(material culture)와 가치관, 신념, 규범, 제도 및 사회적 상호 작용 양식 등을 포함하는 비물질적인 적응적 문화(adaptive culture)로 구분하고, 기술 변화의 급속도와 양적인 누적으로 인하여 비물질 문화의 변화와 적응은 항상 물질 문화의 변화의 발달의 속도를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문화 지체론을 제기하였다.

이호철의 '큰 산'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이론 물질 문화와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비물질적 문화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산업화를 바탕으로 한 주인공과 마을 사람들의 지적 측면이 물질 문화라면, '흰 고무신'으로 대변되는 미신 문화는 비물질 문화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흰 고무신'이 야기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인 유년시절의 '큰 산'을 갈망하게 된다. 이 공간은 추상적이며 정신적인 공간이지만 일시적으로나마 물질, 비물질 문화 사이의 간극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문화 지체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나'와 같은 이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의 '고무신 짝'에 대한 태도는, '문화 지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O/X
- ② '어느 집 담장 너머'는 우리 집만 아니면 된다는 '아내'의 이기주의가 드러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O/X
- ③ '대우'와 '겪는 것'의 차이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O/X
- ④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이 없'는 상황인 인물들이 마음 속에 '큰 산'과 같은 공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O/X
- ⑤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은 '우리 부부'가 이웃들과 함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문학> 수.회.시편>

- 01 나는 지금 보름달 아래 서 있다.
- 02 나는 보름달을 좋아한다. 보름달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예외 없이 싱겁고 평범하게 마련이라면, 나는 내가 그렇게 싱겁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도 하는 수 없다.
- 03 내가 가진 새벽달의 기억은 언제나 한기(寒氣)와 더불어 온다. 나는 어려서 과식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 문에 내가 그 하얗게 깔린 서릿발을 밟고 새벽달을 쳐다보는 것은 으레 옷매무새도 허술한 채 변소 걸음을 할 때였다. 그리고 그럴 때 바라보는 새벽달이란 내가 맨발로 밟고 있는 서릿발보다도 더 차고 날카롭게 내 가슴에 와 닿곤 했었다. 따라서 그것은 나에게 있어 달의 일종이라기보다 서늘 푸른 비수나 심장에 닿아진 얼음 조각에 가까웠다고나 할까. 게다가 나는 본래 잠이 많아서 지금도 내가 새벽달을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선잠이 깨었을 때다.
- 04 새벽달보다는 초승달이 나에게 한결 친할 수 있다. 개나리, 복숭아, 살구꽃, 벚꽃 등이 어우러질 무렵의 초승달이나 으스스달이란 그 연연(娟娟)하고 맑은 봄밤의 혼령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소식(蘇軾)의 ‘봄 저녁 한 시각은 천 냥에 값하나니, 꽃에는 맑은 향기, 달에는 그늘’이라고 한 시구 그대로다. 어느 것이 달 빛인지 어느 것이 꽃빛인지 분간할 수도 없이 서로 어리고 서려 있는 봄날의 정취란 참으로 흘러가는 생명에 한스러움을 느끼게 할 뿐이다.
- 05 그러나 그렇단들 초승달로 보름달을 거울 수 있으랴. 그것은 안 되리라. 마침 어우러져 피어 있는 개나리, 복숭아, 벚꽃 등이 아니라면, 그 연한 빛깔과 맑은 향기가 아니라면, 그 보드라운 숨결 같은 미풍이 아니라면, 초승달 혼자서야 무슨 그리 위력을 나타낼 수 있으랴. 그렇다면 이미 여건(與件)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초승달이 아닌가.
- 06 보름달은 이와 달라 벚꽃, 살구꽃이 어우러진 봄밤이나, 녹음과 물로 덮인 여름밤이나, 만산에 수를 놓은 가을밤이나, 천지가 눈에 싸인 겨울밤이나, 그 어느 때고 그 어디서고 거의 여건을 타지 않는다. 아무것도 따로 마련된 것이 없어도 된다.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물이면 물, 수풀이면 수풀,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족하다. 산도 물도 수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도 좋다. 머리 위에 보름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고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고 황홀하고 슬프고 유감한 것이다.
- 07 보름달은 온밤 있어 또한 좋다. 초승달은 저녁에만, 그믐달은 새벽에만 잠깐씩 비치다 말지만, 보름달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로 하여금 온밤을 누릴 수 있게 한다.
- 08 이렇게 보름달은 온밤을 꼭 차게 지켜 줄 뿐 아니라, 제 자신 한쪽 귀도 떨어지지 않고, 한쪽 모서리도 이 울지 않은 꼭 찬 얼굴인 것이다.
- 09 어떤 이는 말하기를 좋은 시간은 짧을수록 값지며, 덜 찬 것은 더 차기를 앞에 두었으니 더욱 귀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필경 이것은 관념(觀念)의 유희다. 행운(幸運)이 비운(悲運)을 낳고, 비운이 행운을 낳는다고 해서 행운보다 비운을 원할 사람이 있을 까.
- 10 나는 초승달이나 그믐달같이 병적(病的)이며 불완전한 것, 단편적인 것, 나아가서는 첨단적(尖端的)이며 야박(野薄)한 것 따위들에 만족할 수 없다.
- 11 나는 보름달의 꼭 차고 온전히 둥근 얼굴에서 고전적인 완전미와 조화적인 충족감을 느끼게 된다.

12 나는 예술에 있어서도 단편적이고 병적이며 말초적인 것을 높이 사지 않는다. 그것이 설령 기발하고 예리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전성과 거기에서 빛어지는 무게와 깊이와 넓이에 견줄 수는 없으리라.

-김동리, '만월滿月'@17E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서술사 과거의 추억과 경험을 환기하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O/X
- ② 공간의 이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O/X
- ③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O/X
- ④ 대상이 지닌 장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⑥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O/X
- ⑦ 대조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⑧ 인용의 방법을 통해 대상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다.\* O/X
- ⑨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⑩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대상과의 재회를 희망하고 있다. O/X



답\_☀️🌙☆1705호

문법>

- 01\_ X / X-스첨가도 있음 / X / O / X-탈락과 교체 한 번씩  
X / X-교체 / O / X / X-홀받침으로 교체
- 02\_ O / X-8개 / X-실질 4개 자립 1개 / O / O
- 03\_ 피동 / 사동 / 피동 / 사동 / 피동 / 피동 / 피동 / 사동 / 피동 / 사동
- 04\_ 밝은 표정의 주체가 모호-밝은 표정의 김 원장 혹은 밝은 표정의 사람들로 수정  
세가가 둘을 만난 것인지 세가와 이 선배가 강사를 만난 것인지가 모호 김 원장이 쓴 책인지, 소유의 책인지를 알 수 없음  
둘이 하는지 따로 하는지를 모름 세마만을 안 만난 것인지 세마와 함께 다른 사람도 만난 것인지를 알 수 없음
- 05\_ O / O / X-종성 / O / O
- 06\_ 노고 / 보전 / 수반 / 재고 요람 / 교섭 / 보존 / 논박 기별 / 고찰 / 필적 / 논조

문학> 고전문문편>

- 01\_ [가]\_#임그리워  
[나]\_#계정장수 잘난척마  
[다]\_#두꺼비는 깎치지마
- 02\_ 안 / 안 / 관 / 관 / 관  
안 / 현학적 / 관  
안 / 약 / 강 / 안
- 03\_ X / O / X / O / X  
X / O / O / O / X

문학> 현대운문편>

- 01\_ [가]\_#성북동 비둘기 불쌍해 #개발의 폐해  
[나]\_풀의 생명력
- 02\_ [가]\_안 / 안 / 안 / 관 / 관  
관 / 안 / 둘 / 관 / 관  
[나]\_수 / 안 / 안 / 능 / 안 / 안
- 03\_ O / O / O / O / O  
X / O / O / X / X

문학> 고전소설편>

- 01\_ #결혼의 조건 #사씨의 품격
- 02\_ X / X / O / X / X  
X / O / X-소사 / X / X  
X / X / O / X / O  
X / X / X

문학> 현대소설편>

- 01\_ #이기주의 #미신 #과거에 대한 그리움
- 02\_ X / X / X / O / X  
X / O / O / O / O
- 03\_ O / O / O / X / X  
X / X / X / O / X  
X

문학> 수.희.시편>

- 01\_ #다른달 말고 보름달이 제일 좋아
- 02\_ O / X / X / O / X  
O / O / X / O / X



+@ / +ㅈㅌㄴㅅㅍ

**단[어]의[의]미**

요람搖籃\_사물의 발생지나 근원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노고勞苦\_힘들여 수고하고 애씀.

보존保存\_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

보전保全\_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미래의 의미를 담아 쓰임\*

논박論駁\_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

논조論調\_논하는 말이나 글의 투.

기별奇別\_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함.

수반隨伴\_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다.

재고再考\_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

고찰考察\_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함.

필적匹敵\_능력이나 세력이 엇비슷하여 서로 맞섬.

교섭交涉\_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

**[예]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오륵가五倫歌@주세붕@17E수특**

**해적 병설**

- 01 사람들아 사람들아 이말씀좀 들어부아
- 02 이말씀을 안들으면 사람구실 못하느니
- 03 이말씀을 잊지않고 배워야지 않겠는가
- 04
- 05 아버지는 낳으시고 어머니는 기르셨네
- 06 부모님이 아니던들 내몸똥이 있었겠나
- 07 이 은혜를 갚고파도 하늘처럼 끝없도다
- 08
- 09 종과주인 당연지킬 예절누가 만들었나
- 10 벌과개미 여왕일꾼 미물들도 아는구나
- 11 우리종들 주인님을 속이지나 마옵시다
- 12
- 13 남편님이 일할적에 도시락을 챙겨가서
- 14 전달할때 눈썹까지 끌어올려 바칩니다
- 15 고마우신 우리남편 손님처럼 대접하네
- 16
- 17 응애응애 엄마젖을 형님먹고 나도먹고
- 18 아이오아 아우님이 어머니널 사랑하심
- 19 형제간에 불화하면 개돼지라 부를테다
- 20
- 21 늙으신은 부모처럼 어르신은 형들처럼
- 22 공손하게 안대하면 짐승이랑 뭐가달라
- 23 마주치면 직각인사 절하고야 말겠어요





+@ / +ㅈㅌㄴㅅㅌ

현대어 해설

- 01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으나,
- 02 이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것이니,
- 03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배우고야 말 것입니다. [01수]
- 04
- 05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니
- 06 부모님이 아니셨더라면 이 몸이 없었을 것이다.
- 07 이 덕을 갚고자 하니 하늘같이 끝이 없구나. [02수]
- 08
- 09 종과 상전의 구별을 누가 만들어 내었던가
- 10 별과 개미들이 이 뜻을 먼저 아는구나.
- 11 한 마음에 두 뜻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속이지나 마십시오. [03수]
- 12
- 13 남편이 밭 갈러 간 곳에 밥 담은 광주리를 이고 가서,
- 14 밥상을 들여오되 남편의 눈썹 높이까지 공손히 들어 바칩니다.
- 15 진실로(친하고) 고마우신 분이시니 손님을 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04수]
- 16
- 17 형님이 잡수신 젖을 나까지 먹습니다.
- 18 아아,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 19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개나 돼지라 할 것입니다. [05수]
- 20
- 21 늙은이는 부모님과 같고, 어른은 형과 같으니,
- 22 이와 같은데 공손하지 않으면 짐승과 어디가 다른 것인가.
- 23 나로서는(나이가) 노인과 어른들을 맞이하게 되면(많으시다면) 절 하고야 말 것입니다. [06수]

원작품

- 01 사름 사름마다 이 말씀 드려스라
- 02 이 말씀 아니면 사름 아니니
- 03 이 말씀 닛디 말오 비호고야 마로리이다 [01수]
- 04
- 05 아버님 날 나히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 06 부모父母웃 아니시면 내몸이 업실났다
- 07 이 덕을 갓혀려 하니 하늘 7이 업스샷다 [02수]
- 08
- 09 종과 항것▪ 과를 니라셔 삼기신고
- 10 별와 가여미야 이 뜨들 몬져 아이
- 11 혼 모음에 두 뜯 업시 속이디나 마옵새이다 [03수]
- 12
- 13 지아비 밭갈러 나간 디 밥고리 이고 가
- 14 반상飯床▪ 을 들오디 눈썹의 마초이다
- 15 진실노(친코) 고마오시니 손▪ 이시나 득록실가 [04수]
- 16
- 17 형님님 자신 저줄 내 조쳐 머궁이다
- 18 어와 더 아스야 어마님 너 스랑이야
- 19 형제兄弟웃 불화不和하면 개 도티▪ 라 허리라 [05수]
- 20
- 21 늙으니는 부모 7고 얼운은 형 7특니
- 22 7튼디 불공不恭▪ 하면 어디가 득를고
- 23 날노셔 7지어시든▪ 절호고야 마로리이다 [06수]

시어뤄니

- 종과 항것\_종과 주인
- 반상\_밥을 차린 상
- 손\_손님
- 개 도티\_개와 돼지
- 불공\_공손하지 못함
- 날노셔 7지어시든\_나이가 많으시거든, 내가 만나게 되면

밝은 미래☀

노력과 전<sup>략</sup>



# "유자차@브로콜리너마저"

해적 ☼[해] ) [달] ☆[별] 실력가늌자 ✍ \_1706호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껌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온기가 필요했잖아,.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어. 이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1706\_ [문법]+[오류가]+[대바람 소리]+[강우]+[황새 결승]+[제3인간형]



☀️) ☆1706호

문법>

01\_ '음운 현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기>에 열거된 여러 개념들을 다음 그림의 세부 항목에 채워 보세요. 제대로 알고 있다면 모든 칸이 자연스럽게 딱 맞을 것입니다. 각 요소들은 한 번씩만 써야 합니다.

**보기**

- 교체
- 자음군 단순화
- ㅅ첨가
- 첨가
- 모음 탈락
- ㄴ첨가
- 비음화
- 연음화
- 자음 탈락
- 축약
- 유음화
- 이중모음되기
- 구개음화
- 거센소리되기
- 음절 끝소리 규칙
- 탈락
- 된소리 되기
- 동화

[음운 현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_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기>를 잘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 ㉠약이 쓰다
- ㉡돈을 쓰다
- ㉢힘을 쓰다
- ㉣글씨를 쓰다
- ㉤우산을 쓰다
- ㉥누명을 쓰다
- ㉦인생이 쓰다
- ㉧일기를 쓰다

㉨김밥을 왜 그렇게 마니?  
㉩다른 사람은 말고 당신만이 드세요.  
㉪공부하느라 당이 떨어진 당신, 많이 드세요.

- ① ㉠~㉣의 밑줄 친 단어를 '다의어'의 관점에서 묶어 보세요.  
⇨
- ② ㉠~㉣의 밑줄 친 단어를 '동음이의어'의 관점에서 묶어 보세요.  
⇨
- ③ ㉤, ㉥, ㉦의 밑줄 친 부분은 서로 (□다의 / □동음이의 / □유의 / □동의)관계로 볼 수 있다.
- ④ ㉤, ㉥, ㉦의 밑줄 친 부분은 (□형태는 같으나 발음이 다른 / □형태는 다르나 발음이 같은 / □형태와 발음이 모두 같은 / □형태와 발음이 모두 다른)데서 비롯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03\_ 합성어 중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지식과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①~⑩의 짜임이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를 밝혀 보세요.

**보기**

어근과 어근이 만나 형성된 단어인 합성어는 다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 문장의 일반적인 순서에 맞는 합성어들의 모임으로,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 문장의 일반적인 순서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합성어들의 모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 ① 체언(명사)과 체언(명사)으로 구성된 합성어는 (□통사적 /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예] 집밥
- ② 관형어와 체언(명사)가 결합되어 형성된 합성어는(□통사적 /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예] 새집
- ③ 용언과 용언의 어간(근)이 연결어미를 이용해 형성된 합성어는 (□통사적 /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예] 돌아가다
- ④ 부사(어)+용언의 어간(근)의 짜임으로 된 합성어는 (□통사적 /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예] 빨리가다
- ⑤ 주어(체언)+조사가 생략된 유형의 합성어는 (□통사적 /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예] 힘내다



- ⑥ 부사(어)+부사(어)로 된 첩어로 된 합성어는(□통사적 /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예] 곧잘
- ⑦ 용언과 용언의 어간이 연결어미 없이 형성된 합성어는(□통사적 /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예] 굳세다
- ⑧ 용언의 어간에 명사가 연결어미 없이 형성된 합성어는(□통사적 /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예] 늦봄
- ⑨ 부사가 체언 앞에 붙은 합성어는(□통사적 /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예] 부슬비
- ⑩ 한자로 된 어휘 중, 우리말의 어순과 다른 방식을 보이는 합성어는(□통사적 /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예] 독서

04\_ '서술어'에 대한 지식과 아래의 <보기>들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보기1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성질, 상태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으로, ①무엇이 으쁘ㅎ드. ②무엇이 으쁘ㅎ드. ③무엇이 무엇으드.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기2

- ㉠해적이 운동한다.
- ㉡해적이 안 예쁘다.
- ㉢해적이 선장이다.

보기3

학교 문법의 9품사  
\_\_\_\_사 / \_\_\_\_사 / \_\_\_\_사 / \_\_\_\_사 / \_\_\_\_사  
\_\_\_\_사 / \_\_\_\_사 / \_\_\_\_사 / \_\_\_\_사

- ① 보기2 ㉠~㉢의 밑줄 친 부분을 활용하여 보기1 ①~③ 밑줄 친 부분의 초성을 완성된 글자로 바꾸어 보세요.  
⇒
- ② 보기3 9품사의 빈칸을 채워 보고, 완성된 보기3을 바탕으로 보기1의 ①~③이 보기3의 품사 중 각각 어느 품사에 대응하는지를 써 보세요.  
⇒
- ③ ①과 ②로부터, 우리말(학교 문법)의 서술어는 크게 (□1 / □2 / □3)가지 종류이며, 각 서술어는 품사 (\_\_\_\_사 / \_\_\_\_사 / \_\_\_\_사)와 대응됨을 알았다!

05\_ <보기>의 어휘들을 잘 보고 아래의 괄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어휘는 한 번 씩만 사용합니다.

보기

음독音讀 / 묵독默讀 / 속독速讀 / 정독精讀 / 통독通讀  
체득體得 / 취득取得 / 갱신更新 / 경신更新 / 맹신盲信  
종신終身 / 숭배崇拜

- ① 그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 ]토록 물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았던 무서운 편식가로 알려져 있다.
- ② 운전 면허를 [ ]했더라도 나만 빼고 다 미친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조심조심 차를 굴려야 한다. 깜빡이는 꼭 넣어야 한다.
- ③ 조용히, 속으로 한 글자 한 글자 [ ]했어야 하는 책임데 나도 모르게 그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읽고 말았다. 저자 홍성. 대
- ④ 자전거나 스케이트 같은 것들을 배울 때는 머리모만 이해하면 안 되고 직접 부딪혀 하나하나 [ ]해야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다. 연애도.
- ⑤ 고전 문물을 공부할 때에는 방해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지 좌우를 먼저 살피고 또박또박 [ ]해가며 작품을 직접 읽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 ⑥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문을 [ ]하는 사람이 느려 보여도 결국 문제를 풀 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
- ⑦ 시간에 쫓겨 그저 [ ]에 목적을 두고 눈으로만 글을 읽다가 다 읽고나서 시험지의 여백에 의문 부호만 남기는 사람들은 회개해라.
- ⑧ 매 시험을 볼 때마다 최고 점수가 [ ]되는 어여쁜 내모습을 그려본다. 나는 아마 잘 될거다. 잘 못 될 이유가 없으므로.
- ⑨ 주민 등록증을 [ ]하러 갔는데 이전 사진과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따로 불려가 포토타 사용 여부를 집중 취조당했다. 자꾸 사진관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뭔가 저장하려는 것 같았다.
- ⑩ 제시문을 읽을 때는 부분부분 마음대로 끊어 읽는 것보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 ]하는 것이 결국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관찬은 방법이다.
- ⑪ 시험이 다가올수록 자꾸 미신을 [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도 육각 연필로 문제를 풀어야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기분 탓일 거다. 육각 연필은 잘 안굴러가서 좋다. 나는 육각 연필이 좋다. 사각사각 육각 연필이 좋다...
- ⑫ 선생님이나 강사님이 시험 봐 주는 거 아니다. 스스로의 실력 없는 무조건적인 [ ]은 금물이니, 단단한 실력을 바탕으로 부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문학> 고전문문편>

- 01 사름 사름마다 이 말슴 드러스라
- 02 이 말슴 아니면 사름이오 사름 아니니
- 03 이 말슴 잇디 말오 비호고야 마로링이다 <제 1수>
- 04
- 05 아바님 랄 나흐시고 어마님 랄 기르시니
- 06 부모(父母)웃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 07 이 덕(德)을 갑쁘려 하니 하날 7이 업스샷다 <제 2수>
- 08
- 09 동과 향것과 룰\* 뉘라셔 삼기신고
- 10 별와 가여미아 이 뵈들 몬져 아이
- 11 훈 ㅁ으매 두 뜯 업시 소기지나 마음생이다 <제 3수>
- 12
- 13 지아비 받 갈라 간 디 밥고리 이고 가
- 14 반상\*을 들오디 눈섭의 마초이다
- 15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 4수>
- 16
- 17 형(兄)님 자신 저줄 내 조처 머궁이다
- 18 어와 우리 으아 어마님 너 스랑이야
- 19 형제(兄弟)오 불화(不和)흐면 기도치\*라 흐리라 <제 5수>
- 20
- 21 늘그니는 부모(父母) 갖고 얼우는 형(兄) 곧튼니
- 22 가튼 디 불공(不恭)흐면 어디가 다룰고
- 23 랄로셔 ㅁ지어시든\* 절흐고야 마로링이다 <제 6수>

\*동과 향것과 룰: 종과 주인을.  
 \*반상: 밥상.  
 \*기도치: 개돼지.  
 \*랄로셔 ㅁ지어시든: 나이가 많으시거든.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뵈니]

- ① '사름'은 (□다수의 일반적인 / □특수한 몇명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말슴'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사름 아니니'의 '사름'은 (□도덕적 / □비도덕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하날 7이 업스샷' 상황은 (□고마움의 / □그리움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두 뜯'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두 뜯'은 (□평등의 / □위계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눈섭의 마초'는 모습은 대상을 (□섬기는 / □깰보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저지'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기도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해학적 / □비판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늘그니'와 '부모'는 (□동급의 / □우열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제 1수'는 작품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O/X
- ② '제 2수'에서는 비교와 대조의 기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O/X
- ③ '제 3수'에서는 신분을 넘어선 평등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④ '제 5수'에서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다. O/X
- ⑤ 각 수의 내용이 인과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O/X
- ⑥ 큰 틀로서의 도덕적 질서를 바탕으로 그에 속하는 다양한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O/X
- ⑦ 매 수마다 인물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⑧ 유교와 불교에서의 강조점에 기반을 두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⑨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⑩ 구와 구를 맞게 하여 운율감을 드러낸 부분이 있다. O/X
- ⑪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O/X
- ⑫ 시상이 진행되며 화자의 반성적 시각이 드러나 있다. O/X
- ⑬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 있다. O/X
- ⑭ 구체적 행위와 상황을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⑮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대바람 소리
- 02 들리더니
- 03 소소한 대바람 소리
- 04 창을 흔들더니
- 05
- 06 소설(小雪) 지낸 하늘을
- 07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 08 미담이에 가끔
- 09 그늘이 진다.
- 10
- 11 국화 향기 흔들리는
- 12 좁은 서실(書室)을
- 13 무료히 거닐다
- 14 앉았다, 누웠다
- 15 잠들다 깨어 보면
- 16 그저 그런 날을
- 17
- 18 눈에 들어오는
- 19 병풍의 '낙지론(樂志論)\*'을
- 20 읽어도 보고……
- 21
- 22 그렇다!
- 23 아무리 쪼들리고
- 24 웅송그릴지언정
- 25 - '어찌 제왕의 문에 둠을 부러워하라'
- 26
- 27 대바람 타고
- 28 들려오는
- 29 머언 거문고 소리……

-신석정, '대바람 소리'@17E수특

\*낙지론\_후한 말, 지조로 이름 난 선비인 중장통이 지었다  
는 글

[나]

- 01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 02 어디로 갔나,
- 03 밥상은 차려 놓고 어디로 갔나,
- 04 넓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 05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 06 어디로 갔나,
- 07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 08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 09 되돌아온다.
- 10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 11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 12 옆구리 담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 13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 14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 15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 16 나는 풀이 죽는다.
- 17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 18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 19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김춘수, '강우'@E17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가] ⇔

[나] ⇔

02\_출제자의 [시어뤄니]

[가]

- ① '그저 그런 날'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낙지론'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제왕의 문'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거문고 소리'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⑤ '조금 전'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맵싸한 냄새'는 (□화자를 / □대상을) 환기하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메아리'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담과'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비'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지금'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는 나와 달리 계절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O / X
- ② 가와 나 모두 현재의 기상 상황이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O / X
- ③ 가는 나와 달리 시상이 진행되며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O / X
- ④ 가와 나 모두 감각적 표현을 중심으로 시상이 진행되고 있다. O / X
- ⑤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며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O / X
- ⑥ 가와 나 모두 대상의 부재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 있다. O / X
- ⑦ 가와 달리 나는 부재하는 대상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O / X
- ⑧ 가와 나 모두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감각의 대상으로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O / X
- ⑨ 가와 나 모두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O / X
- ⑩ 가와 나 모두 의문형의 문장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O / X





## 문학 &gt; 고전소설편 &gt;

- 01 옛날 경상도 땅에 한 사람이 살고 있으니 대대 부자로 일 년 추수가 만석(萬石)이 넘으니, 그 사람의 무량대복(無量大福)을 가히 알지라. 일생 가산이 풍부하여 부러워할 것 없으며 이웃 사람이 덕을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더라. 그중 일가에 한 패악무도(悖惡無道)한 놈이 있어 동서를 가리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더니 하루는 홀연 이르러 구박하여 가로되,
- 02 “너희는 좋게 잘사는구나, 너 잘사는 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때문이니 우리 서로 같은 조상의 자손으로 너만 홀로 잘 먹고 잘 입어 부족한 것 없이 지내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느냐? 이제 그 재물을 반을 나누어 주면 무사하려니와 그러지 아니면 너를 살지 못하게 하리라.”
- 03 하고, 밤새도록 말도 안 되는 말을 무수히 하며 심지어 불을 놓으려 하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거동을 보고 그놈의 몸뚱 심사를 헤아리매 차마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가만히 주인 부자를 권하여 가로되,
- 04 “그놈을 그저 두지 말고 관가를 정하거나 감영(監營)에 의송(議送)을 하거나 하여 다시 이런 일 없게 함이 좋을까 하노라.”
- 05 하니, 그 부자 이 말을 듣고 옳게 여겨 가로되,
- 06 “이놈은 좀처럼 속이지 못할지라. 서울 올라가 형조(刑曹)를 정하여 후환을 없게 하리라.”
- 07 하고, 그놈을 이끌고 함께 서울로 올라오니라.
- 08 나 관원이 그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보고 서리에게 분부하여,
- 09 “뒷날 좌기\* 시(座起時)에 판결하리라.”
- 10 하고 아직 심문하지 못하더니, 여러 날이 되도록 좌기되기만 기다리며 그사이 서리나 찾아보고 낚이나 얻을 일로되, 제 이왕 그르지 아니하게 한 일을 전혀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 절통한 심사를 견디지 못하여 그놈 속히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지라. 그놈이 비록 놀기를 즐겨 허랑무도(虛浪無道)하여 천하를 돌아다니며 보고 들은 것이 너르고 겸하여 시속 물정을 아는지라.
- 11 이때 송사에 올라와 일변 친구도 찾으며 형조에 길을 뚫어 당상(堂上)이며 낭청(郎廳)이며 서리(胥吏) 사령(使令)까지 꺾으니, 자고로 송사는 눈치 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아무 탈 없이 이기노니, 이는 이른바 녹피(鹿皮)에 갈왈 자\*를 씌이라. 아무튼 좌기 날을 당하여 당상은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고 낭청들은 동서로 죽 벌여서 앉고 서리 등은 뒷마루에서 명을 받드는데, 그 엄숙함이 비할 데 없더라. 사령에게 분부하여,
- 12 “양측을 불러들이라.”
- 13 하고 계단 아래에 꿰어앉게 하여 분부하되,
- 14 “네 들으라. 부자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오. 제 자수성을 하여도 가난한 친척을 살리며 불쌍한 사람을 구휼해야 하거늘, 하물며 너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가업을 가지고 대대로 재물을 모아 만석 곶에 이르니 죽히 흥년에는 백성을 구제도 하거든, 너의 가까운 친척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하니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오. 어디 자손은 잘 먹고 어디 자손은 굶어 죽게 되었으니 네 마음에 어찌 죄스럽지 아니하라. 네 소행을 헤아리면 응당 죄를 물어 벌을 주어야 할 것이로되 그리하지는 않고 송사만 지게 하고 내치노니 네게는 이런 상덕(上德)이 없는지라. 저놈 달라 하는 대로 나눠 주고 친척 간 서로 의를 상치 말라.”

15 &lt;중략&gt;

- 16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 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곤 하면 무안이나 뵈리라.’
- 17 하고 다시 일어서 섬돌 아래 가까이 앉으며 고하여 가로되,
- 18 “소인이 천 리에 올라와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들음직한 이야기 한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 19 다 그 부자가 그제야 잔기침하며 말을 내어 왈,
- 20 “옛적에 피꼬리와 삿갓새와 따오기 세 짐승이 서로 모여 앉아 우는 소리 좋음을 다투되 여러 날이 되도록 결단치 못하였다.”
- 21 하루는 피꼬리 이르되,
- 22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송사하여 보자.”
- 23 하니 그중 한 짐승이 이르되,
- 24 “내 들으니 황새가 날짐승 중 키가 크고 부리가 길고 몸집이 커서 통랑\*이 있으며 모든 일을 곧게 한다 하기로 이르기를 황 장군이로 하노니, 우리 그 황 장군을 찾아 소리를 결단함이 어떠하겠는가?”
- 25 세 짐승이 옳이 여겨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매 그중 따오기란 짐승이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소견은 밝은지라. 돌아와 생각하되,
- 26 ‘내 비록 큰 말은 하였으나 세 소리 중 내 소리 아주 초라하니 날더러 물어도 나밖에 질 놈 없는지라. 옛 사람이 이르되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 아무렇게나 청축(請囑)\*이나 하면 필연 좋으리다.’

27 &lt;중략&gt;

- 28 피꼬리 부끄러워하며 물러나오자 삿갓새 또 들어와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묘하게 하여 아뢰되,
- 29 “소인은 녹수천산(綠水千山) 깊은 곳에 만학천봉(萬壑千峰) 기이하고 안개 피어 구름 되며 구름 걷어 다기봉(多奇峯)하니 별건곤(別乾坤)이 생겼는데 만장폭포 흘러내려 수정령을 드리운 듯 송풍은 소슬하고 오동추야 밝은 달에 아름다운 이내 소리 만첩산중에 가끔성 되오리니 뉘 아니 반겨 하리까.”
- 30 황새 듣고 또 판결하여 이르되,
- 31 “월락자규제(月落子規啼)하니 초국천일애(楚國千日愛)\*라 하였으니, 네 소리 비록 맑고 깨끗하나 심분 궁수(窮愁)\*하니 전정을 하면 가히 불쌍하도다.”
- 32 하니 삿갓새 또한 부끄러워하며 물러나거늘 그제야 따오기 날아들어 소리를 하고자 하되 저보다 나은 소리도 벌써 지고 물러나거늘 어찌할꼬 하며 차마 남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나 그 황새에게 약 먹임을 믿고 고개를 낮추어 한번 소리를 주(奏)하며 아뢰되,
- 33 “소인의 소리는 다만 따옥성이옴과 달리 풀어 고하울 일 없사오니 사또 처분만 바라고 있나이다.”
- 34 하되, 황새 놈이 그 소리를 문득 듣고 두 무릎을 탕탕 치며 좋아하여 이른 말이,
- 35 “쾌재(快哉)며 장재(壯哉)로다. 음아질타(吟啞叱咤)에 천인이 자폐(自斃)함\*은 옛날 항 장군의 위풍이요 장판교 다리 위에 백만 군병 물리치던 장익덕의 호통이로다. 네 소리 가장 웅장하니 짐짓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 36 하고 이렇듯 처결하여 따옥성을 상성으로 처결하여 주오니, 그런 짐승이라도 뇌물을 먹은즉 그르되게 판결하여 그 피꼬리와 삿갓새에게 못할 노릇 하였으니 어찌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하오리까.
- 37 이러한 짐승들도 물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잘하기로 그놈을 개아들 개자식이라 하고 비웃었으니, 이 제 서울 법관도 여차하



오니 소인의 일은 벌써 판이 났으며 부질없는 말하여 쓸데없으니 이제 물러가나이다. 하니, 형조 관원(刑曹官員)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 가장 부끄러워하더라.

-작자 미상, '황새 결승'@17E수특

- \*좌기: 관아의 으뜸 벼슬에 있던 이가 출근하여 일을 시작함.
- \*녹피에 갈알 자: 사슴 가죽에 쓴 가로알(曰) 자는 가죽을 잡아당기는 대로 일(曰) 자도 되고 왈(曰) 자도 된다는 뜻으로, 사람이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말을 좇아 이랬다저랬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통량: 국량(局量),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감싸 주며 일을 능히 처리하는 힘.
- \*청축: 청을 들어주기를 부탁함
- \*월락자규제하니 초국천일애: 달이 지고 두견새 슬피 우니, 초나라를 오래도록 그리워하리라.
- \*궁수: 곤궁하여 생기는 근심.
- \*음아질타에 천인이 자폐함: 호통치는 소리에 많은 사람이 자결함.

###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다. O/X
- ② 액자식 구성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③ 세태에 대한 풍자의 시선을 바탕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④ 우화를 삽입하여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O/X
- ⑤ 비정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대상의 해학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O/X
- ⑥ '부자'는 자수성가형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O/X
- ⑦ '그놈'은 '부자'에게 예를 갖추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⑧ '부자'와 달리 '그놈'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을 꾸민다. O/X
- ⑨ '부자'는 '그놈'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권유를 거절하고 소신껏 행동한다. O/X
- ⑩ '부자'는 송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며 '짐승'이야기를 전달한다.\* O/X
- ⑪ '좌기'에 여러 날이 걸린 이유는 '그놈'이 미리 '당상'을 찾아가 손을 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O/X
- ⑫ '부자'와 '그놈'의 '송사'는 '그놈'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O/X
- ⑬ '짐승'이야기의 '황새'는 '부자'에, '따오기'는 '그놈'에 대응되는 인물형으로 볼 수 있다. O/X
- ⑭ '따오기'는 '결단'의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황새'앞에서 자신있는 태도로 목소리를 뽐낼 수 있었다. O/X
- ⑮ '황새'는 '따오기'의 겸손한 태도에 진심으로 감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X



## 문학 &gt; 현대소설편 &gt;

- 01 일정한 수입이, 그것도 제달 제달에 꼬박꼬박 약속되는 것이 대견한 일이었다. 그리고 마음과 생활을 가다듬어 무얼 여유 있게 생각하고 내키지 않는 잡문을 끼적거리려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던 것을 마음먹고 쓸 수 있다고, 영도 어귀에 떠 있는, 어떤 때에는 주전자같이도 보이고 때로는 전진하는 탱크같이도 보이는 섬을 내다보며, 가슴을 쪽 벌려 크게 호흡도 하였다.
- 02 그러나 여름과 겨울, 방학이 두 번이나 지났고, 이제 학년 말도 몇 주일 남지 않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석은 한 편의 작품도 이룩하지 못하였고, 아쉬운 때 끼적여 들고 나가 돈과 바퀴 오던 잡문 하나도 쓸 여유가 없었다. 교편생활이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자질구레한 잡무가 꼬리를 물고 그칠 줄 몰랐다.
- 03 아이들과 아귀다툼하는 일, 수업은 하루에 세 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나, 스물네 시간 전 신경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쓰여지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 04 거기에 석의 집은 걸어서 한 시간 반, 그것도 전차나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반지빠르\* 위치에 있었다. 판자 울타리 너머에 꽃 한 포기 볼 수 없는 삭막한 길, 더욱이 비 오는 날이면 발목을 넘는 진창길을, 아침이면 눈을 비비며 걸어가다가 저녁이면 어두컴컴해서야 돌아오게 되는 석은, 피로에 지치어 밤이면 굶아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 05 한가하게 무얼 생각할 여유나, 팽팽한 마음으로 책상을 대하여 원고지 빈칸을 메울 육체와 정신적 기력이 없어졌다.
- 06 나른한 몸과 안개 낀 머리를 채찍질하여 책상을 대해 앉았다가는, 펜 진 손가락에 맥이 저절로 풀려지고 눈꺼풀이 스스로 덮여 질 때, 석은 모른다 하고 자빠져 누우면서 중얼거렸다.
- 07 “교육도 사내의 보람 있는 일이거나, 차라리 훌륭한 교육자가 되자!”
- 08 그러나 교육자로서 석은 아직 애송이었다. 아니 엑스트라의 자격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니, 또 이십 년, 마음의 지주였고 ‘생활의 목표’였던 그 길을 이제 일조에 ‘분필’로 바꾼다는 것이 자신을 배반하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제 자신에 충실하여 학교를 그만둔다면 또 그나마도 생활의 방편이 막히는 것 이었다. 직업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자신에도 엉거주춤하고 이러한 ‘자책의 채찍’을 맞으면서, 석은 점심밥 그릇과 원고지 권이 함께 들어 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벌써 십여 개월 날마다 삭막한 통근 코스를 흐리터분한 분위기 속에 학교에 왔다 갔다 하였다. 초조감만 복돋아졌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공허해 간다. 그리고 안일을 탐하여 현실과 타협하려고 들었다.
- 09 허탈한 마음으로 학교 주위의 바다 풍경을 즐기고, 이레 만에 찾아오는 일요일을 고대하는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
- 10 그가 조운에게서 정신적인 위압을 느낀 것은 그의 내면이 이러했기 때문이었다.
- 11
- 12 [중략 부분 줄거리] 조운은 석에게 미이의 편지를 보여 준다. 6·25 전쟁 전 가난한 문학도였던 조운은 전쟁이 터지자 처가에 숨어 지내며 세상의 추악한 면을 목도한다. 이후, 작가 생활을 포기하고 운수업을 하여 큰 성공을 이룬 조운은 우연히 부산역 앞에서 미이를 만난다. 미이는 전쟁 전 조운을 따르던 부유한 가정의 문학소녀인데, 전쟁으로 집안이 파산한 후 부산에서 취직 자리를 구하는 중이라고 조운에게 말한다.

13

- 14 이튿날부터 부산에서의 새 사업 계획에 분명한 틈을 타서, 나는 미이를 하루 한 번씩은 만났고, 그의 판잣 집에도 찾아가 보았다. 그 생활이란 말이 아니다. 꼼짝 못 하고 누워 있는 미이 아버지의 얼빠진 모양, 고생 모르고 늙던 어머니의 목판 장사하는 정경.
- 15 나는 미이의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러나 미이와 자주 만나는 사이 처음 순수했던 생각보다도 야심이 더 앞을 섰다는 것을 고백하네.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 미이에 대해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이 자신이 눈치챘을 것일세.
- 16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 줄 것에 생각이 미치었네.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 미이의 명망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 수입 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네. 이 계획을 말했더니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리던 미이였으나, 다음 날 오 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네.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 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적었으나, 그러마 하고 나는 동아극장 옆에 있는, 마침 물려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 맡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네. 그 닷새 되는 날이 오늘이고, 정한 시간에 연락 장소인 다방엘 갔더니, 레지가 내민 것이 종이 꾸러미였네.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다른 길과 달라 ‘[간호 장교]’이고 보니,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갔고,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검정 넥타이]’였네. 그러면 미이가 첫날 다방에서 ‘사명 운운’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네.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삼 년 동안이나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었네. 미이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 사명을 다하는 일을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일세. 가장 잘 생각하는 체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하고,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기었던 미이는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고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를 굴러떨어지는 듯했네. 구르면서 견어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
- 17 조운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석은,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호기심을 끌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 이젠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않았다. 더욱이 그의 고민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 18 석의 뇌와 마음은 ‘[강렬한 미이의 인상]’으로 꽉 차 있었다.
- 19 그리고 미이가 조운의 마음에 던져 준 충격 이상의 충격을 석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 20 안주가 좋아서만이 아니었다. 그 강렬한 배갈도 석을 취하게 하지 못했다.
- 21 역시 마음이 미이로 말미암아 팽팽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 22 조운의 차로 집에 돌아와서도 석은 큰소리를 탕탕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 암전하게 자리에 들어가 가족들을 들볶지 않았다.
- 23 그의 엄숙한 태도에 가족들은 또 술을 먹었다고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
- 24 자리에 드러누워 그는 생각하였다.
- 25 “조운의 말대로 ‘[조운]’은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 사변을 통하여 ‘[미이]’는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 ‘[나]’는?”
- 26 눈을 감았다 뜨며 석은 중얼거렸다.
- 27 “사명을 포기치도 그것에 충실치도 못하고 말라 가는 나는? 나



도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

-안수길, '제3인간형@17E수특'

\*반지빠른: 어중간하여 알맞지 아니한.

\*부박하다고: 천박하고 경솔하다고.

\*천야만야: 가파른 산이나 벼랑 같은 것이 천길만길이나 되는 듯 까마득하게 높거나 깊은 모양.

###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인물의 내면이 진술되고 있다.\* O/X
- ② 서사가 진행되며 서술자가 교체되고 있다. O/X
- ③ 시대적 배경과 주제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O/X
- ④ 이야기가 진행되며 인물들 사이에 삼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O/X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O/X
- ⑥ '석'은 자신의 신념이 생활에 영향 받는 것에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O/X
- ⑦ '석'은 부정적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연 공간으로의 도피를 꿈꾸게 되었다. O/X
- ⑧ '석'과 '조운'은 한때 같은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왔다. O/X
- ⑨ '석'은 호기심에 조운을 만나게 되고, '조운'은 석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석을 만나게 된다. O/X
- ⑩ '석'은 미이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결심을 세우게 된다. O/X
- ⑪ '석'이 술을 마시고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감 때문이었다. O/X

### 03\_<보기>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 보기

'3'이라는 숫자는 흔히 이쪽(제1)도 저쪽(제2)도 아닌, 나머지 다른 쪽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 '3'은 만족스럽지 못한 이쪽과 저쪽을 넘어선 이상적인 방향, 장소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반대로 행위자가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고민과 방향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안수길의 '제3인간형'은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변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반성적 시각에서 자아를 바라보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① '생활의 목표'를 '분필'로 바꾸는 일은 '석'이 자아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O/X
- ② '자책의 채찍'은 '석'의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시각에서 비롯된 심리적 반응일 것이다. O/X
- ③ '조운'이 '미이'에게 '다방'을 차려주려는 것은 '미이'에 대한 사명을 실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④ '종이 꾸러미'는 '조운'이 반성적 시각을 환기하게 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O/X
- ⑤ '간호 장교'는 '미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O/X

- ⑥ '미이'는 '조운'과 달리, 개인적 행복보다 시대적 '사명'을 선택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O/X
- ⑦ '검정 넥타이'는 '미이'가 '조운'에게 건넨 물건으로, '조운'으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좇는 계기가 되고 있다.\* O/X
- ⑧ '강렬한 미이의 인상'으로 인해 '석'은 '조운'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O/X
- ⑨ '강렬한 미이의 인상'은 '조운'과 '석' 모두가 '미이'에게 느꼈을 감정으로 볼 수 있다. O/X
- ⑩ '석'에게 '그의 사명을 포기'한 것과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제1'과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⑪ '석'은 '미이'와 '조운'을 통해 자신을 '제3'의 인간형으로 여기고 있다. O/X
- ⑫ '석'이 생각하는 '제3'인간형은 '제1'과 '제2'를 넘어 이상적 상황을 지향하는 인간형으로 볼 수 있다. O/X



답\_☀️)☆1706호

문법>

01\_

[교체]-> [동화]-> [유음화] / [비음화] / -[구개음화]  
-> [된소리되기]  
-> [음절끝소리규칙]  
[첨가]-> [ㅅ첨가] / [ㄴ첨가]  
[탈락]-> [자음탈락] / [모음탈락] / [자음군단순화]  
[축약]-> [거센소리되기] / [이중모음되기]  
[연음화]

02\_

①㉠㉡ / ㉢㉣ / ㉤㉥ / ㉦㉧-각 묶음 내부의 요소가 서로 다의어  
②㉠㉡ / ㉢㉣ / ㉤㉥ / ㉦㉧-각 묶음끼리 서로 동음이의어  
③동음이의  
④형태는 다르나 발음이 같은

03\_

통 / 통 / 통 / 통 / 통  
통 / 비 / 비 / 비 / 비

04\_

①\_어찌한다 / 어떠하다 / 이다  
②\_(순서와 관계없이)명 / 대명 / 수 / 관형 / 부 / 동 / 형용 / 감탄 / 조  
⇒ ①은 동사, ②는 형용사, ③은 조사(서술격)에 대응한다.  
③3 / (순서에 관계없이)동 / 형용 / 조(서술격)

05\_

종신 / 취득 / 묵득 / 체득 / 음득  
정득(통득) / 속득 / 경신 / 갱신 / 통득(정득)  
송배 / 맹신

문학> 고전문문편>

01\_

#질서좋아  
#유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여러 것들

02\_

다 / 관 / 도 / 고 / 안  
위 / 섬 / 관 / 비 / 동

03\_

O / X / X / X / X  
O / X / X / O / O  
X / X / O / O / O

문학> 현대문문편>

01\_

[가]\_#세속적 가치를 지양하는 삶 # 마음 다잡기  
[나]\_#이별 #비

02\_

[가]\_안 / 관 / 안 / 관  
[나]\_관 / 대 / 안 / 안 / 안  
안

03\_

O / O / O / O / X  
X / O / X / O / O

문학> 고전소설편>

01\_

#부정 부패 #세태 풍자

02\_

X / O / O / O / X  
X / X / O / X / X  
X / X / X / X / X

문학> 현대소설편>

01\_

#반성 #전쟁통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02\_

X / X / O / X / O  
O / X / O / O / X  
X

03\_

X / O / X / O / X  
O / X / X / O / O  
O / X /



+@ / +ㅈㅊㄴㅅㅁㅣ

**[복]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 음독音讀\_글 따위를 소리를 내서 읽음.
- 묵독默讀\_글 따위를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읽음.
- 속독速讀\_책 따위를 빠른 속도로 읽음.
- 정독精讀\_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음.
- 통독通讀\_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리 읽음.
- 체득體得\_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
- 취득取得\_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
- 갱신更新\_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 경신更新\_기록경기 따위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림.
- 맹신盲信\_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일.
- 종신終身\_목숨을 다하기까지의 동안.
- 숭배崇拜\_우러러 공경함.

**[예]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사우가'@이신의@17E수특**

**해적 병설**

- 01 바위옆의 소나무가 늠름늠름 반갑구나
- 02 바람서리 괴롭혀도 약한모습 전혀없다
- 03 푸른봄빛 몸에둘러 약한모습 모르는가 <제1수>
- 04
- 05 동쪽언덕 울타리의 귀한국화 누가알리
- 06 따듯한봄 멀리하고 쌀쌀가를 홀로피네
- 07 아이오아 맑고맑은 내친구는 너뿐이네 <제2수>
- 08
- 09 많은꽃들 그가운데 매화골라 심는뜻은
- 10 눈속핀꽃 하이얀빛 소중하기 때문이다
- 11 플러스로 향기또한 아주그저 귀하구나 <제3수>
- 12
- 13 흰눈내려 추운날에 대나무를 보려하니
- 14 희눈내려 꽃들없고 대나무만 푸르구나
- 15 어찌하여 대나무만 맑은바람 앞흔드뇨 <제4수>



+@ / +ㅈㅊㄴㅅㅁㅣ

현대어 해설

- 01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가 능연하니 반갑구나
- 02 바람과 서리에도 여위는 모습이 전혀 없다
- 03 어찌하느라 봄빛을 가져 변할 줄을 모르는가 <제1수>
- 04
- 05 동쪽에 있는 울타리에 심은 국화가 귀한 줄 누가 아느냐
- 06 따뜻한 봄 햇살을 마다하고 늦가을 서리에 혼자 피니
- 07 어즈버 맑고 고결한 내 벗이 다만 너뿐인가 하노라. <제2수>
- 08
- 09 꽃이 많되 그 중에서도 매화를 심은 뜻은
- 10 눈 속에 꽃이 피어 눈과 같이 흰빛인 것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 11 하물며 그윽한 향기 또한 참으로 귀하구나. <제3수>
- 12
- 13 백설이 자주 내리는 날에 대나무를 보려 창을 여니
- 14 백설에 온갖 꽃은 간 데 없고 대숲만 푸르구나.
- 15 어찌하여 대나무만 맑은 바람을 받기며 잎이 흔들흔들 하는가. <제4수>

원작품

- 01 바위에 섰는 솔이 능연(凜然)한 것이 반가온데.
- 02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없다.
- 03 엇지타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느냐. <제1수>
- 04
- 05 동리(東籬)의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 뉘 아느냐.
- 06 춘광(春光)을 번페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 07 어즈버 청고(淸高)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제2수>
- 08
- 09 꽃이 무한(無限)하되 매화(梅花)를 심근 뜻은
- 10 눈 속에 꽃이 피여 한 빛인 것이 귀(貴)하도다.
- 11 하물며 그윽한 향기(香氣)는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 12
- 13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 14 온갖 꽃 간데 없고 대숲이 푸르러세라.
- 15 엇디한 청풍(淸風)을 받겨 흔덕흔덕 하느냐. <제4수>

밝은 미래☀





# "봄날, 벚꽃그리고너 @에피톤프로젝트"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늌자 ✍ \_1707호



1707\_[문법]+[사우가]+[절정]+[떨어져도 튀는 공처럼]+[하생기우전+만복사저포기]+[카인의 후에]



☀️) ☆1707호

문법>

01\_ 다음을 잘 보고 적절한 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골라 보세요.

- ① 경음화는 거센소리되기와 동일한 의미이다. O/X
- ② 비음화는 교체이면서 동시에 동화이다. O/X
- ③ 유음화를 거친 음운은 유음과 완전히 같은 음운이 된다. O/X
- ④ 자음군단순화는 축약에, 음절끝소리규칙은 탈락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다. O/X
- ⑤ 음절끝소리규칙을 통해 발음되는 음운은 총 8개의 음운이다. O/X
- ⑥ '갓다'와 '같다'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난다. O/X
- ⑦ '바닷가'에서는 총 세 번의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난다. O/X
- ⑧ '바닷가'에서는 '바닷물'은 모두 발음 과정에서 '동화'가 나타난다. O/X
- ⑨ '삶과'와 '삶이'에서는 동일한 음운 변동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O/X
- ⑩ '낱다' '낱고' '낱아'에서는 모두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O/X

02\_ 문장 성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ㄱ\_ 라이온은 매우 빨리 집으로 달린다.  
 ㄴ\_ 고양이는 한가하게 로브스터를 즐긴다.  
 ㄷ\_ 너구리는 먹이 주는 사람을 다정한 친구로 여긴다.

- ① ㄱ은 모두 주성분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O/X)
- ② ㄴ은 주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다. (O/X)
- ③ ㄷ은 생략 불가능한 부사어가 포함된 문장이다. (O/X)
- ④ ㄱ과 ㄴ은 목적어가 없어도 충분히 뜻을 전할 수 있는 문장이다. (O/X)
- ⑤ 서술어의 자릿수를 세어 보면 ㄱ, ㄴ, ㄷ 각각 1, 2, 4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O/X)

03\_ 보기 2의 ①~⑤ 중,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을 골라 보세요.

보기1

우리 말의 높임법에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법이 있다. 하나의 문장에는 한 가지 높임법만 실현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의 높임법이 모두 실현되기도 한다.

보기2

①오카카여, 당신이 떠나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②당신은 가셨고 당신의 자리는 인라님님이 차지하셨죠. ③당신께서는 거짓말처럼 돌아오셨고 나는 다시 당신께 나의 눈물 묻은 돈을 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④오카카여, 당신은 귀여웁이요 당신은 사랑이다. ⑤당신의 매력에서 헤어날 수 없는 나는 오늘도 지갑에서 나의 눈물을 꺼내 당신께 바칩니다.

⇒

04\_ <보기1>의 설명을 잘 보고 <보기2>에서 <보기1>의 ㉠~㉡에 대응되는 문장들을 분류해 보세요.

보기 1

우리가 잘못 쓰는 문장 유형에는 ㉠서술어와 주어의 호응이 어색한 경우, ㉡서술어에 호응하는 문장 성분이 누락된 경우, ㉢적절하지 못한 단어나 어미를 사용한 경우, ㉣문장에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문장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경우 등이 있다.

보기 2

- ①\_ 내 말의 요점은 지속 가능한 성적 향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
- ②\_ 자동차에 넣지 않아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 ③\_ 신호 위반을 하는 자동차들이 도로에 너무 많아 모범이는 자동차 관리 당국에게 항의했다.
- ④\_ 신호 위반을 하는 자동차들은 발견 즉시 단속되어야 한다.
- ⑤\_ 그건 그렇고, 아끼던 친구의 자동차가 옆으로 쓰러졌다.

⇒



05\_ <보기 1>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뒤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1

중세 국어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의문문에는 ‘-고’, ‘-뇨’, ‘-료’, ‘-오’ 등의 의문형 어미나 ‘고’, ‘오’ 등의 의문 보조사가 쓰였다. 반면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에는 ‘-가’, ‘-녀’, ‘-려’ 등의 의문형 어미나 ‘가’, ‘아’ 등의 의문 보조사가 쓰였다. 한편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형 어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설명·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니다’ 등이 쓰였다.

보기2

- ㉠이 었던 사롭고  
[현대어 풀이] 이 어떤 사람이나?
- ㉡이 썩리 너희 종가  
[현대어 풀이] 이 여자가 너희의 종이나?
- ㉢네 ㅼ덴 었데 너기는다  
[현대어 풀이] 너의 뜻에는 어떻게 여기느냐?
- ㉣엇던 困緣으로 如來를 나썩 ㅼ시니잇고  
[현대어 풀이] 어떤 인연으로 여래(부처)를 낳으셨습니까?
- ㉤山行 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현대어 풀이] 사냥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이전 임금)를 믿었습니까?

- ① ㉠은 보조사를 이용하여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O/X
- ② ㉡은 의문형 어미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O/X
- ③ ㉢은 의문형 어미를 이용하여 2인칭의 대상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O/X
- ④ ㉣은 의문형 어미를 이용하여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O/X
- ⑤ ㉤은 의문형 어미를 이용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O/X

06\_ <보기>의 어휘들을 잘 보고 아래의 괄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어휘는 한 번 씩만 사용합니다.

보기

관철貫徹 / 역설力說 / 침식侵蝕 / 소명疏明  
정평定評 / 조합調合 / 유추類推 / 환기喚起  
취사取捨 / 윤택潤澤 / 비견比肩 / 상극相剋

- ① 물과 기름처럼, 내용일치 문제와 늘 [ ]인 사람들은 뉘우치고 눈알을 닦고 오세요.
- ② 시간이 없을 땐 풀 것과 보낼 것을 잘 [ ]해야 한다.
- ③ 그는 그의 뜻을 끝까지 [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 ④ 후텁지근한 더위에 나의 인내심이 점점 [ ]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
- ⑤ 과자 부스러기로 과자의 종류를 정확히 [ ]해내는 그녀의 능력은 대단하다.
- ⑥ 그녀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성실하기로 [ ]이/가 나 있다.
- ⑦ 그는 시험에서 이성과 감성을 최대한 [ ]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 ⑧ 선장은 늘 문두를 천천히 볼 것을 [ ]한다.
- ⑨ 여름철 얼음이 어금니에 닿는 감촉을 떠올리면 생각만으로 즐거움을 [ ]할 수 있다.
- ⑩ 억울한 누명을 쓴 그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 ]할 기회가 없었다.
- ⑪ 성기는 엿을 하루에 만 가락씩 팔아 계연과 [ ]한 삶을 살게 되었다.
- ⑫ 그의 답을 내는 속도는 강사와 [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지만 정답률이 나쁜놈아.



문학> 고전문문편>

- 01 바회에 섰는 솔이 늠연(凜然)\*한 것이 반가온더.
- 02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없다.
- 03 엇지타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느냐. <제1수>
- 04
- 05 동리(東籬)\*의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 뉘 아느냐.
- 06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뛰니
- 07 어즈버 청고(淸高)\*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제2수>
- 08
- 09 꽃이 무한(無限)하되 매화(梅花)를 심근 뜻은
- 10 눈 속에 꽃이 뛰여 한 빛인 것이 귀(貴)하도다.
- 11 하물며 그옥한 향기(香氣)는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 12
- 13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 14 온갖 꽃 간데 없고 대숲이 푸르려세라.
- 15 엇디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느냐. <제4수>

-이신의, '사우가'@17E수특

\*늠연\_위엄이 있고 씩씩한

\*동리\_동쪽 울타리, 국화를 심어둔 곳

\*번폐하고\_마다하고

\*엄상\_된서리

\*청고\_맑고 고결한

\*흔덕흔덕\_흔들흔들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뵈니]

- ① '솔'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풍상'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봄빛'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국화'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엄상'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매화'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백설'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대'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온갖 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청풍'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흔덕흔덕'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이질적 이미지의 시어를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 / X
- ② 매 행을 유사한 음보로 배치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③ 의인화된 대상을 바탕으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④ 계절의 순차적 흐름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⑤ 대상의 모습으로부터 받게된 다양한 영탄적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⑥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 / X
- ⑦ 매 수에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X
- ⑧ 중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우호적 시선이 작품의 바탕에 깔려 드러난다. O / X
- ⑨ 중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드러나 있다. O / X
- ⑩ 음성 상징어와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풍부하게 전달하고 있다. O / 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 02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 03
- 04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 05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 06
- 07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 08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 09
- 10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 11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보다

-이육사, '절정'@17E수특

[나]

- 01 그래 살아 봐야지
- 02 너도 나도 공이 되어
- 03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 04
- 05 살아 봐야지
- 06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 07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 08 왕자처럼
- 09
- 10 가볍게 떠올라야지
- 11 곧 움직일 준비 되어 있는 꼴
- 12 둥근 공이 되어
- 13
- 14 옳지 최선의 꼴
- 15 지금의 네 모습처럼
- 16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 17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17E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뤄니]

[가]

- ① '계절'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채찍'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북방'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고원'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그 위에 서'는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 □양쪽 모두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무릎을 꿇'는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겨울'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강철로 된 무지개'는 (□관찮은 / □안 관찮은 / □둘 다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⑨ '공'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떨어지'는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튀는' 것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탄력'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가볍게 떠오르'는 것은 대상의 (□경쾌한 / □경솔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네 모습'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표현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② 가와 나 모두 비유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③ 가는 나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④ 가와 나 모두 서술어를 생략하여 독자에게 여운을 주고 있다. O/X
- ⑤ 나와 달리 가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⑥ 가와 나 모두 매 연을 동일한 수의 행으로 진행하여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다. O/X
- ⑦ 가와 달리 나는 작품의 표면에 긍정적 속성의 청자를 배치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⑧ 가와 달리 나는 도치를 통해 시상을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⑨ 가와 나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⑩ 가는 나와 달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이 드러나 있다.\* O/X



## 문학 &gt; 고전소설편 &gt;

- 01 [앞부분 줄거리] 학생은 재주가 뛰어났으나 벼슬을 하지 못하고 울적한 날들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은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 남문 밖에 있는 한 여인과 인연을 맺고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 02
- 03 날이 밝아 올 무렵 여인은 학생의 팔을 베고 누워 있다가 문득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학생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 04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갑자기 왜 그러오?”
- 05 “여기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侍中)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 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군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요직을 지내며 권세를 누리셨는데, 아버지께 밭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원래 아버지는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두셨지만, 다섯 오빠가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저 혼자 아버지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네 부친이 큰 옥사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수십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 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못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다섯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절하고 물러 나왔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 날 가망이 없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 06 학생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 07 “그대의 말대로라면 생사를 걸고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 08 그러자 여인은 베타머리에서 금척을 뽑아 학생에게 주며 말했다.
- 09 “서방님께선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서울 저자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뎃돌\* 위에 올려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 이 물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제 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 10 “알겠소.”
- 11 여인은 학생더러 빨리 나가 보라고 재촉했다.
- 12 <중략>
- 13 “너는 어떤 사람이며, 이 물건은 어디서 얻었느냐?”
- 14 “저는 태학의 학생입니다. 그 금척은 무덤 속에서 얻었습니다.”
- 15 “너는 입으로는 시와 예를 말하면서 뒤로는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자란 말이나?”
- 16 학생은 웃으며 말했다.
- 17 “우선 결박한 몸을 풀고 어르신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매우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장차 제게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생각하셔야 할 텐데 도리어 화를 내시는군요.”
- 18 시중은 즉시 하인들에게 분부를 내려 학생의 결박을 풀고 섬돌 위로 올라오게 했다. 마침내 학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찬찬히 말해 주었다. 시중은 차츰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다.
- 19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 20 남녀중들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탄식했다. 그때 주렴 안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 21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니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 죄를 물어도 늦지 않겠어요. 저 선비의 이야기를 듣자니 평소 우리 딸아이의 용모며 옷차림과 의심의 여지없이 똑같아요.”
- 22 시중이 말했다.
- 23 “그렇군. 즉시 삼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하라. 내가 직접 가 봐야겠다.”
- 24 시중은 하인 몇 명을 남겨 학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 25 잠시 후 묘역에 이르러 보니 봉분(封墳)\*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시중은 의아히 여겨 무덤을 파 보았다. 무덤 속의 딸은 안색이 산 사람과 같았다. 심장 있는 쪽을 만져 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 유모를 시켜 딸을 안게 하고 가마에 태워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사를 부를 겨를도 없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 26 해 질 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 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 27 “네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니?”
- 28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 29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캐묻자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학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학생은 그 집 사람들에게 몹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 30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 시중은 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학생의 집안에 대해 묻고, 또 학생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학생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부친은 평원 고을의 유생으로 오래전에 작고하셨다고 대답했다.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의논하였다.
- 31 “학생의 용모와 재주가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다고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구려.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상명측하고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래서 나는 그냥 재물이나 후하게 주어 사례 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 32 부인이 말했다.
- 33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녀자가 어찌 나서겠어요?”
- 34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 학생을 위로하며 소원을 물었지만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학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잊은 여인을 원망했다. 학생은 곧바로 절구 한 편을 지어 작은 종이에 쓰더니 여인의 유모더러 그 종이를 여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학생의 시는 다음과 같았다.
- 35
- 36 비록 흉탕물이 묻어도 옥은 더러워지지 않지만
- 37 봉황은 자기 등지를 찾았으니 잡새를 돌아보려 하겠는가.
- 38 팔 위의 눈물 자국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 39 다만 이제는 도리어 꿈속에서나 그대를 보겠구나.
- 40
- 41 여인은 학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의 사정을 묻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학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여인은 그 즉시 병들었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 신광한, '하생기우전'@17E수특

\*노릇들: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하기 위하여 대문 앞에 놓은 큰 돌.

\*삼태기: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봉분: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만든 무덤.

[나]

01 [앞부분 줄거리] 일찍 부모를 잃고 장가를 들지 못한 채 외로이 살아가던 양생은 어느 날 만복사 불당에서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하여 이긴 후, 부처님께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다.

02

03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으로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 좁다란 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여인에게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눈짓을 하였다. 여인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는 양생의 뒤를 따라 들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04 바야흐로 밤은 깊어 가고 달이 동산에 떠올라 그림자가 창을 비추는데, 갑자기 창밖으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이 문을 열고 내다보니, 여인의 수발을 드는 시녀(侍女)였다.

05 여인은 반가워서 물었다.

06 “얘야,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느냐?”

07 아이가 말했다.

08 “예, 평소에는 문밖에도 나가시지 않던 아가씨가 가신 곳이 없어 허둥지둥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09 여인은 말했다.

10 “응, 오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높으신 하느님과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덕에 고운 임을 맞이하여 백년해로의 가약을 맺게 되었다. 미처 알리지 못한 것은 예도에 어그러지나 꽃다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평생의 기쁨이니, 의아하게 생각지 말고 빨리 돌아가 주연을 갖추어 오너라.”

11 시녀가 지시를 받고 물러간 지 얼마 안 되어 돌아와 뜰에서 잔치를 베풀니, 밤은 벌써 사경(四更)\*이 가까웠다. 양생이 가만히 살펴보니 탁상에 놓인 기명(器鳴)\*은 희맑고 무늬가 없으며 술잔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풍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괴이하게 여겼으나,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얼굴과 몸가짐이 매우 안전하여 ‘이는 아마도 어느 귀족 집 아가씨가 한때의 정서를 건잡지 못하여 황혼의 가약을 찾아온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을 진정하였다.

12 <중략>

13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면 비록 미약한 몸이오나 당신과 함께 백년고락을 누리 볼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이날 이후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나이다.”

14 양생은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론 놀랍고, 다른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되어 대답했다.

15 “당신의 진지한 마음에 어찌 공명하지 않겠소?”

16 그러고는 여인의 태도가 범상치 않으므로 그는 유심히 동정을 살폈다. 마침 서쪽 산봉우리에 달이 걸쳐 있고, 먼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절에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에 날이 새

려고 하였다. 여인이 시녀에게 지시하였다.

17 “얘야, 주연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18 시녀가 곧 어디론가 사라지자, 여인은 양생에게 말했다.

19 “꽃다운 인연을 이미 이루었으니 저는 당신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20 양생은 쾌히 승낙하고는 여인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하여 걸었다. 돌이 저자 복판을 지날 때에는 벌써 울타리 밑에서 개가 짖고 사람들이 길에 나다녔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렇게만 물을 뿐이었다.

21 “총각, 새벽에 혼자서 어딜 다녀오시오?”

22 “예, 어젯밤에 만복사에 갔다가 취하여 누웠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

23 하고 양생이 여인의 뒤를 따라 깊은 숲을 헤치고 가는데, 이슬이 길을 흠뻑 덮어 갈 길이 아득하였다. 양생은 의아하게 생각되어 물었다.

24 “당신이 거처하는 곳이 어찌하여 이렇게 쓸쓸하오?”

25 “예, 노처녀의 살림살이가 으레 그렇죠.”

26 하고는

27 문득 옛 시 한 장(章)을 외워 농담을 붙였다.

28

29 이슬 젖은 길

30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싶건만

31 옷자락 적실까 나설 수 없네.

32

33 양생도 옛 시 한 장을 읊어 화답하였다.

34

35 여우가 짝을 찾아 어슬렁거리니

36 저 기수의 돌다리에 짝이 있도다.

37 노나라 길 활 트여

38 문강(文姜)이 쓴살같이 달려가네.

39

40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개녕동(開寧洞)으로 향하였다.

41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다복숙이 들을 덮고 참천(參天)\*한 고목 속에 정쇄(精灑)\*한 수간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42 방 안에는 침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밥상을 올리는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만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펴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들 동안을 유유히 보냈다.

43 시녀는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조금도 교활한 면이 없었다. 좌우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은 깨끗하고 품위가 있어 그는 간혹 의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인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금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44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은 양생에게 말했다.

45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3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가 잠깐인 듯하나 오래되었사오니, 너무 서운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46 “여보시오, 이별이라니 갑작스레 그게 웬 말이오?”

47 “오늘 못다 이룬 소원은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간과 다름이 없사오니 저의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만나 보고 떠나심이 어떻겠습니까?”

48 “그렇게 합시다.”

49 대화가 끝나자 여인은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초





대하였다.

-김시습, '만복사저포기'@17E수특

\*사경: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넷째 부분. 새벽 1시에 서 3시 사이.

\*기명: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참천: 하늘을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서 늘어섬.

\*정쇄: 매우 맑고 깨끗함.

01\_ 정리없이 정답없이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가와 나 모두 환상적 분위기의 공간적 배경을 통해 주인공의 비범성이 예고되고 있다. O/X
- ② 나와 달리 가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인물들 간의 만남과 배신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있다. O/X
- ③ 가와 나 모두 비현실적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④ 가와 나 모두 인물이 지닌 특수한 능력을 바탕으로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해결되고 있다. O/X
- ⑤ 가는 나와 달리 인물의 대사를 통해 인물의 과거가 요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O/X
- ⑥ 가와 나 모두 삽입된 율문을 통해 인물의 상황과 심리가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다. O/X
- ⑦ 가와 나 모두 삽입된 율문을 통해 밝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O/X
- ⑧ 가와 나 모두 여주인공의 가족들이 남녀 주인공의 결연에 관여하고 있다. O/X
- ⑨ 가와 나 모두 이야기가 진행되며 공간적 배경이 변화하고 있다. O/X
- ⑩ 나와 달리 가는 여주인공은 남주인공과의 의리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X
- ⑪ 가와 달리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정체에 종종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O/X
- ⑫ 가와 나 모두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에게 이별을 요구하고 있다. O/X
- ⑬ 가의 '시중'은 사사로운 감정 없는 공정한 업무로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왔다. O/X
- ⑭ 가의 옥황상제는 '시중'의 선행을 높이 평가하여 여인을 이승으로 되돌려 보낸다. O/X
- ⑮ 가의 '여인'은 '하생'이 자신의 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고초를 짐작하고 있었다. O/X
- ⑯ 가의 '여인'의 '금척'은 '하생'과의 사랑의 징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품으로 볼 수 있다. O/X
- ⑰ 가의 '시중'은 '하생'의 재주는 인정하지만 가문의 수준 차이로 여인과의 혼인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다. O/X
- ⑱ 나의 '시녀'는 남녀 주인공의 만남을 이어주는 인물로 볼 수 있다. O/X
- ⑲ 나의 여주인공은 사람들 눈에 띄는 화려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O/X
- ⑳ 나의 개녕동은 일반 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다. O/X



문학> 현대소설편>

- 01 “아버진 또 요새 왜 그러우?”
- 02 “글썸 말이다.”
- 03 “오마니가 좀 말을 해요.”
- 04 어머니가 놀라는 눈을 이리 돌렸다.
- 05 “요새 아버지가 박 선생한테 너무해요. 디나간 일두 생각해아 디 나빠요. 이제 토디 개혁인가 뭔가 된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 이요? 오마니가 좀 말을 해요. 오마닌 왜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못 하구 삽네까?”
- 06 오작녀 아버지 도섭 영감은 이십여 년 동안이나 훈네 토지를 관 리해 온 마름이었다. 그동안 웬만한 지주 못지않게 잘살아 왔다. 그것이 요즈음 [토지 개혁]이란 걸 앞두고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었다. 그게 오작녀에게는 못마땅했다.
- 07 딸의 말에 오작녀 어머니의 눈이 더 놀라고 겁먹어 갔다. 이 애 가 어찌자고 갑자기 이런 소리 해 쌓는지 모르겠다. 가만있지 못 하고. 이 애가 이러다간 집안에 큰 풍파를 일으킬라.
- 08 “그리구 또 삼득인…….”
- 09 오작녀 어머니의 손이 가늘게 움직였는가 하자, 손은 그대로 있 는데 바느질감만이 무릎에서 흘러 떨어졌다.
- 10 “가만!”
- 11 그러고는 떨리는 손길이 딸의 팔을 와 붙들며 나직한 말로,
- 12 “아버지다!”
- 13 오작녀도 그만 흠칫하고 귀를 기울였다.
- 14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 15 “아버지야!”
- 16 어머니가 다시 숨소리만으로 속삭였다.
- 17 수십 년 같이 살아오는 동안, 이 여인은 이처럼 다른 사람이 알 아듣지도 못하는 남편의 인기척을 알아듣는 것이었다.
- 18 좀 만에 과연 뜰로 들어서서는 인기척이 들렸다. 오 작녀는 저도 모르게 훌 일어섰다. 그러고는 문고리를 잡고 생각난 듯이,
- 19 “삼득이 들어오른 널 바주\* 영계스리 좀 보내 주우.”
- 20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바느질감만 뒤적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 것은 지금 자기네가 나타내고 있는 낮빛을 남편에게 눈치채이지 않 기 위한 몸짓이기도 했다.
- 21 오작녀는 섬돌에 올라선 아버지와 어겼다. 고개를 수그린 채 총 총걸음을 쳤다.
- 22 문득 좀 전에 어머니한테 한 말이 후회되었다. 정작 어머니가 아 버지더러 무슨 말을 해서 풍파라도 일어나면 어쩌나.
- 23 그러나 다음 순간 오작녀의 가슴속에는 좀 전 어머니한테 말할 때보다도 더 굳센 어떤 탄 힘이 머리를 들고 일어섬을 느꼈다. [ 무슨 일]이 있든 한 번은 벌어질 일이다. 아버지가 나쁘다. 아버 지가 박 선생에게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삼득이도…….
- 24
- 25 [중략 부분 줄거리]
- 26 [농민 대회]가 열리고 박훈의 숙부이자 지주인 박용제 영감은 재산을 빼앗기고 면인민위원회에 끌려간다. 박 훈 역시 같은 위 기에 놓이는데, 오작녀가 박훈과 부부가 되었다고 말하여 박훈 을 구해 준다.
- 27
- 28 도섭 영감은 [비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비석과 정면으로 마주 섰다.
- 29 일찍이 이 훈의 할아버지의 송덕비는 도섭 영감 자신이 감독하

- 여 지대를 닦는다, 콘크리트를 한다, 하여 세 운 비였다. 그때도 그는 이렇게 정면에 서서 비가 면바로 섰는가 어쨌는가를 몇 번 이나 [거냥]해 본 것이었다.
- 30 지금 그가 이 비석과 정면으로 마주 섬은 그때와는 다른 것이 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대번에 이 빗들을 넘어뜨릴까 하는 노 림인 것이다.
- 31 도섭 영감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눈썹꼬리가 몇 번이고 피긋 거렸다.
- 32 마침내, 예잉!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가 후려쳐졌다.
- 33 비석 한중동이 해짝하게 [금]이 가더니 뒤로 나가떨어졌다.
- 34 그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다.
- 35 또 한 대 후려쳤다. 또 한 대 후려쳤다. 모주리 때레찍에라! 모 주리 때레찍에라! 도끼가 내릴 적마다 비석은 돌가루를 뿌리면서 부서져 나갔다.
- 36 이 소리에 칠성이 어머니가 밖을 내다보고는 깜짝 놀라,
- 37 “여보, 오작네 아반이 비석을…….”
- 38 아까부터 윗목에 무릎을 안고 앉아 담배만 빨고 있던 칠성이 아 버지가 아내의 등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심상한 빛이 었다. 그는 오늘 이보다 더 놀랍고 무서운 사실을 몸소 보고 들 고 한 것이었다.
- 39 “제발 당신 오늘은 밖에 나뎡기디 마소.”
- 40 도섭 영감은 비석 밑동까지 다 때려 부수자 이번에는 맨 처음에 넘어뜨린 빗돌 윗동강을 또 몇 조각이고 내리쳐 부수는 것이었 다. 꼭 무엇에 취한 사람 같았다.
- 41 그 일도 다 끝나자 도섭 영감은 붉어진 눈으로 자기 돌레를 한번 훑어보고는 획 훈네 집 쪽을 향해,
- 42 “독사를 직일래른 깨개 직에야 한다아!”
- 43 그 소리가 메아리가 돼 돌아왔다. 그러고는 조용해졌다.
- 44 [칠성이 어머니]가 살그머니 다시 밖을 내다보더니,
- 45 “여보, 오작네 아반이 갔나 뤄다. 나가서 어디 방칫돌감이나 하 나 있나 보소.”
- 46 그네는 좀 전부터 그걸 궁리하고 있던 것이었다. 다듬이질할 적 마다 분디나뭇집 할머니한테 가야만 하는 것이었다.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때 다듬잇돌을 하나 장만한다면 오죽 대견하 라. 더구나 저 비석들이면 면판이 얼음처럼 매끄러운 다듬잇돌 이 될 게라.
- 47 [칠성이 아버지]는 잠자코 담배만 빨고 있었다. 아까 용제 영감 네 집에서 여자 고무신 한 켤레 집어 온 것만도 속이 개운치 않 은 것이었다.
- 48 “여보, 어서 다른 사람이 주워 가기 전에 나가 보소.”
- 49 벌써 좀 전에 남편더러 오늘은 제발 밖에 나다니지 말라고 한 말 같은 건 잊고 있었다.
- 50 칠성이 아버지는 그냥 잠자코 담배만 빨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 득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었다. 저 부서진 비석들은 고무신과 는 다르다. 저건 벌써 비석이 아니고 그저 보통 돌맹인 것이다. 흔히 굴러다 니는 돌맹이처럼 누가 주워 가도 좋은 것이다. 그렇 다면 하나 주워 와도 상관없지 않은가.
- 51 일어서 밖으로 나갔다. 그중 제일 큰 비석 조각을 하나 집어 들 었다.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어 다듬잇 돌로는 마땅치 않았다. 반 반한 놈을 골라잡아 보면, 그건 또 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었다. 이왕 깨 놓으려면 좀 쓸 만하게 깨 놓지 않고 이게 뭐람.

-황순원, '카인의 후예'@17E수특



\*바주: '바자'의 방언. 대, 갈대, 수수깡, 싸리 따위로 발처럼 엮거나 겹어서 만든 물건.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임.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대화 위주의 객관적 서술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② 다양한 양상의 갈등 구조가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다. O/X
- ③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④ 서술자에 의해 등장 인물들의 심리가 번갈아가며 제시되고 있다.\* O/X
- ⑤ 상징적 의미의 사물을 통해 효과적으로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O/X
- ⑥ 이념적 선택의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 있다. O/X
- ⑦ 시대적 상황이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O/X
- ⑧ 방언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O/X
- ⑨ 부정적 세력에 저항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O/X
- ⑩ 과거의 달라진 인물의 성격을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이 나아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O/X

03\_<보기>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가]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이나 대중의 움직임 등의 큰 틀을 바탕으로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거시 담론과 달리, 미시 담론에서는 거시적 현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작은 공동체나 개인에 주목한다. 미시 담론에서는 거시 담론에서 담아내지 못한 개개인의 삶을 다루면서 그 안에 담긴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찾으려 한다. 이는 작가와 사회가 역사와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개개인과 그들의 행위 혹은 그에 얽힌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작가 황순원의 작품 '카인의 후예'에서 '카인'은 기독교의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기독교의 절대자인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 중 첫째이다. 이후 '카인'은 아우인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인물로 기록된다. 이러한 '카인'과 그 '후예'라는 제목의 명명은 작가가 작품 속 인물들을, 살인의 죄를 지고 있는 카인의 피를 이어 받은 후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봉건적 질서' 아래에서 오랜 기간 평범하게 살아오던 인물들은 급작스레 마을을 뒤덮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혼란을 겪게 된다. '사회주의'는 전통적 질서인 '봉건적 질서'를 타도하고 새 질서를 수립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폭력과 윤리의식의 실종, 비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이념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 ① [토지 개혁]은 거시 담론이 바탕이 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O/X
- ② [토지 개혁]을 사이에 두고 드러난 인물들의 양상은 미시 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③ [무슨 일]은 '전통적 질서'와 '사회주의' 사이의 갈등이 봉합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④ [농민 대회]는 새로이 유입된 거시적 담론에 대항하기 위한 농촌 공동체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O/X
- ⑤ [비석]은 둘 이상의 거시 담론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O/X
- ⑥ [비석]에 대한 '도섭 영감'의 행위를 통해, 거시적 담론에서 벗어나 미시 담론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O/X
- ⑦ '도섭 영감의' [비석]에 대한 [거냥]은 새로운 질서에서 벗어나 전통적 질서로 회귀하려는 인물의 심리를 미시 관점의 영역에서 드러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O/X
- ⑧ [비석]에 간 [금]은 전통적 질서가 파괴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O/X
- ⑨ [칠성이 어머니]와 [칠성이 아버지]가 겪는 상황은 거시 담론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O/X
- ⑩ [칠성이 어머니]와 [칠성이 아버지]를 통해 거시 담론이 작용하는 과정에서 인물들이 보이는 윤리 의식의 실종을 살펴볼 수 있다. O/X



답\_☀️)☆1707호



문법>

- 01\_ X-된소리되기 / O / O-르로 동일해  
짐 / X-자.단은 탈락 음끝은 축약 / X  
O-교체 / O-첨가,교체,교체 / X-바닷  
물만동화 / X / X-낱아는축약없음
- 02\_ X / O / O-친구로 / X-ㄴ 안됨 / X-  
ㄷ은 3자리
- 03\_ 3번
- 04\_ ㉠-1 ㉡-2 ㉢-3 ㉣-4 ㉤-5
- 05\_ X-보조사는 맞지만 설명의문문 / X-  
어미아닌보조사에판정의문문 / O /  
O / X
- 06\_ 상극 / 취사 / 관철 / 침식  
유추 / 정평 / 조합 / 역설  
환기 / 소명 / 윤택 / 비견

문학> 고전문문편>

- 01\_ #네자연물 칭찬예찬
- 02\_ 관 / 안 / 관 / 관 / 안  
관 / 안 / 관 / 안 / 관  
관
- 03\_ O / O / O / X / O  
X / O / O / X / X

문학> 현대운문편>

- 01\_ [가]\_#절망의 끝에서 품어 보는 희망  
의 자세  
[나]\_#공처럼 살고 싶은 마음
- 02\_ [가]\_안 / 안 / 안 / 안 / 양  
안 / 안 / 돌  
관 / 안 / 관 / 관 / 관  
관
- 03\_ X-가만 / O / O / X-나만 / O  
X / O / O / X / O

문학> 고전소설편>

- 01\_ [가]\_#하생과 여인의 기이한 인연과  
여인 부모의 배신  
[나]\_#기이한 인연
- 02\_ X / X / O / X / O  
O / X / X / O / O  
O / X / X / O / O  
X / O / X / X / O

문학> 현대소설편>

- 01\_ #이념 갈등으로 비롯된 마을의 비극
- 02\_ X / O / X / O / O  
X / O / O / X / X
- 03\_ O / O / X / X / O  
X / X / O / X / O



+@ / +ㅈㅊㄴㅅㅌㅍㅍㅌ

**[복]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 관철貫徹\_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기어이 이룸.
- 역설力說\_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또는 그런 말.
- 침식侵蝕\_외부의 영향으로 세력이나 범위 따위가 점점 줄어들음.
- 소명疏明\_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
- 정평定評\_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인정하는 평판.
- 조합調合\_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짬.
- 유추類推\_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 환기喚起\_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 취사取捨\_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림.
- 윤택潤澤\_살림이 풍부함.
- 비견比肩\_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낮고 못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하게 함을 이르는 말.
- 상극相剋\_둘 사이에 마음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항상 충돌함.

**[예]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누항사'@박인로@17E수특**

**해적 병설**

- 01 밤이늦은 이시간에 무슨일로 오셨어요
- 02 매년매년 이런내가 구차한건 아는데요
- 03 소가없는 가난한집 걱정많아 왔습니다
- 04 무료로든 유료로든 빌려주면 좋겠지만
- 05 하필어제 저기저쪽 건너집의 저사람이
- 06 영양만점 맛도만점 후라이드 핑고기에
- 07 맛있는술 갖익은술 취하도록 대접하니
- 08 얻어먹은 내은혜를 안갚을수 있겠어요?
- 09 내일바로 빌려준다 굳게굳게 약속해서
- 10 미안하오 당신에게 빌려줄소 이제없소
- 11 그렇군요 어찌겠소 소주인은 당신이니
- 12 현모자를 숙여쓰고 다떨어진 짚신신고
- 13 기운없이 돌아오는 내모습에 개도웃네
- 14 달팽이집 뺨때리는 내방에서 잠이오라
- 15 북쪽창문 기대어서 새벽때를 기다리니
- 16 빌어먹을 오디새는 나의한을 복돋는다
- 17 아침해가 뜰때까지 슬퍼하며 밖을보니
- 18 농부들의 즐건노래 나는전혀 흥이안나
- 19 세상물정 잘모르는 이내처지 한숨뻑뻑
- 20 벽에걸린 쟁기날은 번쩍번쩍 눈부시다
- 21 가시영킨 목은발도 속삭뚝뚝 갈리겠네
- 22 주인장을 잘못만나 텅빈벽에 걸렸구나
- 23 봄농사도 다망했다 안해안해 던져두자
- 24 강호자연 친구삼야 살겠다는 큰꿈오래
- 25 먹고사는 일때문에 아이쿠야 잊었구나
- 26 저넷가엔 푸른색갈 대나무들 바글바글
- 27 교양있는 선비들이 낚시대좀 빌려다오
- 28 갈대깊은 숲속에서 달과바람 친구삼야
- 29 임자없는 자연속에 근심없이 늙으리라
- 30 욕심없는 갈매기가 오라가라 할리있냐
- 31 다들일이 없는것은 다만자연 뿐이도다
- 32 듣보잡인 이내몸에 무슨뜻이 있리라만
- 33 손톱만한 논과밭은 다묵혀서 던져두고
- 34 돈있으면 식사하고 돈없으면 굶을망정
- 35 남의집안 남의것은 부러울일 전혀없다
- 36 내가난과 나의처지 싫다한들 가겠으며
- 37 남의재산 부러워서 손짓한들 오겠느냐
- 38 인간세상 모든일이 모두운명 아니겠나
- 39 가난하면 일찍죽고 돈 많으면 오래사나
- 40 원헌부자 몇날살고 석승부자 몇년사나
- 41 가난해도 세상원망 앓는일이 어렵지만
- 42 내인생이 이렇대도 서러운뜻 전혀없다



현대어 해설

- 01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무슨 일로 와 계신고?”
- 02 “해마다 이리하기가 구차한 줄 알지마는
- 03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소이다.”
- 04 “공짜로나 값을 치르거나 간에 주었으면 좋겠지마는,
- 05 다만 어젯밤에 건너 집에 사는 사람이
- 06 목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이 부글부글 끓게 구워 내고,
- 07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 08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갚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 09 내일 소를 빌려 주마고 굳게 약속을 하였기에
- 10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말씀드리기가 어렵구로.”
- 11 정말로 그렇다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 12 헌 모자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나오니
- 13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 14 달팽이집같이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 15 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 16 무정한 오디새는 나의 한을 돕는구나.
- 17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 18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게 들리는구나.
- 19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 20 아까운 저 쟁기는 쟁기날도 좋구나.
- 21 가시가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으련마는,
- 22 빈 집 벽 한 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 23 봄같이도 거의 다 지났구나. 팽개쳐 던져두자.
- 24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더니
- 25 먹고 사는 것이 방해가 되어, 아 슬프게도 다 잊었도다.
- 26 저 냇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 27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시대 하나 빌려다오.
- 28 갈대꽃 깊은 곳에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벗이 되어,
- 29 임자가 없는 자연 속에서 근심 없이 저절로 늙으리라.
- 30 무심한 갈매기가 나더러 오라 할까 가라 할까?
- 31 다들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생각하노라.
- 32 보잘 것 없는 이 몸이 무슨 커다란 뜻이 있으랴마는
- 33 두어 이랑의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 34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물망정
- 35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 36 내 가난과 천함을 싫게 여겨 손을 내젓는다고 물러가겠으며,
- 37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짓을 한다고 나아오겠는가?
- 38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과 상관없이 생겼으랴?
- 39 가난하다고 일찍 죽으며 부귀하다고 백년을 살겠는가
- 40 원헌이는 몇 날을 살고 석승이는 몇 해를 살았단 마말인가
- 41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하건마는
- 42 내 생활이 이렇다 해서 서러운 뜻은 없노라.

원작품

- 01 초경(初更)\*도 거윈디 그 옛지 와 거신고.
  - 02 연년(年年)에 이리하기 구차(苟且)한 줄 알건마는
  - 03 소 업슨 공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 04 공허니나 갑시나 주엄 죽도 헛다마는,
  - 05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람이
  - 06 목 붉근 수기치(雉)\*을 옥지음(玉脂泣)게\* 꾸어 니고,
  - 07 갓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허거든,
  - 08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힐넨고.
  - 09 내일(來日)로 주마 허고 큰 언약(言約) 허야거든,
  - 10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왜라.
  - 11 실위(寔爲) 그러허면 헐마 어이홀고.
  - 12 헌 먼덕 수기 스고 축 업슨 집신애 설피설피 물러 오니
  - 13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기 쪼칠 썩이로다.
  - 14 와실(蝸室)\*애 드러간들 잠이 와서 누어시라.
  - 15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새배\*를 기다리니
  - 16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느다.
  - 17 종조추창(終朝惆悵)\*허며 먼 들 흘 바라보니,
  - 18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업서 들리느다.
  - 19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 20 아까운 저 소뉘 \*는 벗보님\*도 도홀세고.
  - 21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 22 허당 반벽(虛堂半壁)애 슬디업시 걸려고야.
  - 23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 24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지도 오리려니
  - 25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허야 어지버 이저쩌다.
  - 26 침피기옥(瞻彼淇澳)\*헌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 27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허나 빌려사라.
  - 28 노화(蘆花)\* 김픈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 29 넘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 30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허며 말라 허라.
  - 31 다토리 업슬스 다문 인가 너기로라.
  - 32 무상(無狀)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 33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 34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굶물망정,
  - 35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 36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 37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 38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 39 가난타 이제 죽으며 가오며다 백년(百年) 살냐.
  - 40 원헌이는 몇 날 살고 석승이는 몇 해 산고
  - 41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허건마는
  - 42 니 생애(生涯) 이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 \*초경: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첫째 부분(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수기치: 수평.  
 \*옥지음계: 구슬 같은 기름이 튀어 오르게.  
 \*간 이근: 갓 익은.  
 \*삼해주: 정월 셋째 해일(亥日)에 빚은 좋은 술.  
 \*와실: 달팽이 껍질같이 좁은 자신의 방을 겸손히 일컫는 말.  
 \*새배: 새벽의 옛말  
 \*대승: 봄에 밭 갈기를 독촉한다는 오디새.  
 \*종조추창: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퍼함.  
 \*소뉘: 쟁기의 사투리.  
 \*벗보님: 쟁기의 날이 잘 선 모양.  
 \*위루: 누가 됨, 거리낌이 됨.  
 \*침피기옥: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봄.  
 \*유비군자: 교양 있는 선비.  
 \*노화: 갈대꽃.



# "새 달엔, 사람있으리 TheMoon&在人"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늌자 ✍ \_1708호



If you get caught between the 'Moon' and New York city. Best that you can do. Best that you can do is fall in love. @Christopher Cross  
1708\_ [문법]+[누항사]+[들국]+[수선화, 그 환한 자리]+[홍보가]+[달밤]+[오구-죽음의 형식]





☀️ ☆ 1708호

문법>

01\_ <보기>를 잘 보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보기

- ㉠작년에 왔던 아름이가 죽지도 않고 살아서 왔네.
- ㉡남녀는 남자와 여자를 묶어서 가리키는 말이다.
- ㉢숲을 살살이 뒤져서 백로들을 낱날이 대령하라.
- ㉣알약과 물약 중 원하시는 약을 말씀하세요.
-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다 하더라도 신경쓰지 마세요.

- ① ㉠에서 매 어절마다 음운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O/X
- ② ㉠에서 총 7번의 교체체를 확인할 수 있다. O/X
- ③ ㉠에서 두음법칙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O/X
- ④ ㉢의 '살살이'와 '낱날이'에는 동일한 음운 현상이 나타난다. O/X
- ⑤ ㉢에서는 구개음화와 거센소리 되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O/X
- ⑥ ㉣에서는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음운 변동을 찾아볼 수 있다. O/X
- ⑦ ㉠~㉢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음운 변동은 탈락 뿐이다. O/X
- ⑧ ㉢의 '알약'과 '물약'에서는 모두 연음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O/X
- ⑨ ㉢의 '알약'과 '물약'에서는 모두 유음이 아닌 음이 주변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O/X
- ⑩ ㉢의 '삶과'와 '삶이'에서는 공통된 음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O/X

02\_ 제시된 문장의 밑줄 친 단어들에 속하는 부분에 체크해 보세요. [소신껏 복수 체크 가능]

- ① 살 째 내 모습이 낮 설다  
|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 ② 불 여를가을겨울을 쪽 먹었더니 살 이 찌고 말 았다  
|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 ③ 살 이 많이 찢 어도 내 인생은 맑 음을 유지하려고 해.  
|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 ④ 나라는 사 람은 살 이 참 잘 찌 는 사람인 것 같다.  
|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 ⑤ 이대로 다 이에트 계획은 헛 수고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  
|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03\_ <보기>를 바탕으로 아래의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 ㉠너구리 세 마리가 찾아왔다.
- ㉡너구리 셋이 찾아왔어요.
- ㉢옥구슬 한 개를 잃고 두 개를 얻었다.
- ㉣옥구슬 하나 잃으니 돌이 생겼다.
- ㉤지폐 석 장이 필요하다.
- ㉥산삼 한 뿌리를 샀다.

- ① ㉠, ㉡의 밑줄 친 단어 중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일한 수를 나타내므로 품사가 같음을 알 수 있다. O/X
- ② ㉠, ㉢의 밑줄 친 단어 중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는 그 형태가 다르므로 품사가 다를 수 있다. O/X
- ③ ㉢, ㉣의 밑줄 친 단어 중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는 문장 성분의 종류가 같다. O/X
- ④ ㉠, ㉢, ㉣, ㉥으로 볼 때, 자립 명사는 단위 명사로 사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O/X
- ⑤ ㉠, ㉢, ㉣, ㉥으로 볼 때, 동일한 수량이라도 수량의 대상에 따라 단위 명사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O/X
- ⑥ ㉠~㉥의 밑줄 친 단어 중,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조사와의 결합 여부를 통해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O/X

04\_ 아래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 때 적절한 서술어를 제시해 보세요.

- ① 비록 |  
⇒
- ② 모름지기 |  
⇒
- ③ 비단 |  
⇒
- ④ 여간 |  
⇒
- ⑤ 왜냐하면 |  
⇒



05\_<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에 대해 공부하려 할 때, <보기>를 잘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물근 ㄱ ㄹ ㅎ 고비 ㅁ ㅂ ㅅ ㅈ ㅊ 아나 흐르느니  
 긴녀 ㄹ ㅂ ㅅ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니 집우 ㅅ ㅈ ㅊ ㅅ ㅈ ㅊ  
 서로 ㅅ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 『두시언해』

[현대어 풀이]  
 맑은 강의 한 굽이가 마을을 안아 흐르니  
 긴 여름의 강촌에 일마다 그윽하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집 위의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의 갈매기이다

- ① '물근'에서 끊어적기, '아나'에서 이어적기를 확인할 수 있다. O/X
- ② 'ㄱ ㄹ ㅎ'을 통해 모음 없이도 음절을 형성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X
- ③ 'ㅁ ㅂ ㅅ ㅈ ㅊ'을 통해 모음조화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X
- ④ 띄어쓰기의 모습이 현대 국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O/X
- ⑤ 'ㄱ ㄹ', '녀 ㅂ', '가온뎡'에서 공통적으로 '-ㅅ'이 현대어의 관형격 조사와 같은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O/X

06\_<보기>의 어휘들을 잘 보고 아래의 괄호[ ]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어휘는 한 번 씩만 사용합니다.

**보기**

식견 識見 / 당신 當身 / 기술 記述 / 학설 學說  
 속설 俗說 / 속성 速成 / 미연 未然 / 방임 放任  
 백미 白眉 / 전수 傳受 / 근간 根幹 / 견문 見聞

- ① 신문 기사는 온통 너구리 왕국에 대해 [ ]하고 있었다.
- ② 선풍기 들고 자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한국에만 있는 [ ]로 밝혀졌다.
- ③ 운전 면허를 [ ]로/으로 취득한 너구리는 차도 대단히 빠르게 몰아 재깁다.
- ④ 너구리들이 사람을 보고 놀라는 것을 [ ]에 방지하기 위해 나도 너구리 옷을 입고 다녔다.
- ⑤ 너구리들에 대한 [ ]을/를 넓히려 너구리 왕국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 ⑥ 너구리들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북미 래coon이 [ ]이다.
- ⑦ 동물 카페에서 너구리들에 대한 올바른 접근 태도를 [ ] 받았다.
- ⑧ 너구리들이 무엇이든 물에 헹궈 먹는다는 것은 관찰과 연구를 통해 [ ]이/가 되었다.
- ⑨ 할아버지 너구리, [ ]은/는 생전에 온화한 성품으로 유명하셨다고 한다.
- ⑩ 그는 인스타그램에서 하루 세 번 너구리들에 대한 소식을 통해 너구리들에 대한 [ ]을 키운다.
- ⑪ 국어는 결국 내용의 사실관계 파악이 고득점의 [ ]입니다 여러분.
- ⑫ 자치회의에서 결의된 대로 청소를 학생들에게 [ ]했더니 삼 주만에 교실에서 버섯이 자라기 시작했다.



문학> 고전문문편>

- 01 초경(初更)\*도 거된다 그 엇지 와 거신고.
- 02 연년(年年)에 이러히기 구차(苟且)흔 줄 알건마는
- 03 쇼 업손 궁가(窮家)애 혜면 만하 왓삽노라.
- 04 공ㅎ이나 갑시나 주엄 죽도 ㅎ다마는,
- 05 다만 어제 밤의 거넌 집 저 사람이
- 06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꾸어 니고,
- 07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ㅎ거든,
- 08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넌고.
- 09 내일(來日)로 주마 ㅎ고 큰 언약(言約) ㅎ야거든,
- 10 실약(失約)이 미편(未便)ㅎ니 사설이 어려왜라.
- 11 실위(實爲) 그러ㅎ면 혈마 어이 흘고.
- 12 한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손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 13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기 즈칠 ㅎ이로다.
- 14 와실(蝸室)\*애 드러간 들 잠이 와사 누어시라.
- 15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새배\*를 기다리니
- 16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는다.
- 17 종조추창(終朝惆悵)\* ㅎ며 먼 들 흘 바라보니,
- 18 즐기느 농가(農歌) 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 19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 20 아싸온 저 소뉘 \*는 벗보님\*도 도흘세고.
- 21 가시 영근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 22 허당 반벽(虛堂半壁)애 슬디업시 걸려고야.
- 23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 24 강호(江湖) 흔 꿈을 꾸언지도 오리려니
- 25 구복(口腹)이 위루(爲累)\* ㅎ야 어지버 이저씨다.
- 26 침피기옥(瞻彼淇澳)\* ㅎ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 27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ㅎ나 빌려스라.
- 28 노화(蘆花)\* 김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 29 넘지 업손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 30 무심(無心)흔 백구(白鷗)야 오라 ㅎ며 말라 ㅎ랴.
- 31 다토리 업술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 32 무상(無狀)흔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 33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 34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 35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 36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 37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 38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 39 가난타 이제 죽으며 가오며다 백년(百年) 살나.
- 40 원현이논 몇 날 살고 석승이논 몇 히 산고
- 41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ㅎ건마는
- 42 니 생애(生涯) 이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박인로, '누항사'@17E수특

- \*초경: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첫째 부분(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 \*수기치: 수평.
- \*옥지읍계: 구슬 같은 기름이 튀어 오르게.
- \*간 이근: 갓 익은.
- \*삼해주: 정월 셋째 해일(亥日)에 빛은 좋은 술.
- \*와실: 달팽이 껍질같이 좁은 자신의 방을 겸손히 일컫는 말.
- \*새배: 새벽의 옛말

- \*대승: 봄에 밭 갈기를 독촉한다는 오디새.
- \*종조추창: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퍼함.
- \*소뉘: 쟁기의 사투리.
- \*벗보님: 쟁기의 날이 잘 선 모양.
- \*위루: 누가 됨, 거리낌이 됨.
- \*침피기옥: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봄.
- \*유비군자: 교양 있는 선비.
- \*노화: 갈대꽃.

01\_정리없이 정답없이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읽기]

- ① '궁가'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거넌 집 저 사람'은 화자와 (□경쟁의 / □협력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은혜'는 (□화자를 향한 / □타인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언약'은 화자에게 (□유리하게 /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실약'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설피설피'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기 즈칠 ㅎ'인 상황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와실'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대승'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농가'는 화자의 기분을 (□업시키는 / □다운시키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세정'을 '모르'는 상황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강호(江湖) 흔 꿈'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한 상황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풍월강산(風月江山)'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무심(無心)흔 백구(白鷗)'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는 것은 화자에게 (□관찮은 / □안 관찮은) 계기로 볼 수 있다.\*
- ⑰ '죽'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⑱ '남의 집 남의 거'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⑲ '빈이무원'(□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대화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실감나게 전개하고 있다. O/X
- ② 반성적 태도로 화자의 부끄럽던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 O/X
- ③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가 드러나 있다. O/X
- ④ 현실상황에대한비판적시선을바탕으로시상을전개하고있다. O/X
- ⑤ 화자가 처한 상황이 작품의 표면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O/X
- ⑥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⑦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 관심과 애정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⑧ 속세를 벗어난 자연 공간에서의 만족감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⑨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의 심리적 불만이 대화 상대와의 갈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O/X
- ⑩ 유교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O/X
- ⑪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미래로 미루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O/X
- ⑫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 02 뭐헌다요. 산 아래
- 03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 04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 05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 06 산 아래 집 뒤안
- 07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 08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다요
- 09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다요
- 10 뭘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 11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헌다요
- 12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 13 허연 서리만 끼어 가고
- 14 저 달 금방 저 불면
- 15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텃디
- 16 병신같이, 바보 천지같이
- 17 이 가을 다 가도록
- 18 서리발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 19 뭐헌다요, 뭘 소용이다요.

-김용택, '들국'@17E수특-

[나]

- 01 거기 뜨락 전체가 문득
- 02 네 서늘한 긴장 위에 놓인다
- 03
- 04 아직 맵찬 바람이 하르르 멎고
- 05 거기 시간이 잠깐 정지한다
- 06
- 07 저토록 파리한 줄기 사이로
- 08 저토록 환한 꽃을 밀어 올리다니!
- 09
- 10 거기 문득 네가 오롯함으로
- 11 세상 하나가 엄정해지는 시간
- 12
- 13 네 서늘한 기운을 느낀 죄로
- 14 나는 조금만 더 높아야겠다

-고재중, '수선화, 그 환한 자리'@17E수특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뭉치]

[가]

- ① '단풍'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물빛'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당신'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초생달'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마음'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서리'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어둠'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병신', '바보 천치'는 (□상황에 대한 / □대상에 대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가을'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들국'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⑪ '긴장'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시간'의 '정지'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파리한'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환한'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엄정해지는 시간'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죄'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⑰ '높아야겠다'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는 나와 달리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② 가와 나 모두 비유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③ 가와 달리 나는 매 연의 행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④ 가와 나 모두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⑤ 가와 달리 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O/X
- ⑥ 가와 나 모두 특정 청자를 대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⑦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O/X
- ⑧ 나는 가와 달리 시상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의 흐름이 지연되고 있다. O/X
- ⑨ 가와 나 모두 의문의 형식을 반복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⑩ 가와 나 모두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시상이 진행되고 있다. O/X
- ⑪ 가는 시선의 이동을 바탕으로, 나는 고정된 시선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⑫ 가에는 대상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나에는 대상에 대한 영탄의 감정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O/X





\*괘: 옷.

\*제깃밥: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밥.

01\_정리없이 정답없이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창작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가치관이 작품의 내부에 반영되어 드러난다. O/X
- ② 구연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O/X
- ③ 부분적으로 울격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 작품의 단조로운 진행을 막고 있다. O/X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변화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⑤ 인물의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작품 속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O/X
- ⑥ 비윤리적인 인물의 몰락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⑦ 해학과 풍자를 통해 중심 인물의 낙관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⑧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통해 작중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가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나 있다.\* O/X
- ⑩ 부모에 대한 흥보의 지극한 효심이 드러나 있다. O/X
- ⑪ 흥보는 부부 관계보다 형제 관계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O/X
- ⑫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연자의 비판적 시선이 드러나 있다.\* O/X
- ⑬ 달라진 흥보의 처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O/X
- ⑭ 형님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형님을 챙기려는 흥보의 정이 많은 마음씨가 드러나 있다. O/X
- ⑮ 희화화된 중심 인물의 면모를 드러내며 인물이 지닌 현학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O/X



문학> 현대소설편>

01 [앞부분 줄거리] ‘나’는 사대문 안에 살다가 성북동으로 이사를 오는데 여기에서 신문을 배달하는 황수건을 만난다. 그는 ‘나’를 허물없이 대하면서 가족 이야기, 과거에 급사\*로 일하다 쫓겨난 이야기, 정식 배달원이 되고 싶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일에도 실속 없이 참견한다. 아내는 우둔한 그와 말을 주고받는다. 이후 황수건은 정식 배달원이 될 것이라고 자랑하지만 얼마 후 ‘나’는 그가 보조 배달원 자리마저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02

03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04 “이 선생님 께쇼?”

05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06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걸리지 않고 잘 옵쇼?”

07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08 “잘 오, 왜 그류?”

09 한즉 또,

10 “늦지도 않굽쇼, 일찍이 제때마다 꼭꼭 옵쇼?”

11 한다.

12 “당신이 돌을 때보다 세 시간은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13 하니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14 “하루라도 걸리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15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낸다.

16 “그런덱쇼, 선생님?”

17 “왜 그류?”

18 “삼산학교에 말씀예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계 생겼습쇼?”

19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20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로 히죽거리며,

21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랴굽쇼, 운동을 합쇼.”

22 한다.

23 “어떻게 운동을 하오?”

24 “그까짓 거 날마다 사무실로 갑쇼. 다시 써 달라고 졸라 덱쇼.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덱쇼, 이 녀석이 막 불근덱니다그러. 그래 한번 쌈을 해야 할 턱덱쇼,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덱버들 턱덱쇼…… 허.”

25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26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27 “그래덱쇼, 엇저녁엔 큰 돌멩이 하나를 굴러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뺏쇼.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깐 없어졌는덱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루 굴러다 버렸는지, 뺏적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입쇼, 제—길…….”

28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얼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29 “그런덱쇼, 제가 온 건입쇼, 맥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쇼.”

30 한다.

31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32 한즉,

33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덱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덱쇼.”

34 하고 자기 팔을 걸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35 “이걸 뵙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36 한다.

37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림디까?”

38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39 “아, 제가 생각해 냈습쇼.”

40 한다.

41 “왜 그렇소?”

42 하고 캐니,

43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덱쇼. 아 삼산 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덱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44 한다. 나는,

45 “그렇게 옹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46 하였다. 그는 좋아서 벅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47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48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친만 까 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49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어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벅긋거리며,

50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51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52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53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54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깃\*을 깬 듯하였다.

55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56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키…… 카…….”\*

57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58 “수건인가?”

59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휘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60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펑펑 빨면서 지나갔다.

61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이태준, '달밤'@17E수특

\*급사: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여 부리는 사람.

\*우두: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에서 뽑은 면역 물질.

\*깊: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일본 가요의 가사로, 우리말로  
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라  
는 뜻임.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세운 중심인물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의 특징과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O/X
- ③ 겉과 속이 다른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④ 이야기가 진행되며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바뀌어 드러나고 있다. O/X
- ⑤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가며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⑥ 서술자의 직접 경험과 외부로부터의 간접 경험이 더해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⑦ 순행적 구성을 바탕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⑧ 감각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여 독자들에게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⑨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연민을 자아낸다.\* O/X
- ⑩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밝은 모습을 보이는 인물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O/X
- ⑪ '수건'은 논리적이고 이지적인 성격의 인물로 그려져 있다.\* O/X
- ⑫ '수건'은 가난하지만 정직한 성격의 인물로 그려져 있다. O/X
- ⑬ '수건'의 아내는 '수건'보다 '수건의 가족' 때문에 수건을 떠나게 된다. O/X
- ⑭ '나'는 말도 안 되는 '수건'의 대화에 맞장구 쳐 줄 정도로 수건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O/X
- ⑮ '수건'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에는 '수건'의 애환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답\_☀️)☆1708호



문법>

- 01\_ O / X-6번 / O / O-구개음화 / X  
O / X / X / O / X
- 02\_ 복합어-합성어(낫+설다) / 복합어-합성어 / 복합어-파생어 / 단일어 / 복합어-파생어
- 03\_ X / X / X / X-뇌능가능 / O  
O
- 04\_ 비록~하더라도 (양보) / 모름지기~해야한다(당위) / 비단~뿐 아니라 / 여간~지 않다(부정) / 왜냐하면~기 때문이다(이유)
- 05\_ X-둘다이어적기 / X / O / X / O
- 06\_ 기술 / 속설 / 속성 / 미연  
견문 / 백미 / 전수 / 학설  
당신 / 식견 / 근간 / 방임

문학> 고전문문편>

- 01\_ #힘든현실#안빈낙도 #정신승리
- 02\_ X / 경 / 타 / 불 / 관  
안 / 안 / 안 / 안 / 다  
안 / 관 / 안 / 관 / 관  
관 / 관 / 안 / 관
- 03\_ O / X / X / X / O  
O / X / X / X / X  
X/O

문학> 현대운문편>

- 01\_ [가]\_#그리움 #안타까움  
[나]\_#수선화 경탄
- 02\_ [가]\_안 / 안 / 관 / 안 / 안  
안 / 안 / 상 / 안 / 안  
[가]\_관 / 관 / 안 / 관 / 관  
관 / 관
- 03\_ O / O / O / O / O  
O / X / O / X / X  
O / X

문학> 고전소설편>

- 01\_ #홍보의 성공과 인성(형제간의 우애) #해학
- 02\_ O / X / O / X / X  
X / X / O / O / X  
O / X / X / O / X

문학> 현대소설편>

- 01\_ #황수건에 대한 '나'의 연민
- 02\_ X / O / X / X / X  
O / O / O-시각(달밤) / X / X  
X / X / X / O / O



+@ / +ㅈㅊㄴㅅㅁ

**[복]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 식견識見\_학식과 견문,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르는 말.
- 당신當身\_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 기술記述\_대상이나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여 서술함. 또는 그런 기록.
- 학설學說\_학술적 문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론 체계.
- 속설俗說\_세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설이나 견해.
- 속성速成\_빨리 이루어짐. 또는 빨리 깨침.
- 미연未然\_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
- 방임放任\_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둠.
- 백미白眉\_흰 눈썹이라는 뜻으로, 여럿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전수傳受\_기술이나 지식 따위를 전하여 받음.
- 근간根幹\_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 견문見聞\_보거나 듣거나 하여 깨달아 얻은 지식.

**[예]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원작품

[가]

- 01 서검(書劔)\*을 못 일우고 쓸 씩 업쓴 몸이 되야
- 02 오십(五十) 춘광(春光)을 희움 업씨 지니연져
- 03 두어라 언의 곳 청산(靑山)이야 날 썰 썰이 잇시랴.  
-김천택, '서검을 못 일우고'@17E수특  
\*서검: 문과 무.

[나]

- 01 안빈(安貧)을 염(厭)치 말아 일 업쓰면 그 죠힌이
- 02 벗 업다 한(恨)치 말라 말 업쓰면 이 죠힌이
- 03 암아도 수분 안졸(守分安拙)\*이 그 올흔가 흥노라.  
-김수장, '안빈을 염치 말아'@17E수특  
\*수분 안졸: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편안히 살다가 죽음.

[다]

- 01 서방(書房)님 병(病)들여 두고 쓸 것 업셔
- 02 종루(鍾樓) 저지 달리\* 파라 비 스고 감 스고 유자(榴子) 스고 석류(石榴) 샅다 아츰츰 이저고 오화당(五花糖)\*을 니저 발여고즈
- 03 수박(水朴)에 술\* 쏘즈 노코 한숨 게워 흥노라.  
-김수장, '서방님 병 들여 두고'@17E수특  
\*달리: 머리카락.  
\*오화당: 오색으로 물들인 사탕.  
\*술: 술가락.



+@ / +ㅈㅊㄴㅅㅁ

현대어 풀이

[가]

- 01 출세도 못 하고 쓸 데없는 몸이 되어
- 02 오십년 인생을 별 일 없이 살아왔네
- 03 두어라 어느 곳의 청산은 날 멀리할 리 있으랴

[나]

- 01 가난하지만 평온한 삶을 멀리하지 말라 바쁜 일 없으면 그것이 좋은 일이다.
- 02 벗이 없다 한탄하지 말라 시끄러운 말 없으면 이것이 좋은 일이다.
- 03 아마도 내 능력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옳은 삶인가 하노라

[다]

- 01 서방님 병들어 돈될 만한 것이 없어서
- 02 종루 시장에 머리카락을 팔아배 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석류 샀다. 아차 아차 잊었구나 오화당(花糖, 다섯 가지 색깔의 동글납작한 중국사탕)을 잊었구나
- 03 수박에 손가락 꽂아놓고 한숨을 짓고 있다.

해적 병설

[가]

- 01 과거합격 하나없이 잉여스런 몸이되어
- 02 이내인생 오십년을 별일없이 살아왔네
- 03 그렇지만 자연이야 날미워할 리있겠나

[나]

- 01 안빈낙도 욕하지마 안바쁘면 좋은거지
- 02 친구없다 탓하지마 조용하면 좋은거지
- 03 아무래도 수분안졸\* 그런삶이 옳은삶이  
\*수분 안졸: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편안히 살다가 죽음.

[다]

- 01 우리서방 병들어서 살림살이 그닥없어
- 02 종로시장 가발집에 내머리를 갖다팔아
- 03 배도사고 감도사고 유자사고 석류사고
- 04 집에와서 생각하니 이런제길 깜빡했다
- 05 우리서방 좋아하는 추파춥스 잊었구나
- 06 수박에다 손갈꽃고 한숨겨워 하는구나  
\*중장을 02~05의 4행으로 늘여 해석하였음



# "약속(ThePromise) @Flytothesky"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늌자 ✍ \_1709호



언젠가는.자유롭게.날아갈수있어.그대의.눈물이.꿈꾸던.날들은너무아름다울것같죠.

1709\_[문법]+[서검을 못 일우고]+[안빈을 염치 말아]+[서방님 병 들여두고]+[결빙의 아버지]+[바다와 나비]+[유광역전]+[오구-죽음의 형식]



01\_아래의 물음에 답하세요.

- ① 우리말의 음절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자음만 발음된다. O/X
- ② 동화는 발음 과정에서 반드시 교체를 수반한다. O/X
- ③ 자음 중 울림소리는 비음과 경음이다. O/X
- ④ 우리말의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다. O/X
- ⑤ '곤란'과 '분란'에서는 모두 유음이 음운 변동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O/X
- ⑥ '굳이'의 발음과정에서는 연음화가 구개음화보다 먼저 일어난다. O/X
- ⑦ '털없이'에서는 연음 현상, 자음군단순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O/X
- ⑧ '밖'과 '삶'의 발음과정에서는 모두 쌍자음이 단자음으로 변화하는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O/X
- ⑨ '눈빛'의 발음과정에서는 교체만을 확인할 수 있다. O/X
- ⑩ '다달이', '도와'의 형성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탈락이다. O/X

02\_아래의 물음에 답하세요.

- ① 조사는 단어이다. O/X
- ② 어근은 단어이다. O/X
- ③ 어미는 단어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O/X
- ④ 접사는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O/X
- ⑤ 의존 명사는 자립 형태소가 아니다. O/X
- ⑥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와, 형식문법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 O/X
- ⑦ 불규칙 활용은 표준어의 '소리'와, 규칙 활용은 표준어의 '형태'와 관계가 있다. O/X
- ⑧ 접미사와 달리 접두사는 해당 어근의 품사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X
- ⑨ 국어의 문장 성분은 항상 고정된 순서로만 나타나야 의미의 전달이 가능하다. O/X
- ⑩ 국어의 문장에서 모든 부사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O/X

03\_아래의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 ㄱ\_세라가 자두를 먹었다. [주동(능동)문]
- ㄴ\_세나가 세라에게 자두를 먹이었다. [사동문]
- ㄷ\_세나가 세라에게 자두를 먹게 했다. [사동문]
- ㄹ\_자두들이 세라에게 먹히었다. [피동문]
- ㅁ\_세라가 자두를 먹게 됐다. [피동문]
- ㅂ\_세나가 세라에게 자두를 먹인 것으로 보여진다.\* [사동+피동문]

\*표시는 비문법적인 문장임을 가리킴

- ① ㄱ과 ㄴ을 비교해 볼 때, 주동문에 비해 사동문의 서술어 자릿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O/X
- ② ㄴ과 ㄷ을 보면 같은 사동의 의미를 지닌 문장이라도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O/X
- ③ ㄹ과 ㅁ을 보면 같은 '-히'를 통해 만들어지는 피동문이 '-게'되다'를 통해 만들어지는 피동문보다 더 많은 문장성분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O/X
- ④ ㅂ은 두 개 이상의 피동 표현 요소를 활용하여 의미의 중복 없이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⑤ ㄱ과 달리 ㄴ, ㄷ은 사동문이 되면서 서술어의 품사가 바뀌었다. O/X

04\_다음의 각 겹문장들을 두 개의 홑문장으로 분리해 보세요.

- ① 나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한 동생에게 데자와 식스팩을 주었다.  
⇒  
⇒
- ② 친구가 나에게 준 비닐 바지가 나는 마음에 든다.  
⇒  
⇒
- ③ 그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남긴 시험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  
⇒
- ④ 하얀 종이로 된 벽에 쓰레기가 낙서를 하고 있다.  
⇒  
⇒
- ⑤ 두 사람은 공원에서 헤어졌고, 그 공원은 지금 공사 중이다.  
⇒  
⇒



05\_ <보기>의 어휘들을 잘 보고 아래의 괄호[ ]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어휘는 한 번 씩만 사용합니다.

**보기**

복안腹案 / 배포配布 / 포용包容 / 고양高揚  
 제반諸般 / 송출送出 / 기우杞憂 / 반목反目  
 측정測定 / 재량裁量 / 할애割愛 / 제어制御

- ① 우산을 두 개씩 쥐고도 비올 것을 걱정하는 것은 [ ]이다.
- ② 매 주 [ ]되는 해달별 실력가능자가 유익하다는 소문이 있다.
- ③ 그에게 맡기면 시작부터 끝의 [ ]사항을 모두 책임져 걱정할 구석이 없다.
- ④ 어려운 문제는 본디 시간을 넉넉히 [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어떤 문제든 같은 시간으로 풀려하니 시간 관리가 꼬이는 거여.
- ⑤ 늘 같은 표정의 라이오니를 보고 있으면 어떤 [ ]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 ⑥ 넓은 마음으로 이 주만의 낮잠을 깨운 새끼 너구리의 행위를 [ ]해 주었다.
- ⑦ 겨울철 보일러의 [ ]에 실패하여 원치않는 불바다에 요 금바다를 겪은 적이 있다.
- ⑧ 평소 [ ]하던 두 친구가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서 일 년이 지나도록 건너지를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 ⑨ 시험날 듣기 평가 대신 그룹 '눈으로한번귀로한번'의 '힘을내' 노래가 [ ]되어 학생들이 환호한 사건이 있다.
- ⑩ 선장은 해달별 실력가능자의 발행 이유를 정확한 실력 [ ]에 두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 ⑪ 공부는 남에 의해 마구 쥐어 짜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 ]에 맞게 하는 것이 몸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다.
- ⑫ 선원들의 사기를 [ ]시키기 위해 선장이 큰 맘먹고 이태리빈대떡을 주문했는데 지갑이 집에 있다.





문학> 고전문문편>

[가]

- 01 서검(書劍)\*을 못 일우고 쓸 씩 업쓰 몸이 되야
- 02 오십(五十) 춘광(春光)을 히옴 업씨 지니연져
- 03 두어라 언의 곳 청산(靑山)이야 날 썰 풀이 잇시라.  
-김천택, '서검을 못 일우고'@17E수특  
\*서검: 문과 무.

[나]

- 01 안빈(安貧)을 염(厭)치 말아 일 업쓰면 그 죠흔이
- 02 벗 업다 한(恨)치 말라 말 업쓰면 이 죠흔이
- 03 암아도 수분 안졸(守分安拙)\*이 그 올흔가 흐노라.  
-김수장, '안빈을 염치 말아'@17E수특  
\*수분 안졸: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편안히 살다가 죽음.

[다]

- 01 서방(書房)님 병(病)들여 두고 쓸 것 업서
- 02 종루(鍾樓) 저지 달리\* 파라 비 스고 감 스고 유자(榴子) 스고 석류(石榴) 샅다 아츰츰 이저고 오화당(五花糖)\*을 니저 발여고즈
- 03 수박(水朴)에 술\* 쏘즈 노코 한숨 게워 흐노라.  
-김수장, '서방님 병 들여 두고'@17E수특  
\*달리: 머리카락.  
\*오화당: 오색으로 물들인 사탕.  
\*술: 손가락.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뤄니]

[가]

- ① '서검'은 (□출세의 / □은거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몸'은 (□궁지의 / □자조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오십 춘광'은 (□관참은 / □안 관참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청산'은 (□관참은 / □안 관참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⑤ '안빈'은 (□관참은 / □안 관참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일'은 (□관참은 / □안 관참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벗 업'는 상황은 화자에게 (□관참은 / □안 관참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말 업'는 상황은 (□관참은 / □안 관참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수분안졸'은 (□관참은 / □안 관참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

- ⑩ '서방님'은 (□관참은 / □안 관참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병'은 (□관참은 / □안 관참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달리'는 (□사랑과 희생의 / □욕망과 질투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비', '감', '유자(榴子)', '석류(石榴)', '오화당(五花糖)'은 (□관참은 / □안 관참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한숨'은 (□관참은 / □안 관참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와 달리 나, 나는 열거의 방법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② 나는 가, 다와 달리 대구를 사용하여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가, 나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④ 가~다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⑤ 가, 나는 다와 달리 자연에 대한 화자의 관심이 드러나 있다. O/X
- ⑥ 가, 나와 달리 나는 실제의 지명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⑦ 가와 달리 나, 나는 화자와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O/X
- ⑧ 가, 나와 달리 나는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어머니,
- 02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 03 목조 적산 가옥 이 층 다다미방의
- 04 별거승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 05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 06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 07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 08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 09
- 10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 11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 12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 13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 14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 15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 16
- 17 그런데 어머니,
- 18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 19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 20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 21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 22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 23 바다로 가라고,
- 24 짱 짱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 25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 26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17E수특

[나]

- 01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 02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03
- 04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 05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 06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 07
- 08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 09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17E수특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뒀니]

[가]

- ① '겨울'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외풍'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가랭이 사이'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벌레'는 (□연약한 / □끔찍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추운 밤'은 (□과거와 현재가 / □현재와 미래가) 중첩되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추억'은 (□넉넉히 행복했던 / □춥지만 따듯했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가슴'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뺏가루'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옛날'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영하의 한강교'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물'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여린 물살'은 (□나 / □아버지)를 가리키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얼음'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엮드려 있던' 것은 (□세상에 굴복한 / □대상을 보듬는)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⑮ '수심'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바다'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⑰ '청 무우밭'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⑱ '공주'는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⑲ '꽃'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⑳ '초생달'은 (□괜찮은 / □안 괜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와 나 모두 표면의 화자가 주도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② 나와 달리 가는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③ 가와 나 모두 다양한 감각어를 바탕으로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O / X
- ④ 가와 나 모두 회고의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O / X
- ⑤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X
- ⑥ 가와 달리 나는 감각의 전이를 통해 독특한 느낌을 구사하고 있다.\* O / X
- ⑦ 가와 나 모두 여운을 남기는 시적 형식으로 시상을 맺고 있다.\* O / X



- ⑧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드러내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O / X
- ⑨ 가와 나 모두 작품의 표면에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O / X
- ⑩ 가와 달리 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작품 창작의 배경이 되고 있다. O / X
- ⑪ 가와 달리 나는 대조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⑫ 가는 나와 달리 회상의 매개가 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O / X
- ⑬ 가와 나 모두 작품의 특정 부분을 통해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O / X
- ⑭ 가와 나 모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⑮ 가와 달리 나는 매 연을 일정한 행으로 구성하여 시적 통일감을 형성하고 있다. O / X



문학> 고전소설편>

- 01 서울은 장인바치와 장사치들이 모이는 곳이다. 거래할 수 있는 많은 물품을 진열한 가게들이 별처럼 벌여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 있다. 남에게 손과 손가락으로 품을 파는 사람이 있고 어깨와 등으로 품을 파는 사람도 있으며, 뒷간을 치는 사람도 있고 칼을 갈아서 소 잡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얼굴을 꾸며 자신을 파는 사람도 있으니, 세상에서 사고파는 것이 이처럼 극도에 달하였다.
- 02 외사씨(外史氏)\*는 말한다.
- 03 “별거승이 나라에는 실과 비단을 파는 시장이 없고, 산짐승을 잡아 날고기로 먹던 시대에는 술을 팔지 않았다. 수요가 있어야만 파는 자가 생기는 법이다. 큰 대장장이의 문 앞에서는 칼이나 망치를 선전하지 못 하고, 힘써 농사짓는 집에는 지나가는 쌀 행상도 소리치지 않는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다음이라야 남에게서 구하는 것이다.”
- 04 유광역은 영남 합천군 사람이다. 그는 시를 어느 정도 지을 줄 알았으며 과체(科體)\*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 소문이 났다. 그의 집은 가난하였고, 그의 신분은 낮았다. 당시 시골 풍속에 과거 시험을 보는 자를 대신하여 글을 써주며 생계를 꾸려 가던 자가 많았는데, 광역도 대신 글을 써 주는 재주로 이득을 취하였다.
- 05 일찍이 광역이 영남의 향시(鄕試)\*에 합격하여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데, 부인들이 타는 수레로 광역을 길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 후 광역은 붉은 대문이 몇 겹이며, 으리으리한 건물이 수십 채나 늘어선 집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얼굴이 희고 수염이 성글게 난 필경사\* 몇 사람이 바야흐로 종이를 펴고 광역이 글을 쓰면 그것을 깨끗하게 옮겨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집에서는 안채에 광역의 숙소를 정해 두고 매일 다섯 번 진수성찬을 바치고 주인이 서너 번씩 뵈러 왔다. 광역을 공경히 대하는 것이 마치 아들이 부모를 잘 모시듯 하였다.
- 06 이옥고 회시(會試)\*를 치렀는데 주인의 아들이 과연 유광역의 글로 진사에 올랐다. 그런 후 주인이 행장을 차려 광역을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광역은 말 한 필, 종 한 놈을 거느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광역이 집에 돌아와 보니 광역의 재주를 빌리려고 어떤 사람이 돈 2만 냥을 가지고 왔고, 광역이 진 환자(還子) 빛은 감사에게 이미 갚은 터였다.
- 07 광역의 글은 격이 별로 높지 않으나 다만 가볍게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 장기인데, 이는 과거 답안에 잘 맞아떨어졌다. 광역은 이미 늙었는데도 그의 글은 나라에 더욱 소문이 났다.
- 08 경시관(京試官)\*이 경상 감사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 09 “영남에서는 글재주로 본다면 누가 으뜸입니까?”
- 10 감사가 말했다.
- 11 “유광역이라는 사람입니다.”
- 12 그러자 경시관이 말했다.
- 13 “이번 과거에 내가 그를 장원으로 뽑겠습니다.”
- 14 감사가 말을 이었다.
- 15 “당신이 그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 16 “능히 할 수 있습니다.”
- 17 마침내 서로 논란을 벌이다가 광역의 글을 알아내느냐 못 하느냐로 내기를 하게 되었다. 경시관이 이옥고 과장(科場)에 나와 시제를 내걸었다. 시제는 ‘시월에 중구회를 여니, 남쪽과 북쪽의 절후(節候)가 같지 않음을 탄식하노라.’였다. 조금 있다가 과장의 답안을 제출하는 곳에 답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글에 다음

- 과 같이 적혀 있었다.
- 18
- 19 중앙절 놀이가 시월에 펼쳐지니,
- 20 북쪽에서 온 손님이 남쪽의 데운 술 억지로 먹고 취하였네.
- 21
- 22 경시관은 ‘이것이 광역의 솜씨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는, 붉은 빛깔의 먹으로 평점을 마구 찍어 이하(二下)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어떤 답안은 자못 작법에 합치되므로 2등으로 하였고, 또 하나의 답안은 3등으로 삼았다. 나중에 모두 겹봉을 떼어 보니 광역의 이름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 경시관이 몰래 조사해 보니, 모두 광역이 남에게 돈을 받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 나게 한 것이었다.
- 23 경시관이 비록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감사가 자기의 글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래서 광역이 죄를 범한 사실을 증거로 얻기 위해 합천군에 공문서를 보내어 광역을 잡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시관은 실제 광역을 옥에 가둬 조사할 생각이 없었다.
- 24 광역이 군수에게 잡혀 장차 압송되기 직전에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나는 과거 시험과 관련해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잡혀가면 죽을 것이니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 밤에 친척들과 더불어 실컷 술을 마시고 몰래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경시관이 이 소식을 듣고 애석해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아까워했지만, 몇몇 선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25 “광역은 여러 번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므로, 그의 죽음은 마땅한 일이다.”
- 26 매화외사(梅花外史)\*는 말한다.
- 27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이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기도 하고 미세한 터럭과 형체가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팔 수 있으나, 그 마음을 팔아먹은 사람은 없었다.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유광역은 마음까지도 팔아먹은 자가 아닌가? 아아, 슬프도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매매를 글 읽은 사람이 한다고 했는가? 법전에는 ‘뇌물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죄가 같다.’라고 되어 있다.”

\_\_이옥, '유광역전'@17E수특

\*외사씨, 매화외사: 작가 이옥의 별호.

\*과체: 조선 시대에 과거를 볼 때 사용하던 문체.

\*향시: 지방에서 실시하는 과거 시험의 하나로 각 도에서 유생(儒生)에게 실시하던 초시(初試)를 말함.

\*필경사: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회시: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두 번째로 보던 과거.

\*경시관: 조선 후기에, 3년마다 각 도에서 과거를 치를 때 서울에서 파견하던 시험관.

01\_정리없인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요약적 진술을 통해 중심 인물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② 이야기의 중간 중간에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O / X



- ③ 해학과 풍자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O / X
- ④ 중심 인물에 대해 서술자의 우호적 시선과 비판적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O / X
- ⑤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된 율문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X
- ⑥ 불우한 인물의 지배적 질서에 대한 저항이 드러나 있다.\* O / X
- ⑦ 작품 창작 당시의 세태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 있다. O / X
- ⑧ 객관적 시선을 바탕으로한 인물의 행적이 서술자의 가감없이 드러나 있다. O / X
- ⑨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공간적 배경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O / X
- ⑩ 유사한 성격의 일화들을 바탕으로 중심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⑪ 광역은 자신의 재주를 바탕으로 대가 없이 주변 사람을 도왔다. O / X
- ⑫ 광역은 자신의 재주로 자신이 지고 있던 빚을 갚을 수 있었다. O / X
- ⑬ 당시의 과거 시험은 수준 높은 답안을 높게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다. O / X
- ⑭ 경시관은 광역의 비행(非行)에 분노하여 광역을 잡아들일 것을 명령했다. O / X
- ⑮ 광역의 죽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슬픔을 드러냈다. O / X
- ⑯ 광역이 과거에 합격하자 여러 사람들이 광역의 재주를 사기 위해 모여들었다. O / X
- ⑰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예감한 광역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O / X
- ⑱ 군수의 명으로 압송되면서도 광역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버리지 않았다. O / X
- ⑲ 서술자는 당시 과거 시험의 수준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⑳ 서술자는 인용의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X



## 문학&gt; 현대소설편&gt;

01 [이전 줄거리]

02 35세의 회사원인 '그(찬우)'는 두달 전 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듣고 낙심하던 중, 사표를 쓰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인 '꼬두메'를 방문하기로 한다.

03

04 그는 그 낯두리 섞인 '홍타령'을 기억하고 있었다. 찹고개 아래 비탈진 콩밭에서 김을 매거나, 마을 앞 개울가에서 빨래를 할 때면 어머니의 입에서는 늘 그렇듯 분명치도 않은 낮은 흥얼거림이 청송맞게 흘러나오곤 했었다. 그런데 그의 뇌리에서 벌써 아득한 옛날에 지워져 버렸던 그 홍타령을 그는 지금 서울 한복판 비탈진 산동네의 콘크리트 마당에서 다시 듣고 있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 순간, 검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파아랗게 돌아오른 '보리순'을 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드문드문 잔설에 덮인 보리밭 곶랑마다 모진 추위를 견디어 내며 싱싱하게 살아 있는 그 대견스런 인동의 풀잎들이 지금 어머니의 슬리퍼 밑에서 가만가만 밝혀지고 있는 것이었다.

05 유난히도 풀잎의 '푸르른 빛깔'을 못 잊어 하던 어머니였다. 눈을 들면 사방 어디에도 온통 잿빛으로 뒤덮인 집들이며, 붉은 황토 한 줌 쥐어볼 수 없는 거리와 골목, 그리고 항상 부엌에 매연에 절어 있는 도시의 '탁한 하늘'을 바라보며 어언 십 년이 넘도록 살아오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서울의 척박한 콘크리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어디서 구해 왔는지 채송화와 맨드라미 서너 뿌리를 가져와 깨진 그릇 속에 심고 무슨 보물단지나 되듯 소중하게 키우기도 했고, 언젠가 봉천동 산비탈 이층집에 세를 들어 살 때는 헌 사과 껍질에 '상추씨'를 뿌려 정성으로 가꾸다가 결국은 그만둔 적이 있었다. 거기다가 거름으로 아이들의 오줌을 받아 뿌리는 통에 약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며 주인집 여자가 쫓아 올라와 한바탕 법석을 떨었기 때문이었다.

06 자박, 자박, 자박…….

07 어머니의 발소리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었다. 어느 순간, 그는 참으로 우연처럼 문득 아버지를 생각해 내었다. 그리고 보니 그는 그때까지 아버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세 살 나던 해에 돌아가셨다는 아버지는 꼬두메 마을 뒷산 솔밭 기슭의 공동묘지에 지금도 묻혀 있을 것이었다. 찬우야이. '[꼬두메]'로 핑가 자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시고나이……. 어머니의 낯두리가 그의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울로 떠나온 후 십삼 년이 넘도록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한 아버지의 무덤이 별안간 어마어마한 부피로 부풀어 올라 그의 가슴을 무섭게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08 그렇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덤을 결코 잊고 있었을 리가 없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한결같이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시피 하는 못난 자식의 피곤하고 가난에 찌든 생활이 당신의 그 간절한 소망을 매번 틀어막아 버리고 만 것이리라.

09 그는 방문을 와락 밀어젖히고 밖으로 달려 나갔다. 그리고 보리를 밟고 있는 어머니의 어깨를 세차게 잡아 흔들었다.

10 좋아요, 어머니. 가십시다. 여한이라도 없게 내려가십시다. 오늘 당장 꼬두메로 가지자구요!

11 한동안 어머니의 망연한 눈망울이 그의 앞에서 고장난 자물통처럼 힘없이 열려져 있었다.

12 가지자니까요. 알아들으셨어요, 어머니? 꼬두메로 가요. 아버지를 뵈러 가시는 겁니다!

13 뭐, 뭐라고……?

14 그때 그는 불현듯 그녀의 텅빈 동공에서 믿기 어려우리만큼 희미한 '[출렁거림]'을 똑똑히 보았다. 부엌에서 아내가 튀어나왔다.

15

16 왜 그러세요, 당신. 무슨 일이나구요.

17 낫.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아무도 어머니 마음을 몰라. 그러니 상관하지 말라구!

18 흡사 실성한 사람처럼 그는 고향을 질러 댔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다. 도대체 제정신이세요. 이 시간에 느닷없이 꼬두메가 어딘가를 무엇하러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내가 손을 잡고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기어코 아내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제야 그는 차근차근한 말로 아내를 설득시켰다. 잠시 후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였다. 어느 틈에 화사하게 밝은 '[노란색 양단 치마저고리와 남빛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 놀라운 광경에 그와 아내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딱박 벌리고 말았다. 그 웃음은 그가 학교를 졸업하던 날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어디엔가에 지금껏 몰래 감추어 두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19 어서 가자이. 느그 아버지가 눈이 아프게 기다리시겠다이.

20 &lt;종략&gt;

21 그는 담배 연기를 한 모금 깊숙이 빨아들었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파란 연기가 창유리에 부딪치며 실타래로 가느다랗게 풀어지고 있었다.

22 꼬두메는 무등산 기슭의 작고 한적하기만 한 동네였다. 사십여 호가량 되는 토담집들이 고막 껍질처럼 웅기종기 둘러앉은 마을 뒤쪽으로는 꽤 가파른 고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찹고개라고 불렀다. 고개 위로 배암이 기어가듯 구불구불 나 있는 길은 무등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군용 작전 도로였다. 그 찹고개 기슭을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노라면 마을 초입에 커다란 당산나무가 보였고, 거기서부터 다시 산 쪽을 향하면 그의 집은 멀지 않았다. 꺾충하니 키 큰 대나무밭은 뒤로 두르고, 탕자 나무와 뜨락의 수국꽃이 아름답던 그 두 칸짜리 토담집 오막살이에서 어머니는 그와 형의 텃줄을 자른 것이었다.

23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기억이 없었다. 그가 세 살 때 돌아가셨다는 아버지는 그나마 빛바랜 사진 한 장 남겨 놓지 않았으므로 결국 그는 영영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된 셈이었다. 다섯 살 손위였던 형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아버지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불구였다고 했다. 함경도 어느 산골이 고향이라는 아버지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해방이 되기 전에 이미 남도까지 흘러들어와 머슴살이를 하며 아예 놀러앉아 살게 된 모양이었다. 당연히 그에게 아버지 쪽의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 점에서 어머니 쪽도 거의 비슷한 처지였으므로 결국 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의지할 만한 변변한 피붙이 하나 없이 그들 두 형제를 홀몸으로 키워야만 했던 것이다.

24 태어나서부터 그의 소년기와 청년기의 앞부분까지를 고스란히 보낸 그 꼬두메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입안에 쓰디쓴 풀뿌리를 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 이십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에게는 다만 쓰디쓴 슬픔과 가난의 기억밖



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가난은 땅바닥에서 흙을 집어 먹던 어린아이 때부터 두 아이의 아버가 된 이 순간까지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저주가 되어 참으로 끈질기고도 완고하게 그의 등에 변함없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었다.

\_임철우, '눈이 오면'@17E수특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작품 속 서술자의 과거 회상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O/X
- ② 일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O/X
- ③ 장소에 대한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X
- ④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⑤ 독백을 통해 중심 인물의 삶을 요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⑥ '그'는 '아버지'에 대한 생생한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 O/X
- ⑦ '그'는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집을 떠나고 싶어한다. O/X
- ⑧ '아버지'의 상황과는 달리 '어머니'에게는 의지할만한 가족이 있었다. O/X
- ⑨ 외부로 표출한 적은 없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줄곧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O/X
- ⑩ '그'가 긴 시간동안 고향을 찾지 않았던 것은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O/X

03\_<보기>와 제시문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고향에서의 가난한 삶을 뒤로 하고 어쩔수 없이 꿈을 찾아 도시로 향했고,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로 고향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생활은 기대와는 달리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으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그 와중에 고향과의 단절로 인한 정서적 결핍까지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계기로하여 고향을 떠올리는 순간, 고향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고향에 대한 집념이 강렬해진다. 그러나 그들이 고향을 떠나 있던 시간만큼 고향도 바뀐 모습을 보여서 그들의 귀향은 성공적으로 끝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① '어머니'의 '홍타령'은 고향으로의 그리움이 담긴 행위임을 알 수 있다. O/X
- ② '보리순'은 남편을 여의고 고생하며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의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O/X
- ③ '푸르른 빛깔'은 '어머니'가 고향을 떠나며 도시에 품었을 희망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O/X
- ④ '탁한 하늘'은 고향의 모습과는 다른 '산업화'가 진행된 도시의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X

- ⑤ '상추씨'는 '도시'에서의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한 '어머니'의 경제적 방편으로 볼 수 있다.\* O/X
- ⑥ '꼬두메'는 '그'와 '어머니'에게 그리움의 대상이자 정서적 결핍을 유발한 존재로 볼 수 있다.\* O/X
- ⑦ '그'와 '어머니'는 '꼬두메'로 무사히 돌아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O/X
- ⑧ '어머니'의 '출렁거림'과 이후에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은 치매에 걸린 상태를 일시적으로 이겨낼 정도로 어머니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X
- ⑨ '아내'의 '울음'은 아내 또한 '꼬두메'를 갈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O/X
- ⑩ '어머니'의 '노란색 양단 치마저고리와 남빛 두루마기'에서 도시적 삶의 속성에 물든 모습을 알 수 있다.\* O/X
- ⑪ '아버지'는 '그'에게는 '고향'과 다른 의미로 존재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고향'과 유사한 의미로 기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X



문학> 수.희.시편>

- 01 [앞부분 줄거리] 낮잠을 자다 꿈속에서 죽은 남편을 만난 노모는 아들에게 저승 갈 준비를 해야겠다며 굿을 해 달라고 조른다. 무당 석출이 와서 굿판이 벌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명 나게 놀던 중, 노모는 죽음을 맞이한다. 온 집안이 장례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저승사자들이 나타난다.
- 02
- 03 말상주: (문상객 1을 가리키며) 너 저놈하고 짜고 집 팔아넘기려 했지?
- 04 둘째 상주: 이런 빌어먹을, 와 그리 머리통이 안 돌아가요? 상속세가 엄청난데 어떻게 하오? 그것도 겨우 사망 날짜 이틀 전으로 매매 계약서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
- 05 말상주: 예라, 이 후례자식아! (박치기)
- 06 둘째 상주: 아이, 코야!
- 07 말상주: (둘째 상주 먹살을 잡고) 말해! 누구 작품이야?
- 08 둘째 상주: 그거 나 혼자 한 거 아니오. 형수한테 결재 받았소.
- 09 말상주: (사이) 세상 다 살았다. (벌떡 일어서며) 줄초상이다 —.
- 10 말상주 달려가 처의 허리를 잡고 넘어진다. “아이고 사람 잡네!” 느린, 처의 비명을 신호로 저승사자들과 둘째 아들을 제외한 무대 위의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일대 활극이 슬로비디오로 펼쳐진다. 이때 한쪽에선 사인펜으로 ‘100,000원’이라고 쓰인 지전을 둘째 상주 코앞에 들이미는 사자 3.
- 11 둘째 상주: 이거 뭐고?
- 12 사자 3: 백지 수표라며? 우리 큰성님이 현금으로 바꿔 오래.
- 13 둘째 상주: 내가 은행이나?
- 14 석출: 빨랑 바꿔 주시오. 잘못 건드리면 개판 되오.
- 15 둘째 상주: 이거 순 날강도 야냐?
- 16 사자 1: (먼 산 불 보듯) 저네들 왜 저래?
- 17 사자 2: 인간 세상 개판이군. (기어 오는 사자 3을 보고) 넌 왜 그 모양이야?
- 18 사자 3: 인간 싸움에 사자 등 터졌소. 예수! 현금 바꿔 왔소.
- 19 사자 2: 진작 그럴 것이지. 제법 신사적으로 노는군. 성님, 피리가 수금해 왔소.
- 20 사자 1: 가만있거라. 잘못하면 계획에 없는 저승길 동행 생기겠다. (말상주를 가리키며) 저네들 왜 저래?
- 21 사자 3: (둘째 상주를 가리키며) 저놈이 나쁜 놈이오! 죽은 할머니를 산 것처럼 속여서 가옥 토지 매매 계약서를 꾸몄답니다.
- 22 사자 1: 그래? (사자 2를 돌아보며) 그거 저승법 몇 조에 해당되냐?
- 23 사자 2: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 부분 제16장 4절에 해당되는 사문서 위조요.
- 24 사자 1: 확실하나?
- 25 사자 2: 분명하오!
- 26 사자 1: 출동!
- 27 사자 1, 2: 출동! 출동!
- 28 처: 까악! (혼절)
- 29 노모, 관 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난다. 통통 뛰어서, 옥신각신하는 말상주, 둘째 상주한테 가서 뺨을 때린다. “엄 마다!” 하고 놀라는 말상주, 둘째 상주, 나머지는 “할매다!” 하며 놀란다.
- 30 사자 2: (관에서 뛰어나온 노모에게) 여노는 무슨 애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반칙을 범하고 계시오?
- 31 노모 손가락질로 다가오라는 시늉. 사자 2, 노모에게 다가가 귀를 댄다. 알았다는 듯 고덕거리는 시늉. 사자 2, 뚝뚝 걸어와 둘째 상주 먹살을 잡아 든다. 번쩍 들리는 둘째 상주.
- 32 둘째 상주: 살려 줘!
- 33 사자 2: 안 되겠다. 어머니가 너하고 동행해야 되겠다.
- 34 둘째 상주: 아이고, 나는 상주지 저승 갈 사람이 아니오.
- 35 사자 1: 야, 이 후례자식아! 저승이 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여행 취소하는 온천장인 줄 알아?
- 36 석출: 어떻게 편리 좀 봐줄 수 없겠소?
- 37 사자 1: 무슨 편리?
- 38 석출, 사자 1에게 다가가 귀엣말. 사자 1, 눈을 끔벅이며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사자 2에게 놓아주라는 눈짓. 털썩 떨어지는 둘째 상주. 석출, 둘째 상주에게 다가가 귀엣말 “게워 내!” 둘째 상주, 강력한 저항. 석출, 알아서 하라는……. 둘째 상주, 말없이 일어서 관으로 다가가 꿰어앉으며 애고 있게 “엄마야!” 노모, 뺨부터 철썩 올려붙인다. 둘째 상주, 옷 속에 공쳐 둔 부조금을 하나들 끄집어내어 관 속에 넣으며, 애고애고 돈 잃어 원통한 곡. 둘째 상주 일어서려는데, 노모, 어깨를 짙어 꿰어앉힌다. 노모의 수화(마임)—.
- 39 사자 2: (통역) 내 통장 내놔!
- 40 둘째 상주, 더욱 서러운 곡 놓으며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 속에 집어넣는다. 노모의 강력한 수화(마임)—.
- 41 사자 2: (통역) 집문서도!
- 42 말상주: 아이고, 집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입니까? 어머니가 떡장사해서 뼈 빠지게 세운 우리 가문의 터전인데…….
- 43 노모의 수화(마임)—.
- 44 사자 2: (통역) 집은 팔고 사는 부동산이 아니다. 요새 인간들이 가옥과 토지를 무슨 증권 거래하듯이 굴리는데, 이거, 안 좋아요! 집은 그냥 집이야, 방구들에 늘어붙어 편하게 살자고 세우는 게 집이지 돈 놓고 돈 먹는 뺨뺨이 판이 아니잖아! 알겠냐! 내가 떡장사해서 집 샀을 때, 너희들 부동산 투기 하라고 헛지랄했냐? 새 새끼 등지 틀듯 자손이 이어지고, 종손이 집 지키고, 제삿밥 꼬박꼬박 얻어먹을 생각으로 집 세웠지. 너희들이 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해 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 찾아가냐? 서울 교통이 지옥인데 낯선 길 찾기 어렵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되고, 이 나이에 그 높은 계단 걸어서 올라갈 군번이나, 내가!
- 45 석출: 요새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있어요. 복레 할머니.
- 46 노모, 짜증스러운 수화(마임)—.
- 47 사자 2: 혼백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봐라. 쥐도 새도 모르게 구천 중음신\* 신세로 떨어진다. (둘째 상주에게) 빨리 집문서 내놔라!
- 48 둘째 상주, 하이고 자지러지며 집문서를 관 속에 던진다. 말상주와 처도 기절할 듯 곡소리—. 노모, 관 속을 더듬 어 다발을 꺼내어 확 뿌리며 이별의 수화(마임)—.
- 49 사자 2: 자, 용돈이다. 닭 울기 전까지 신나게 화투판이나 벌여봐라, 탁야, 나 진짜 간다!
- 50 노모의 활짝 편 팔 신나게 흔들며, 뿌려지는 돈. 돈 주우려고 아





귀다툼하는 상주들. 무대 불 꺼진다.

\_이윤택, '오구-죽음의 형식'@17E수특

\*중음신\_죽은 사람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삶도 죽음도 아닌 중간 상태에 머무르는 것

01\_정리없이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빠]르게[바]르게

- ① 현실적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극화되어 전개되고 있다.\* O/X
- ② 등장 인물간의 갈등이 해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드러나 있다. O/X
- ③ 주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 O/X
- ④ 세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이 드러나 있다. O/X
- ⑤ 이승과 저승의 두 세계로 작품의 무대가 교차 이동하고 있다.\* O/X
- ⑥ '상주'들과 '노모'는 상이한 경제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O/X
- ⑦ '둘째 상주'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준다. O/X
- ⑧ '석출'은 상주들과 짜고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속셈을 보인다. O/X
- ⑨ '상주'들 뿐 아니라 '사자'들도 경제적 가치 앞에서 부정한 모습 보이고 있다.\* O/X
- ⑩ '상주'들은 노모의 바람을 받들어 갈등을 멈추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O/X



답\_☀️🌙☆1709호



문법>

- 01\_ O / O / X / O / O  
O / X-자음군단순화없음 / X / O / O
- 02\_ O / O / X / O / X  
X / O / O / X / X-필수적부사어는생략불가
- 03\_ O / O / X-앞 뒤바뀜 / X-중복일어남 / X-모두동사
- 04\_ ①동생이 하루종일 공부만 했다. / 나는 (동생에게) 데자와 식스팩을 주었다.  
②친구가 나에게 비닐 바지를 주었다. / 나는 (비닐 바지가) 마음에 든다...  
③그는 시험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 사람들이 (시험장에) 쓰레기를 남겼다.  
④쓰레기가 낙서를 하고 있다. / 벽이 하얀 종이로 되었다.  
⑤두 사람은 공원에서 헤어졌다. / 그 공원은 지금 공사 중이다.
- 05\_ 기우 / 배포 / 제반 / 할애  
복안 / 포용 / 제어 / 반목  
송출 / 측정 / 재량 / 고양

문학> 고전문문편>

- 01\_ [가]\_#돈과명예 없지마는 자연만은 날반기네  
[나]\_#안분지족  
[다]\_#병든서방 챙겨주는 아낙네의 걱정한숨
- 02\_ [가]\_출 / 자 / 안 / 관  
[나]\_관 / 안 / 관 / 관 / 관  
[다]\_관 / 안 / 사 / 관 / 안
- 03\_ X / O / X / O / X  
O / X / X

문학> 현대문문편>

- 01\_ [가]\_#아버지 #그리움  
[나]\_#나비 #서글픔
- 02\_ 안 / 안 / 관 / 연 / 과  
출 / 관 / 안 / 관 / 관  
관 / 나 / 관 / 대  
안 / 안 / 관 / 안 / 관  
안
- 03\_ X / O / O / X / X  
O / O / O / O / X  
O / O / X / O / X

문학> 고전소설편>

- 01\_ #유광역(세태)에 대한 비판
- 02\_ O / O-외사씨는~ / X-해학없음 / X / X  
X / O / X / O / O  
X / O / X / X / X  
X / X / X / O / O

문학> 현대소설편>

- 01\_ #고향과 과거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 02\_ X / O / O / O / X  
X / X / X / O / X
- 03\_ O / O / X / O / X  
O / X / O / X / X  
O

문학> 수.희.시편>

- 01\_ #장례식장에서의 여러 풍경들
- 02\_ O / O / O / O / X  
O / X / X / O / X



+@ / +ㅈㅊㄴㅅㅁㅣ

**[복]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복안腹案\_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배포配布\_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줌.

포용包容\_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고양高揚\_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워서 높임.

제반諸般\_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

송출送出\_물품, 전기, 전파, 정보 따위를 기계적으로 전달함.

기우杞憂\_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함. 또는 그 걱정

반목反目\_서로서로 시기하고 미워함.

측정測定\_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잴.

재량裁量\_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함.

할애割愛\_소중한 시간, 돈, 공간 따위를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뜻 내어 줌.

제어制御\_기계나 설비 또는 화학 반응 따위가 목적에 알맞은 작용을 하도록 조절함.

**[예]습이라는것이[폭]발한다**

**원작품**

[가]

- 01 내뼌물 그리수와 우니다니
- 02 산(山) 접동새 난 이숫ㅎ요이다
- 03 아니시며 거츰르신들 아으
- 04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루시리이다
- 05 녁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 06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 07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 08 물헛마리신더
- 09 솔웃븐더 아으
- 10 니미 나를 ㅎ마니즈시니잇가
- 11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정서,'정과정'@17E수특

[나]

- 01 매화 넷 등걸에 봄절이 도라오니
- 02 넷 뛰던 가지에 피염죽도 ㅎ다마는
- 03 춘설이 난분분ㅎ니 필동말동 ㅎ여라

-매화,'매화 넷 등걸에'@17E수특

[다]

- 01 국화야 너는 어니 삼월 동풍(三月東風) 다 보니고
- 02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노 피엿는다
- 03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썩인가 하노라

-이정보,'국화야 너는 어니'@17E수특



+@ / +ㅈㅊㄴㅅㅁ

해적 병설

[가]

- 01 前腔 내 입을 그리며 울고 지내나니
- 02 中腔 산의 접동새가 나와 비슷합니다.
- 03 後腔 나에 대한 참소가 진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을
- 04 附葉 지는 달과 새벽 별만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 05 大葉 님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 06 附葉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시던 사람이 그 누구였습니까.
- 07 二葉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 08 三葉 못 사람들의 참소하는 말이었습니다.
- 09 四葉 슬프구나. 아!
- 10 附葉 임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 11 五葉 아! 임이여 다시 나의 말을 들으시고 사랑해주소서.

-정서, '정과정'@17E수특

[나]

- 01 매화나무 옛 가지에 봄 계절이 돌아오니
- 02 꽃피던 옛 가지에 다시핍죽도 하지만
- 03 봄눈이 어지러우니 필동말뚱 하여라

-매화, '매화 넷 등걸에'@17E수특

[다]

- 01 국화야 너는 어떻게 삼월 동풍을 다 보내고
- 02 꽃잎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 홀로 피었느냐
- 03 아마도 추운날의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정보, '국화야 너는 어니'@17E수특

해적 병설

[가]

- 01 님의모습 떠올리며 울며불며 지내는나
- 02 산접동새 슬픈울음 내울음과 비슷하네
- 03 나에대한 남들디스 거짓에다 모함인줄
- 04 지는달과 새벽별은 이내마음 알겁니다
- 05 원하는건 혼이라도 임과함께 지내는것
- 06 내죄있다 우기던이 도대체가 어떤놈여
- 07 이내마음 클린하트 잘못허물 전혀없네
- 08 임의귀에 들리는말 거짓이반 모함이반
- 09 슬프도다 아이오아
- 10 아프도다 이미벌써 임이나를 잊으셨나
- 11 임이시여 부디나를 다시사랑 해주소서

[나]

- 01 매화나무 옛가지에 봄이다시 돌아오니
- 02 꽃이피던 옛가지에 다시핍죽 하건마는
- 03 봄눈팡팡 난리치니 필지말지 모르겠네

[다]

- 01 애국화야 너는어찌 따듯봄날 나보내고
- 02 꽃다죽는 추운겨울 너홀로만 피었느냐
- 03 추운날의 지조절개 너뿐인가 여기노라



# "비행 @6월엔 UFO가 온다"

해적 ☀[해] ☾[달] ☆[별] 실력가늠자 ✍\_1710호



너의슬픔또나의그리움을모두지워버리고.다른세상저멀리흰구름을타고서.까마득한아래의작은소리꿈꾸었던나날보였죠.그대만의슬결과내게오는그향기와.내가원하는건다여기있죠.가슴벅차오는자유  
1710\_[문법]+[정과정]+[매화 넷 등걸에]+[국화야 너는 어니]+[한]+[마음의 수수밭]+[낙성비룡]+[관촌수필]



☀️) ☆1710호

문법>

01\_ <보기 1>의 문장 중 밑줄 친 부분은 발음 과정에서의 실수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보기 2>와 연결지어 보세요.

보기 1

- ㄱ. 여러분의 걸으로[겨츠로] 달려 가고 싶지만 아직은 갈 수가 없습니다.
- 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살[살-음]. 그것은 우주 탐험과도 같습니다.
- ㄷ. 칼날[칼날]같은 굵어 읽기로 선택지 보기의 새 지평을 열 사람이 누굽니까!!!
- ㄹ. 조금만 기다렸[기달렸]다가 같이 가자.
- ㅁ. 우리 만형[마형]은 역시 믿음직스러워.
- ㅂ.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조홀]까?
- ㅅ. 비가 계속해서[계소계서] 온다면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을까?
- ㅇ. 매일 학교가는 길 늘 같은 버스에서 마주치는 멋진 수염과 코[코날]을 가진 감자칩 통아저씨.
- ㅈ. 약이 잘 안 듣거든 알약[알낙]만 먹지 말고 물약도 좀 먹어봐.
- ㅊ. 독립문[동림문]에서 찍은 사진은 내 방의 가장 큰 벽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다.

보기 2

- A. 잘못된 형식의 연음 현상을 바탕으로 발음을 시도하였다.
- B. 종성은 음절 끝에서 하나의 자음으로만 발음된다는 점을 잊고 발음을 시도하였다.
- C. 동화가 일어나야 할 환경에서 동화를 적용하지 않은 채로 발음을 시도하였다.
- D.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음운을 잘못 첨가한 채로 발음을 시도하였다.
- E.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구개음화를 잘못 적용한 상태로 발음을 시도하였다.
- F. 특정 상황에서 탈락해야 하는 음운을 탈락시키지 않은 채로 발음을 시도하였다.
- G. 예사 소리와 목청 소리가 만나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잘못 적용한 채로 발음을 시도하였다.
- H. 단어와 단어가 만날 때 특정 음운이 덧나는 상황을 적용하지 않고 발음을 시도하였다.
- I. 연속적으로 두 차례 일어나야 할 음운 변동 중 한 가지만 일어난 상태로 발음을 시도하였다.
- J. 발음 과정에서 양쪽 모두에 동시에 일어나야 할 음운 변동 중 한 쪽만 일어난 상태로 발음을 시도하였다.

⇒

02\_ '직접 구성 성분'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잘 채워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래의 단어들을 직접 구성 성분으로 분해한 뒤, 적절한 부분에 표시해 보세요.(복수 표시 가능)

보기

단어의 직접 구성 성분이란 복합어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1□ / 2□ / 3□ / 4□)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합어의 짜임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① 해님  
⇒ (□ 복합어 / □ 합성어 / □ 파생어)
- ② 코웃음  
⇒ (□ 복합어 / □ 합성어 / □ 파생어)
- ③ 비웃음  
⇒ (□ 복합어 / □ 합성어 / □ 파생어)
- ④ 날다람쥐  
⇒ (□ 복합어 / □ 합성어 / □ 파생어)
- ⑤ 날짐승  
⇒ (□ 복합어 / □ 합성어 / □ 파생어)

03\_ <보기>를 참고하여 아래의 물음에 답하세요.

보기

- ㄱ. 여름이 가을이 되었다.
- ㄴ. 가을은 바람이 좋다.
- ㄷ. 여름이 가서 가을이 되었다.
- ㄹ. 여름이 떠나는 흔적이 보인다.
- ㅁ. 여름이 가도록 소원을 빌었다.
- ㅂ. 여름이 감을 보고 가을을 생각했다.
- ㅅ. 그가 여름이 간다고 말했다.
- ㅇ. 그가 "여름이 간다"라고 말했다.
- ㅈ. 여름이 갔지만 날은 더웠다.

- ① ㄱ과 ㄴ은 모두 겹문장이다. O/X
- ② ㄷ은 앞과 뒤의 문장이 연결어미로 연결된 안은/안긴 문장의 형태로 볼 수 있다. O/X
- ③ ㄹ의 안긴 문장은 안은 문장의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O/X
- ④ ㅁ의 안긴 문장은 안은 문장의 서술어에 대응되고 있다. O/X
- ⑤ ㅂ의 안긴 문장은 명사처럼 쓰여 안은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O/X
- ⑥ ㅅ의 안긴 문장은 안은 문장의 주체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O/X
- ⑦ ㅅ과 ㅇ에서 '여름이 간다'고 발화한 주체는 각각 다르다. O/X
- ⑧ ㄴ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와 전체 문장의 서술어가 동일하다. O/X
- ⑨ ㄷ과 ㅈ은 모두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서로 긴밀한 연결 관계를 맺고 있다. O/X
- ⑩ ㅅ과 ㅇ의 인용 방식은 다르지만 각 문장 서술어의 자릿수는 같다. O/X



04\_ <보기 1>과 국어의 '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 2>를 잘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기 1		
>----->		
과거	현재	미래
A	B	C

**보기 2**

국영\_ "(놀람)여기 십년 전 우리 초등학교 때 사진이 있어!"  
 영수\_ "(놀람)와 다들 작았구나. (웃음)내가 이렇게 작았었다니."  
 수사\_ "사과 빼고 우리 다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 국영이는 코를 하도 흘려서 못 알아보겠어. 우는 줄 알았어. 허허"  
 국영\_ "(슬픔)울고 있는 것 맞아. 나 저때 지갑 잃어버렸어."  
 사과\_ "(허탈)하.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있을지. 체미는 계속 체육이랑 미술 쪽에서 일을 하고 있겠지?"  
 체미\_ "글쎄, 아무튼 매일 밤 손으로 발로 녹슨 거울을 닦은 사람도 있듯이, 나도 매일 밤 손으로 발로 녹슨 거울을 닦는 심정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어."  
 국영\_ "그런 의미에서, 이 설탕 우유 내가 먹는다?"

- ① 국영의 '사진'에 대한 발화 시점은 현재이고, '사진'이 담고 있는 내용물의 사건 시점은 과거이다. O/X
- ② 영수의 '작았구나'와 '작았었다니' 중 '작았었다니'가 좀 더 과거의 지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X
- ③ 수사의 '많이 다르다'는 발화시로 보면 현재이고, 사건시로 보면 과거이다. O/X
- ④ 수사의 '많이 다르다'의 기준 시점은 과거이다. O/X
- ⑤ 수사의 '아보겠어'는 미래 시점에 대한 추측형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X
- ⑥ 사과와 '10년 뒤'는 발화시로는 현재이지만, 사건시로는 미래이다. O/X
- ⑦ 사과와 '있겠지'는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X
- ⑧ 체미의 '닦은'과 '닦는'은 내용상 모두 현재 시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X
- ⑨ 체미의 '살아야겠어'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O/X
- ⑩ 국영의 '먹는다'를 통해 형태상의 시제와 내용상의 시제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O/X

05\_ <보기>의 어휘들을 잘 보고 아래의 괄호[ ]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어휘는 한 번 씩만 사용합니다.

보기
시세時勢 / 시사時事 / 시류時流 / 속단速斷 출타出他 / 병폐病弊 / 만류挽留 / 압착壓搾 유착癒着 / 흡착吸着 / 배타排他 / 이타利他

- ① 출입구에 마구 세워놓은 자동차들을 치워 '버리려'는 나의 행동을 친구들이 애써 [ ]했다.
- ② 마른 오징어도 힘껏 [ ]하면 물이 나온다는 말에서 한계는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 ③ [ ]에 잘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자신의 스타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 ④ 내가 아끼던 지우개는 17년째 [ ]중이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그 각진 모습이 가끔 생각이 난다.
- ⑤ [ ]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온 카카오 인형들이 가짜였다. 어쩐지 똑같지 않고 닮았더라니.
- ⑥ 큰 고장이라고 [ ]하여 수리기사님을 불렀는데 그냥 전선 선이 빠져 있는 게 문제였다.
- ⑦ 출입구에 자꾸 자전거들을 세워놓는 것이 그 건물의 [ ] 중 하나이다. 다 치워 '버리고' 싶다.
- ⑧ 외출 전 거울에 침착하게 [ ]시켜둔 카카오 인형들은 밖에서 돌아오면 늘 바닥을 뒹굴고 있다.
- ⑨ [ ]에 밝은 사람들은 늘 인터넷 신문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 ⑩ 윗집과 아랫집이 [ ]했는지 위에서는 흥만이 형이 뛰고, 아래서는 하루 종일 우리집을 향해 드럼비트를 놓은 것 같다.
- ⑪ 자기는 배 터지게 쳐먹고 꼬르륵 소리가 전화기 진동 소리만큼 크게 나는 내게는 냄새 한 가닥 안 풍기려한 [ ]적인 내 친구를 그러나 나는 좋아합니다. 그 친구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모르고 있거든요.
- ⑫ 어느 추웠던 날 마시멜로우를 녹여 먹기 위해 애쓰던 내게 쓱 다가와 라이타를 빌려준 그 청소년은 [ ]적인 사람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문학> 고전문문편>

[가]

- 01 내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 02 산(山) 접동새 난 이솝 효요이다
- 03 아니시며 거츠르신 돌 아으
- 04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루시리이다
- 05 녁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 06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 07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 08 몰히마리신더
- 09 솔웃분더 아으
- 10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 11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정서, '정과정'@17E수특

[나]

- 01 매화 넷 등걸\*에 봄절이 도라오니
- 02 넷 꿩던 가지에 피염죽도 흐다마는
- 03 춘설이 난분분히니 필동말동 흐여라

-매화, '매화 넷 등걸에'@17E수특

\*등걸\_나무를 베고 난 그루터기

[다]

- 01 국화야 너는 어니 삼월 동풍(三月東風) 다 보니고
- 02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노 피엿는다
- 03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정보, '국화야 너는 어니'@17E수특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뤄니]

[가]

- ① '내님'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접동새'는 (□즐거운 / □슬픈)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아니시며 거츠르신' 상황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잔월효성'은 (□소원성취 / □억울함 호소)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⑤ '녁'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버기서더니'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과'와 '허물'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 상황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괴오쇼셔'는 (□원망의 / □소망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⑩ '매화'는 (□변함 없는 / □변화가 잦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춘설'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필동말동'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다]

- ⑬ '국화'는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삼월동풍'은 (□살기 쉬운 / □살기 어려운)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낙목한천'은 (□살기 쉬운 / □살기 어려운)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오상고절'은 (□관찮은 / □안 관찮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다는 모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O/X
- ② 가, 다는 나와 달리 질문의 방식으로 화자의 내면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③ 나, 다는 가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④ 나, 다와 달리 가는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O/X
- ⑤ 나, 다는 가와 달리 계절감을 환기하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O/X
- ⑥ 가는 나, 다와 달리 화자의 소망이 작품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다. O/X
- ⑦ 가~다는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O/X
- ⑧ 가, 다는 나와 달리 작품의 표면에 청자를 노출하고 있다. O/X
- ⑨ 나, 다와 달리 가는 대상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O/X
- ⑩ 나, 다와 달리 가에는 시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다.\* O/X



문학> 현대운문편>

[가]

- 01 감나무쯤 되랴,
- 02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 03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 04
- 05 이것이 제대로 벌을 데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 06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벌어 가서
- 07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 08
- 09 그러나 그 사람이
- 10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11 느껴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 12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낫같이
- 13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 14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 15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 16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쩐던지
- 17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박재삼, '한'@17E수특

[나]

- 01 마음이 또 수수발을 지난다. 머윗잎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 02 개밥바라기 벌이
- 03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 04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 05 눈독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 06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 07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 08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 09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 10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 11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 12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 13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 14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 15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 16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 17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 18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 19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千佛山)이
- 20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 21 내 맘속 수수발이 환해진다.

-천양희, '마음의 수수발'@17E수특

01\_정리없는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02\_출제자의 [시어뒀니]

[가]

- ① '감나무'는 (□관찰은 / □안 관찰은 / □둘 다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② '저승'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③ '사람'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④ '설움'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나]

- ⑤ '마음이 "수수발"을 '지나'는 상황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⑥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는 상황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⑦ '바람'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⑧ '그림자'는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⑨ '산 위의 산'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⑩ '하늘'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⑪ '푸른 것들'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⑫ '솔바람'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⑬ '막막함'이 '올라가'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⑭ '목탁새들'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⑮ '천불산'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 ⑯ '수수발'이 '환해지'는 것은 (□관찰은 / □안 관찰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3\_[빠]르게[바]르게

- ① 가는 나와 달리 도치의 기법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② 나는 가와 달리 의도적 행 배치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③ 가와 나 모두 영탄을 통해 시상을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 ④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X
- ⑤ 가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⑥ 가와 달리 나는 주로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가깝게 드러내고 있다. O/X
- ⑦ 가와 나 모두 계절감을 환기하는 소재를 통해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⑧ 가와 나 모두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⑨ 가는 나와 달리 추상적 상황을 구체적 대상에 빚대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X
- ⑩ 가와 나 모두 비유를 통해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⑪ 가와 나 모두 작품의 표면에 위치한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다. O / X
- ⑫ 가와 달리 나는 역설적 표현으로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O / X
- ⑬ 가와 나 모두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 ⑭ 가와 달리 나는 시상이 진행되며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다. O / X
- ⑮ 가와 달리 나는 시상이 진행되며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O / X



문학> 고전소설편>

- 01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선비 이주현의 부인이 어느 날 큰 별이 방 안에 떨어졌다가 황룡이 되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잉태한 뒤, 18개월 만에 아들을 낳아 경모(아명: 경작)라고 이름을 짓는다. 경모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뒤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며 떠돌아다니다가 퇴임 재상 양 승상의 눈에 띈다.
- 02
- 03 한 씨 역시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 04 “영웅을 고르셨다 하시니, 뉘 집 자제이며 문벌이 어떠합니까?”
- 05 “인품만 보면 되지 어찌 문벌을 따지겠습니까?”
- 06 말을 마치고 경작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한 씨의 안색이 흠뻑으로 변하였다. 한 씨가 발을 동동 구르며 크게 놀라 말하였다.
- 07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경주는 계수나무 궁전의 모란꽃이요, 달 속의 선녀입니다. 마땅히 어울리는 재상 가문의 멋있는 낭군을 구하여 짝짓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저 집의 종을 배필로 삼고자 하시다니요? 막내딸 계집종도 그리하지는 못하니 상공은 열 번 생각하시고 다시는 말하지 마십시오.”
- 08 “사람을 말하는 데 있어 어찌 부귀한 것으로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어질지 못할까 근심해야지, 어찌 부귀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부인은 편협한 말을 다시 하지 마시오. 이 아이 지금은 이렇지만 훗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성현 군자가 될 것이요. 이 사람을 따를 자가 없을 것이요.”
- 09 말을 마치고 경주를 나오게 하여 사랑하고 아끼면서 말하였다.
- 10 “내 아이 이같이 아름다워 속절없이 높은 아비가 마음이 쓰였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사위를 골랐으니 저승에 가도 한이 없구나.”
- 11 한 씨가 혀를 꼰꼰 차면서 화를 냈다.
- 12 “상공이 자식을 망치려 합니다.”
- 13 “자식을 영화롭고 귀하게 할 것입니다. 두 아들과 설생이 비록 재주와 풍채가 뛰어나다 해도 산과 들의 짐승 종류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은 용과 호랑이의 기상과 금빛 봉황새의 재질을 가졌습니다. 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의 큰 뜻을 알겠습니까?”
- 14 “어디 가서 귀신 형상을 보고 와서 신선같은 아들과 사위가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까?”
- 15 “신선 같은 아들과 사위는 귀신 모양 같은 이 아이에게 견주지 못할 것이니, 후일에 내 말이 옳은 줄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아이 비록 그을려 검고, 힘든 일에 시달려서 겉모습이 초췌하고 옷차림이 남루하나 비범한 골격과 웅장하고 수려한 풍채는 당대는 물론이고 고금에도 비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 해와 달의 정기와 바다 같은 마음을 깊이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얼굴이 검고 초췌하나 불과 수일 후 면 옥같은 군자가 될 것이니 의심하지 마시오.”
- 16
- 17 [중략 부분 줄거리] 양 승상이 세상을 떠난 후 처가에서 박대를 당하던 이경작은 집을 나가 청운사에 의탁하여 현불 장로에게 수학(修學)한 후 이경모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급제한다. 이후 번왕이 침범하자 이경모는 대원수로 출전하여 승리를 거둔다. 번왕은 자객 요방을 보내어 이경모를 없애고자 했으나 이경모는 요방을 감동시켜 스스로 굴복하게 한다.
- 18
- 19 말을 마치고 상자 가운데에서 은자를 한 주머니 주며 말하였다.
- 20 “여기 백 냥이니 비록 많지 않으나 가져가 농업에 힘쓰고 이 노

- 릇을 버려라.”
- 21 요방이 머리를 책상에 두드리며 죽기를 청하였으나 원수의 명쾌하고 깨끗한 인상과 너그러운 말솜으로 인해 오히려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다시 꿇어앉았다.
- 22 “소인이 하늘에 죄를 지어 죽음으로써 악한 마음을 뉘우치고 어진 마음을 가져 한 목숨을 마쳐도 부질없을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어르신이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가 이와 같으시니 마음이 감동하여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이 관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시니 목숨이 다하도록 가르친 바를 잊지 않겠습니다.”
- 23 요방이 감동하여 눈물이 샘솟는 듯하였다. 경모가 저렇게 깨우치는 것을 보니 기쁘고 어질게 여겨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근하게 위로하여 말하였다.
- 24 “날이 밝으면 군중이 분명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빨리 돌아가야 할 것이다.”
- 25 요방이 즉시 일어나 비검을 빼어 다섯 조각을 내고 경모를 향하여 백번 절을 한 후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시 진지를 넘어갔다. 경모가 촛불 아래 홀로 앉아 저 흉악스러운 사람이 깨우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어, 이튿날 여러 장수에게 말하지 않으니 군중은 까마득히 몰랐다.
- 26 요방이 급히 달려 번나라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번왕 남곽이 여러 대신을 즉시 모았다. 요방은 절을 하고 땅에서 머뭇거리니 왕이 물었다.
- 27 “경모의 머리는 어디에 있느냐?”
- 28 요방이 한 주머니의 은자를 내어 왕에게 드리고 이경모가 목을 늘어뜨려 칼을 받으려 하던 일과 그 묻고 대답하던 이야기를 일일이 말하였다. 남곽이 듣고 나서 하늘을 보며 탄식하며 말하였다.
- 29 “하늘이 이 같은 영웅을 중국에 내시어 내 뜻을 이루지 못하니 한스럽다.”
- 30 그리고 모든 신하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 31 “이 사람은 만고일인이라. 비록 천 명의 장수, 만 명의 병사를 두었지만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구나. 빨리 항복하여 왕위를 잃지 않는 것이 상책일까 한다.”
- 32 모든 신하가 다 옳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나섰다.
- 33 “군병이 약해서 빌어 투항하면 저들이 분명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34 “그렇지 않다. 사람이 이렇듯 크고 넓으니 분명 용서할 것이다.”
- 35 남곽이 이렇게 말을 하고는 요방을 놓아 보내 주었다. 요방이 이경모의 가르침에 크게 깨우친 것이 있어 자객 노릇을 버리고 은자로 장사하고 발을 갈아 어진 백성이 되었다. 그 후 요방은 이경모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그림을 그려 깨끗한 당에 걸고 아침저녁으로 공양하며 길이 성덕을 칭송하였다. 이를 보면 사람이 도량이 넓고 순해도 사람들이 복종할 수 있음을 알겠다.
- 36 남곽이 이튿날 성 위에 항복하는 기를 꽂고 항복하는 글을 올렸다. 경모가 받아 보니, 남곽이 글에서 자신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어조가 매우 공손하였다. 경모가 마음으로 기뻐하는데 갑자기 남곽이 서로 볼 것을 청하였다. 경모가 갑옷을 입지 않고 공복을 입고 머리에 용 모양을 한 모자를 쓰고, 옥으로 장식한 수레를 타고 가려 하자 모든 장수가 말하였다.
- 37 “적들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갑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38 경모가 웃으며 상관없다고 하고는 모든 장수를 거느리고 번나라 진영으로 갔다. 남곽이 십 리까지 나와 맞으며 예를 갖추어 공손히 섬기기를 과도하게 하였다. 함께 본진에 이르니 남곽이 경모에게 자신의 죄를 낱알이 일컬었다.
- 39 “내가 짝 막히어 큰 나라를 잘못 침범하여 죄를 지었으나 이미 뉘우침이 큰 까닭으로 다시 표를 올려 명을 청합니다. 만일 대죄를 용서하시면 살아남은 목숨으로 해마다 조공을 부지런히 올리겠습니다.”
- 40 경모가 안색을 바르게 하고 매우 기쁘게 응낙하자 왕이 두려워 행복하며 극진히 대접하였다.
- \_작자 미상, '낙성비룡'@17E수특

### 01\_정리없이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 02\_[빠]르게[바]르게

- ① 이야기의 진행 도중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② 주인공 주변 인물의 가부장적 모습이 드러나 있다. O / X
- ③ 중심 인물을 두고 주변 인물들이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O / X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X
- ⑤ 중심 인물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주를 드러내는 영웅형 인물로 볼 수 있다.\* O / X
- ⑥ '양 승상'은 사람을 알아 보는 남다른 눈이 있었다. O / X
- ⑦ '양 승상'과 '한 씨'의 대화가 격해지면서 '한 씨'에 대한 '양 승상'의 태도가 바뀌어 드러나고 있다. O / X
- ⑧ '한 씨'는 '경모'를 차라리 종과 혼인시키고 싶어한다. O / X
- ⑨ '양 승상'은 '경모'의 재주를 자신의 자식들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O / X
- ⑩ '경모'는 흥한 외모와 왜소한 풍채를 지녔지만 늘 마음 속에 높은 뜻을 품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다. O / X
- ⑪ '요방'은 자신이 가져온 비검을 조각내어 '경모'에 바침으로써 '경모'에 대한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O / X
- ⑫ '경모'는 지략과 함께 특출난 무예 솜씨로 전장을 누비며 적들을 물리쳤다. O / X
- ⑬ '남곽'은 예고 없이 '경모'를 찾아와 '경모'와의 대화를 청했다. O / X
- ⑭ '남곽'은 '번왕'의 대리인으로 '경모'를 만나게 되었다.\* O / X
- ⑮ '번왕'은 명나라에 자신이 먼저 침공하고도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O / X



## 문학&gt; 현대소설편&gt;

- 01 시골을 다녀오되 성묘가 목적이기는 근년으로 드문 일이었다. 더욱이 양력 정초에 몸소 그런 예모를 찾고 스스로 치름은 낳고 첫 겪음이기도 했다. 물론 귀성열차를 끊어 앓고부터 “송헌……. 뉘라 [양력설] 두 슬이라 이른다더냐, 상것들이나 왜놈 세력(歲曆)을 아는 뱀여…….” 세모가 되면 한두 군데서 들어오던 세찬\* 을 놓고 으레곤 꾸중이시던 할아버지 말씀이 자주 되살아나 마음 한켠이 결리지 않은 바도 아니었지만, 시절이 이러매 신정 연휴를 빌미할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찌랴 하며 견딘 거였다.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不孝)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 02 그것은 내가 그리워해 온 선대인은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동기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색창연한 '이조인(李朝人)'이었던 할아버지,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진실로 육친이요 조상의 얼이란 느낌을 지워 버릴 수 없는 거였고, 또 앞으로도 길래 그럴 것같이 여겨진다는 것이다. 받은 사랑이며 가는 정으로야 어찌 어머니 위에 다시 있다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마는, 그럼에도 삼가 할아버지 한 분만으로 조상의 넋을 가늠하되, 당신 생전에 받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실로 받들고 싶도록 값지게 여겨지는 터임에, 거듭 할아버지의 존재와 추억의 조각들을 모든 것의 으뜸으로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 03 초사흘날, 기증 붓비지 않을 듯싶던 열차로 가려 탄 것이 불찰이라 하게 피곤하고도 고달픈 고향길이었다. 한내읍에 닿았을 때는 이미 세 시도 겨워 머잖아 해거름을 만나게 될 그런 어름이었다. 열차가 한내읍 머리맡이기도 한 갈머리[관촌부락冠村部落] 모퉁이를 돌아설 즈음엔 차창에 빗방울까지 그어지고 있었다. 예년에 없던 폭한\* 날씨기에 눈을 비로 뿌리던 모양이었다. 겨울비를 맞으며 고향을 찾아보기도 난생처음인데다 정두고 떠났던 옛 산천들이 돌아보이자, 나는 설레기 시작한 가슴을 부접할 길이 없었다.\*
- 04 나는 한동안 두 눈을 지릅뜨고 빗발 무늬가 잦아 가던 창가에 서서, 뒷동산 부엉재를 감싸며 돌아가는 갈머리 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들뜬 것과는 별도로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것이다. 옛 모습으로 남아 난 것 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 05 그중에서도 맨 먼저 가슴을 후려친 것은 '왕소나무'가 사라져 버린 사실이었다. 분명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엔 외양간만 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굴뚝]만이 꼰불견으로 뻗질러 서 있던 것이다.
- 06 그 왕소나무 앞세에 누렁물이 들고 가지에 삭정이 가 끼는 걸 보며 고향을 뜨고 십삼 년 만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긴 했지만, 언제 배어다 켜 썼는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현장을 목격하니 오장에서 부레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사백여 년에 걸친 그 허구한 풍상을 다 부대껴 내고도 어느 솔보다 푸르던, 십장생의 으뜸다운 풍모로 마을을 지켜 온 왕소나무가 아니었던가. 내가 일곱 살 나 천자문을 떼고 책씻이\* 도 마친 어느 여름날 해 설핀\* 석양으로 잊지 않고 있지만, 나는 갓가 제방 독까지 할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온 마을을 쓸어 삼킬 듯이 쳐들어오던 바다 밀물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땡기물떼새와 갈매기들의 울음

- 소리가 석양 놀에 가득 떠 있던 [눈부신 바다]를 구경했던 것이다. 방파제 걸로 장항선 철로가 끝간 데 없고, 철로와 나란히 자갈마다 뽕안 신작로는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 왕소나무는 철로와 신작로가 가장 가까스로 다가선, 잠목 한 그루 없이 잔디만 펼쳐진 평평잡잡한 버덩\* 위에서 사백여 년이나 버티어 왔던 것이다.
- 07 그날 할아버지는 장정 두 팔로 꼭 네 아름이라던 왕소나무 밑동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면서,
- 08 “이 애야, 이 왕솔은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할아버지께서 짚고 가시던 [지팡이]를 꽂아 놓셨는데 이날 자란 게란다. 그쪽에 그 할아버지 말씀은, 요 지팡이 앞으로 철마가 지나가거들랑 우리 한산 이씨 자손들은 이 고을에서 뜨야 허리라구 허셨다는 게여……. 그 말씀을 새겨들어 진작 타관살이를 했더라면 요로 큼 모진 시상은 안 만났을지두 모르는 것을…….”
- 09 하던 말을 나는 여태껏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왕소나무의 내력에 대해서 최초로 들은 지식이었다.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왕소나무로 되다니. 토정이 이인이며 기행이 많았던 것은 토정비결을 보는 자리 옆에서 이따금 들었으므로, 할아버지가 외경스러워하던 모습이나 개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듯도 했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런 구전된 전설 따위는 곧이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 왕소나무는 군내에선 겨울 데가 없던 백수(百樹)의 우두머리였고, 그 나무는 이제 차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며, 나는 우리 가문의 선조 한 분이 그토록 우려하고 경계했다던, 그러나 이미 사십여 년 전부터 장항선 철로를 활아온 철마를 탄 몸으로 창가에 서서, 지호지간의 그 유적지를 비껴가고 있었던 것이다.
- 10 이제 완전히 [타락한 동네] 구나— 나는 은연중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마을의 주인(왕소나무)이 세상 뜬 지 오래라니 오죽해졌으랴 싶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몫 해 온 탓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여름이면 밤낮 기적 소리가 잘 들었던 철로가에 서서, 그 술한 소음과 매연을 마시다 지쳐, 영물(靈物)의 예우도 내던지고 고사(枯死)해 버린 왕소나무의 운명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왕소나무의 비운에 대한 조상(弔喪)만으로 비감에 젖어 있었 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 11 사실이 그랬다. 내가 살았던 [옛집]의 추레한 주제꼴에 한결 더 가슴이 미어지는 비감으로 빠져려 하고 있었으니까. 비록 얼핏 지나치는 차창 너머로 눈결에 온 것이긴 했지만, 간살이 넉넉한 열다섯 칸짜리 꽃패집의 풍채는커녕, 읍내 어디서라도 갈머리 쪽을 바라볼 적마다 온 마을의 종가(宗家)나 되는 양 한눈에 알겠던 집이 그렇게 변모할 수가 있을까 싶던 것이다.
- 12 그것은 왕소나무의 비운 버금으로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었다. 이제는 가로세로 들쭉날쭉, 골값하는 난봉난 집들이 들어서며 마을을 어질러 놓아, 겨우 초가 안채 용마루만이 그럴듯할 뿐이었으며, 좌우에서 하늘 자락을 치켜들며 함석지붕 날개와 담장을 뒤덮었던 담쟁이덩굴, 사철 푸르게 발마당의 방풍림으로 늘어섰던 들충나무의 가지런한 맵시 따위는 찾아볼 엄두도 못 내게 구차스러운 동네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 13 실향민.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 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랬자 무덤(墓)들 밖에 남겨 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 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 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험박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



\_이문구, '관촌수필' @17E수특

- \*세찬(歲饑): 설에 차리는 음식.
- \*폭한: 겨울 날씨가 퍽 따뜻한.
- \*부접(附接)할 길이 없었다.: 한곳에 붙어 배기거나 견디어 내지 못하였다.
- \*부레가 끓어오르지: 몹시 성나지.
- \*책씻이: 글방 따위에서 학생이 책 한 권을 다 읽어 떼거나 다 베껴 쓰고 난 뒤에 선생과 동료들에게 한턱내는 일.
- \*해 설핀: 해의 밝은 빛이 약해진.
- \*버덩: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

### 01\_ 정리없이 정답없지 나는 막 [해시#]지

⇒

### 02\_ [빠]르게[바]르게

- ① 이야기가 진행되며 작품 속 서술자가 교체되고 있다. O/X
- ② 인물과 인물 사이의 대화보다는 중심 인물의 독백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O/X
- ③ 상징적 의미의 사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O/X
- ④ 인물의 방언을 통해 주제가 강화되고 있다. O/X
- ⑤ 객관적 태도의 서술자가 작품 속 공간에 대한 관찰 위주의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O/X
- ⑥ 서술자의 눈에 비친 공간과,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O/X
- ⑦ 성격이 다른 두 인물을 배치하여 인물 간 갈등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O/X
- ⑧ 서술자의 과거 회상 장면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드러내고 있다. O/X
- ⑨ 반어적 표현으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O/X
- ⑩ 서술자의 기대 심리와는 다른 공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O/X
- ⑪ '나'는 신정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탐착지 않게 여기면서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X
- ⑫ '나'는 정서적으로는 어머니를, 정신적으로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O/X
- ⑬ '나'는 고향을 벗어나 있는 동안 고향 소식을 접하지 못 했다. O/X
- ⑭ 어린 시절 '나'는 '지팽이'에 얽힌 할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 O/X
- ⑮ '나'의 고향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나'는 고향과 유사한 이미지의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O/X

### 03\_ 작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열거된 부분들을 성질이 유사한 것 끼리 두 부분으로 묶어 보세요.

#### 보기

양력술 / 이조인 / 옛 모습 / 왕소나무 / 구멍가게 굴뚝  
 눈부신 바다 / 지팽이 / 타락한 동네 / 옛집

⇒







+@ / +ㅈㅊㄴㅅㅁ

**[복]습이라는것이[쪽]발한다**

- 시세時勢\_일정한 시기의 물건값.
- 시사時事\_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 시류時流\_그 시대의 풍조나 경향. '시대 흐름'
- 속단速斷\_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판단함.
- 출타出他\_집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나감.
- 병폐病弊\_병통과 폐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 문제점.
- 만류挽留\_붙들고 못 하게 말림.
- 압착壓搾\_눌러 짜냄.
- 유착癒着\_사물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여 있음.
- 흡착吸着\_어떤 물질이 달라붙음.
- 배타排他\_남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꾀함.
- 이타利他\_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함

**[예]습이라는것이[쪽]발한다**

원작품

- 01 흥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 02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 03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 04 산림(山林)에 못쳐 이셔 지락(至樂)을 맛볼 것가
- 05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 06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  
라
- 07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 08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잇고
- 09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10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 11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험스럽다\*
- 12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 13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 14 몰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냐
- 15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 16 소요음영(逍遙吟詠)\* 허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 17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18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 19 답청(踏青)\*오란 오늘 흐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흐새
- 20 아춤에 채산(採山)흐고, 나조히 조수(釣水)\*흐새
- 21 꾀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 22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 23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24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 25 준중(樽中)\*이 뷘갓든 날드려 알외여라
- 26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 27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 28 미음완보(微吟緩步) 허야 시냇?의 호자 안자
- 29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 30清流(清流)를 굽어보니 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 31 무릉(武陵)이 갓갓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 32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 33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긔 안자 보니
- 34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니
- 35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פת는 듯
- 36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 37 공명(功名)도 날 싹우고\* 부귀(富貴)도 날 싹우니
- 38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정극인, '상춘곡'@17E수특

- \*흥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 / \*하건마는: 많건마는.
- \*수간모옥: 작은 초가. / \*울울리에: 뽕뽕하게 우거진 속에.
- \*풍월주인: 자연을 즐기는 사람.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표현.
- \*몰아 낸가: 말아(마름질하여) 내었는가?
-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비스러운 능력.
- \*험스럽다: 야단스럽다.
- \*소요음영: 나직이 시부(詩賦)를 읊조리면서 거니는 것.
-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서 맛보는 참된 즐거움.



+@ / +ㅈㅊㄴㅅㅌㅍ

- \*답청: 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음. 청명절(淸明節)에 교외를 산책하며 자연을 즐기는 풍습.
- \*욕기: 기수에서 목욕함. / \*조수: 낚시질.
- \*준중: 술독. / \*봉두: 산봉우리.
- \*천촌만락: 수많은 촌락.
-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 \*금수: 수놓은 비단. / \*유여홀사: 넘치는구나.
- \*씩우고: 꺼리고. 싫어해 따르지 않고.

현대어 풀이

- 01 세상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 02 옛 사람들의 풍류 생활에 내가 미칠까 못 미칠까?
- 03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만한 사람이 많건마는
- 04 자연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그들은 모르는 것인가?
- 05 몇 간의 되는 초가집을 맑은 시내 앞에 지어 놓고,
- 06 소나무, 대나무가 우거진 속에 풍류객이 되었구나!
- 07 엇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 08 복숭아꽃, 살구꽃은 저녁 햇빛 속에 피어 있고,
- 09 푸른 버들과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 010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 011 조물주의 신비한 솜씨가 경물景物마다 야단스럽구나!
- 012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 013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다.
- 014 자연과 내가 한 몸이거나 흥겨움이야 다르겠는가?
- 015 사립문 주변을 걷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 보기도 하니,
- 016 천천히 거닐며 나직이 시를 읊조려보아도 산속의 하루는 적적한데
- 017 한가로움 속 참된 즐거움을 알 사람이 없거나 혼자로구나
- 018 여보게 이웃 사람들이여, 산수 구경을 가져꾸나.
- 019 산책은 오늘 하고 냇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내일 하세.
- 020 아침에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질 하세.
- 021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 놓고,
- 022 꽃나무 가지를 꺾어 잔 수를 세면서 먹으리라.
- 023 화창한 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 024 맑은 향기는 술잔에 가득하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 025 술동이 안이 비었으면 나에게 아뢰어라.
- 026 시동侍童을 시켜서 술집에서 술을 사 가지고,
- 027 어른은 지팡이를 짚고 아이는 술을 매고,
- 028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 029 고운 모래가 비치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 술을 부어 들고,
- 030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내려 오는 것은 복숭아 꽃이로다.
- 031 무릉도원이 가까이 있구나. 저 들이 바로 그곳인가?
- 032 소나무 사이 좁은 길로 진달래꽃을 붙들어 잡고,
- 033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 034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벌여 있네.
- 035 안개와 놀과 빛나는 햇살은 아름다운 비단을 펼쳐 놓은 듯.
- 036 엇그제까지 검었던 들판이 이제 봄빛이 넘치는구나.
- 037 공명과 부귀가 모두 나를 꺼려하니,
- 038 청풍과 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 039 도시락에 밥 싸먹고 표주박에 물 마셔도 허튼 생각은 아니하네
- 040 아무튼 평생의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떠하리?

해적 병설

- 01 바깥 세상 사람들이 이내 생활 어떠한가
- 02 자연속의 내모습이 옛사람들 뺨때리네
- 03 넓디넓은 이세상에 사람들이 많건만은
- 04 자연속의 즐거움은 나밖에는 모른다네
- 05 뽕뽕뽕뽕 초가집을 시내앞에 지어두고
- 06 소나무에 대나무에 내가바로 신선이네
- 07 지난겨울 지나가고 새봄별이 산에드니
- 08 복숭아꽃 살구꽃은 해질무렵 피어있고
- 09 푸른버들 예쁜꽃은 가랑비에 푸릇푸릇
- 010 칼로새긴 솜씨인가 붓그려낸 솜씨인가
- 011 조물주의 그솜씨가 온자연에 신기하다
- 012 봄기운을 참지못해 수풀에서 우는새는
- 013 옹하옹하 여기봐옹 소리마다 애교철철
- 014 자연이곤 내몸이니 흥겨움을 빼놓소나
- 015 초가집문 정자산책 시를외며 걸어보니
- 016 바깥 세상 사람들은 이즐거움 모르는지
- 017 넓디넓은 이자연에 즐거운이 나혼자네
- 018 이보시오 이웃사람 자연구경 가봅시다
- 019 오늘코스 산책코스 내일코스 낚시코스
- 020 아침에는 나물캐고 저녁에는 낚시하세
- 021 빗어낸지 얼마안된 싱싱한술 따라두고
- 022 한잔한잎 두잔두잎 꽃잎세며 마시리라
- 023 훈훈바람 살짝불어 시냇가를 넘어오니
- 024 술잔에는 향기지고 옷위에는 꽃잎지네
- 025 술동이가 비었거든 즉시내게 알리거라
- 026 심부름꾼 아이에게 술심부름 부탁하여
- 027 어른들은 막대짚고 아이들은 술을매고
- 028 인기가요 중얼대며 푸른물에 혼자앉아
- 029 맑은모래 다비치는 맑은물로 술잔씻어
- 030 푸른물을 굽어보니 복숭아꽃 흘러간다
- 031 무릉도원 가깝구나 저옆산이 그곳인가
- 032 소나무옆 좁은길로 진달래꽃 꺾어들고
- 033 산꼭대기 급히올라 구름속에 앉아보니
- 034 저산아래 인간세상 이집저집 많고많다
- 035 이산안개 저산햇살 비단결을 뺨때리니
- 036 지난겨울 검은들판 봄빛넘실 눈부시네
- 037 넉넉한삼 유명한삼 모두나를 싫어하니
- 038 푸른바람 밝은달만 내친구가 되었구나
- 039 이내생활 가난해도 허튼생각 아니하니
- 040 어찌됐든 자연속의 이즐거움 어떠하리?